

---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The 41st Session of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

2010. 3.



**기 획 조 정 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 < 목 차 >

<b>I. 개 요</b> .....	<b>1</b>
가. 회 의 명 .....	1
나. 참가목적 .....	1
다. 출장기간 .....	1
라. 출장지역 .....	1
마. 대표단 구성내역 .....	1
<b>II. 주요의제</b> .....	<b>2</b>
가. 토론 및 의사결정 의제 .....	2
나. 정보제공의제 .....	2
다. UNSD프로그램 질의 .....	2
라. 42차 위원회 잠정의제 및 일정 .....	2
마. 41차 위원회 보고 .....	2
<b>III. UN통계위원회 및 주요회의 일정</b> .....	<b>3</b>
<b>IV. 주요활동</b> .....	<b>4</b>
가. 주요 회의참석결과 .....	<b>4</b>
1) 유엔통계위원회 .....	4
2) 공식통계에 관한 고위급 포럼 .....	9
3) 스티글리츠위원회 세미나 .....	10
4) OECD의장단 비공개회의 .....	10
나. 국제 통계협력 활동 .....	<b>13</b>
1) 유엔통계처장과 국제세미나 개최협의 .....	13
2) 몽골 통계청장과 통계협력방안 논의 .....	13
3) 중국국가통계국장과 협력방안 협의 .....	14
4) UNSIAP소장 면담 .....	14
5) UNFPA · UNDP와 북한통계협력 관련 협의 .....	14
6) 유엔대표부 대사 예방 .....	15
7) ICT통계 국제회의 홍보 및 실무협의 .....	15

<b>V. 유엔통계위원회 의제 요약 및 코멘트</b> .....	<b>16</b>
1) 국가통계 품질 .....	17
2) 농업통계 .....	23
3) 국제상품교역 통계 .....	35
4) 국제서비스교역 통계 .....	39
5) 국제비교프로그램(ICP) .....	42
6) 국민계정 .....	45
7) 환경통계 .....	52
8) 환경경제계정 .....	60
9) 세계통계의 날 제정 .....	64
10) 세계지리정보관리 .....	65
11) 세계통계표준표 .....	70
12) MDGs 모니터링 지표개발 .....	75
13)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 통계개발 .....	80
14) 인구·주택총조사 .....	86
15) 고용통계 .....	91
16) 마약 및 범죄통계 .....	97
17) 장애통계 .....	102
18) 문화통계 .....	104
19) 산업통계 .....	106
20) 서비스통계 .....	110
21) 금융통계 .....	115
22) 물가지수 .....	118
23) 비공식부문 통계 .....	123
24) 통합경제통계 .....	128
25) 정보통신기술(ICT)통계 .....	133
26) 통계역량강화 .....	137
27) 통계프로그램 조정 및 통합 .....	142
28) 국제경제사회분류 .....	149
29) 경제사회이사회 정책결정 후속조치 .....	152

<b>VI.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의제 요약 및 코멘트</b>	<b>154</b>
1) 공식통계의 신뢰성 측정	155
2) 자료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원칙	164
3) 2011-2012 사업계획 · 예산안	165
4) 스티글리츠-센 위원회 후속조치	167
5) 소득 · 소비통계	169
6) OECD 녹색성장전략의 지표	172
7) 금융통계	177
8) OECD 혁신전략	180
9) 이주통계 DB	189
<b>VII. 공식통계에 관한 고위급 포럼</b>	<b>191</b>
1) 회의 개요	191
2) 기초발제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	192
3) 주요 토론내용	194
<b>VIII. 유엔통계위원회 논의요약 자료</b>	<b>197</b>
1) UN통계처장의 프로그램 이슈에 관한 보고	197
2)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제41차 유엔통계위에 관한 보고	204
<b>IX. 기타</b>	<b>205</b>
1) 부대행사(Side Events)	205
2) 고위급 포럼 Flier	207
3)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사진	208
4)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관계자 명함모음	209
<b>X. 회의의제 자료(영문)</b>	<b>211</b>
1) 유엔통계위원회	211
2) OECD의장단	212
3) 각국 참가자 명단	213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 I 개 요

가. 회 의 명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4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나. 참가목적

- 국가통계시스템에 관한 고위급 포럼 좌장
- 국제통계사회 주요현안 공동논의 및 동향과약
- 각국 통계청장 및 국제기구 수장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인 국제통계협력 활동·참여를 통한 우리 청 위상제고
- 금년 7월 개최되는 ICT통계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실무협의

다. 출장기간 : 2010.2.21(일) ~ 2.28(일)(8일)

라. 출장지역 : 미국 뉴욕 유엔본부

마. 대표단 구성내역

- 대표단장 : 이인실 통계청장
- 대표단원 : 박경애 국제협력담당관, 최연옥 통계정책과장,  
김은정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성기도 국제협력담당  
사무관,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장

## II 주요의제

### 가. 토론 및 의사결정 의제 (Items for discussion and decision)

① 국가통계 품질, ② 농업통계, ③ 국제 상품교역 통계, ④ 국제 서비스교역 통계, ⑤ 국제비교프로그램(ICP), ⑥ 국민계정, ⑦ 환경통계, ⑧ 환경경제계정, ⑨ 세계통계의 날 제정, ⑩ 세계지리정보관리, ⑪ 세계통계 표준표, ⑫ MDGs 모니터링 지표개발, 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통계발전

### 나. 정보제공의제 (Items for information)

① 인구·주택센서스, ② 고용통계, ③ 마약 및 범죄통계, ④ 장애통계, ⑤ 문화통계, ⑥ 산업통계, ⑦ 서비스통계, ⑧ 금융통계, ⑨ 물가지수, ⑩ 비공식부문 통계, ⑪ 통합경제통계, ⑫ ICT통계, ⑬ 통계역량구축, ⑭ 통계프로그램조정 및 통합, ⑮ 국제경제사회분류, ⑯ 경제사회이사회 정책결정 후속조치

### 다. UNSD 프로그램 질의

### 라. 42차 위원회 잠정의제 및 일정

### 마. 41차 위원회 보고

### III

## UN통계위원회 및 주요 회의일정

2.19.(금)	2.20.(토)	2.21.(일)	2.22.(월)	2.23.(화)
<p>10:00am - 1:00pm 자료배포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세미나</p> <p>2:00pm - 5:30pm 자료배포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세미나(계속)</p>	<p>10:00am - 1:00pm 통계개발 전략기획에 관한 PARIS21 회의</p> <p>2:00pm - 4:00pm PARIS21 이사회미팅</p>	<p>09:30am - 2:00pm ICP2011 집행위원회 회의(비공개)</p> <p>4:00pm - 7:00pm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관련 세미나 (비공개)</p>	<p>9:00am - 11:00am IAOS회의 관련 미팅(비공개)</p> <p>9:30 - 12:00pm 통계활동조정위원회 (CCSA)미팅(비공개)</p> <p>11:45am - 1:00pm 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p> <p>3:00 - 6:00pm 고위급포럼 “국가통계시스템의 실효성 제고”</p>	<p>10:30am 41차 통계위 개최</p> <p>10:30am - 1:00pm 의장단 선출, 의제체 택, 국가품질보증 프레임워크, 농업통계관련 협의</p> <p>1:50 - 3:30pm 오찬세미나 (부동산가격 측정)</p> <p>3:00 - 6:00pm 국제상품교역통계, 국제서비스교역통계 , 국제비교프로그램, 국민계정관련 토의</p>
2.24.(수)	2.25.(목)	2.26.(금)		
<p>9:00am - 10:00am 국제무역통계 관련 기관간 회의</p> <p>10:00am - 1:00pm 국민계정, 환경통계, 환경계정, 세계통계의 날</p> <p>1:50 - 3:00pm 오찬 세미나 (통계작성과정의 현대화, 스웨덴)</p> <p>3:00pm - 6:00pm 세계지리정보관리, 세계통계표준표, 개발지표관련 토의</p>	<p>10:00am - 1:00pm 중남미지역통계, 인구, 고용, 문화, 산업, 서비스, 금융, ICT통계관련 토의 (인구센서스 등 17건)</p> <p>1:50 - 3:00pm 오찬 세미나 (분쟁이후국가 인구센서스)</p> <p>3:00 - 5:00pm 유엔(통계)시스템에 관한 회의</p> <p>2:30 - 6:00pm OECD의장단 미팅</p> <p>3:00 - 5:00pm 국제무역통계 회의</p> <p>3:00 - 5:00pm OIC, SESRIC 회원국 통계청 미팅(비공개)</p>	<p>10:00am - 1:00pm 프로그램 질의, 42차 통계위 임시의제, 일정 협의, 41차 통계위원회 보고서 채택</p>		

※ 진한 글씨는 UN통계위원회 본회의

## 가. 주요 회의참석 결과

### □ 유엔통계위원회 주요의제 회의참가

#### ○ 의장단 선출

- 의 장 : Mr. Ali bin Mahboob Al Raisi(오만)
- 부의장 : Mr. Brian Pink(호주), Ms. Anna N. Majelantle(보스와나), Mr. Alexander Surinov(러시아)
- 서 기 : Mr. Iwan Sno (수리남)

#### ○ 참가인원 : 약 450명 (130개국 및 40개 국제기구)

#### ○ 품질관리, 농업통계, 환경통계 등 최근 이슈관련 의제

동 의제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사회 분야 통계 등 13개 심의의결 의제와 16개 보고의제가 상정되어 각국 통계청의 관련통계 작성 방향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

#### - 국가통계 품질(Item 3a)

-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양식(template)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함
- 개도국에 훈련프로그램과 개발tool을 제공하고 UNSD에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것

#### - 농업통계(Item 3b)

- 기존의 농업통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개념들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농업통계 자료를 생산할 필요
-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핵심데이터 세트를 생산·제공



- 농업통계를 국가통계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통계청-농림부간 효과적인 통계업무 조정 필요
- **국제 상품교역 통계 (Item 3c)**
  - 2010 국제상품교역통계(IMTS2010) 이행을 위해 전문가 그룹 활동을 지속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
  - 향후 부가가치가 포함된 교역통계와 기업통계간의 연계 (linkage) 등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대비할 것
- **국제 서비스교역 통계 (Item 3d)**
  - 2010국제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MSITS 2010)을 승인하고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통계청과 중앙은행, 관계당국 간 조율이 필수
  - 방법론적 복잡성으로 인해 서비스교역 통계에 대한 훈련도 필요
- **국제비교프로그램 (Item 3e)**
  - 국제비교프로그램(ICP) 2011라운드에는 카리브지역 등 최대한 많은 나라의 참여를 촉구
  - 글로벌오피스는 아프리카 및 신규참여국가에 대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
- **국민계정 (Item 3f)**
  - 2008 SN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기술지원 등의 노력이 중요하며 93 SNA 이행에 있어 어려웠던 점도 같이 검토할 것을 권고
  - 국민계정작업반(ISWGNA)은 2008 SNA 이행의 이점에 각국 정부와 이용자를 설득하고 가이드를 제공할 것을 요청
  - 국민계정작업반은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른 3단계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
  - 경제·금융위기의 관점에서 UNSD와 Eurostat이 공동추진하는

고빈도 통계(high frequency)의 데이터 템플릿 및 경기종합지수 개발을 지지함

-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SNA research agenda를 보완 필요

#### - 환경통계(Item 3g)

- 수정FDES(환경통계개발 framework)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로서 생태적 접근방법을 고려하는 것에 신중할 것
- 환경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에 있어 사무국간 워킹그룹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UNSD는 개정작업 소요기간을 현실화할 필요

#### - 환경경제계정(Item 3h)

- 환경경제계정 관련 전문가그룹의 권고안 등을 채택하고 SEEA(환경경제통합계정시스템) 개정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
- 향후 전문가그룹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관계자 등 광범위한 전문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중복데이터 생산 방지 및 환경경제계정 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수자원 통계에 관한 국제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유엔 공식언어로 번역되어 빠른 시일 내에 각국에 회람되도록 지시

#### - 세계통계의 날 제정(Item 3i)

- 2010년 10월 20일을 '제1회 세계통계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공식통계의 성과 축하'를 공식주제로 하되, 각국 별로 세부주제를 결정하도록 권고
- 모든 회원국이 세계통계의 날을 준수하고 유엔통계처는 동 행사 기념활동과 자료를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세계 통계의 날 개최 주기 결정을 위한 보고서 제출 준비

### - 세계지리정보관리(**Item 3j**)

- 지리정보 및 통계 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보기술 발전의 이점을 결합시켜 센서스조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각국 통계청이 지리정보생산 및 관리 역량 증대 등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유엔통계처는 지리정보관리에 관한 글로벌비전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지리정보 관련 국제전문가포럼 등의 개최를 준비

### - MDGs 모니터링 지표개발(**Item 3l**)

- MDGs 모니터링을 위한 각국의 데이터 활용 증대는 고무적인 반면, 보건 관련 지표 등에 대한 지표 보완 작업은 개선 필요
- MDGs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국의 통계역량 강화 및 국내외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국통계청은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유엔통계처는 국내외 데이터 불일치에 관한 인벤토리를 마련할 것
- 단, 최근 인간개발지수 개정과 관련하여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통계위와의 협의 및 지수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보완하여 내년 통계위에서 재보고할 것을 권고

###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통계발전(**Item 3m**)

- 아메리카 지역 통계전문가간의 교류축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동 지역의 통계개발 관련 지역협력을 촉진한 것은 성공적이며 지역통계개발전략으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 단, 동 지역협력에 소외되는 국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추후 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을 권고

##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요지

### < 농업통계 >

- 기존의 농업통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개념들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농업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통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을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로 개념들을 정의하고 형성할 것을 제안
- 또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 세트를 생산·제공하는 것에 적극 동의함
- 주요 농어업통계를 통계청으로 이관한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농업통계 생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유사통계의 중복생산을 피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세계지리정보관리 >

- 공간통계정보(GIS)의 개괄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브라질통계청의 논의내용에 대하여 공감함
- 효율적인 GIS를 위해 국가별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노력이 필요
- 특히 UNSD 주도로 GIS 국제기준 정립에 관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
- 각 국가 내부적으로는 통계청과 타 부처와의 제도적, 기술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세계통계표준표 >

- 인벤토리 구축 및 동 DB의 UNSD 웹사이트 게재 등 멕시코의 제안을 적극 지지함
- 인벤토리 구축은 국제기준들 간의 불필요한 차이들을 향후 표준화시키는 이점이 있을 것임

□ 특별세션 : “공식통계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고위급 포럼”  
(좌장: 이인실 통계청장)

- “국가통계시스템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인실 통계청장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

※ 기조연설 : Dr. Rebecca M. BLANK(미국 상무성 센서스 국장)

패널 : Mr. Enrico GIOVANNINI(이태리 통계청장), Mr. Eduardo Pereira NUNES  
(브라질 통계청장), Mr. Mohamed TAAMOUTI(모로코 기획부 통계국장), Mr.  
Pali LEHOHLA(남아공 통계청장)

- 미국 상무성 센서스 국장(Rebecca Blank) 발제 요지

- 최근 금융위기가 통계정보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통계 정보를 더욱 잘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위기대응을 지원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 신용 정보(credit information), 가계자산(household wealth), 산업 정보(industry information), 종단적 정보(longitudinal information) 등의 통계정보를 더욱 짧은 주기로, 더욱 세분된 카테고리, 더욱 상세한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패널들은 공식통계는 물량이 아닌 품질로 평가되어야 하며 통계시스템의 중립성·독립성 담보 및 통계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과 과감한 혁신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지적

- 청장님 발언요지

- 유용한 통계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시스템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 다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항상 trade-off가 존재함

## □ 스티글리츠위원회 세미나 참석

- 당초 GDP의 대체지표 개발을 지향하였으나 GDP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표 개발로 방향성에 변화가 있음.
- OECD, INSEE, UNSD, Eurostat 공동으로 스티글리츠위원회 논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공식통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본 의제를 향후 G20 의제에 포함시킬 계획인 바 유엔통계위원회의 협조를 요청

## □ OECD의장단 비공개회의 참석

### ○ (안건1) '2010-2012회기 의장 및 의장단 선출'

- 우리 청은 동 안건지지

### ○ (안건2)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보고서'

- 청장님 발언요지

공식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OECD에서 조사 표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새로이 신뢰도 측정을 시도하는 나라/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

※ OECD통계위는 공식통계의 신뢰성 측정에서 설문지의 인지검사를 시험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결과를 2011년 2월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 ○ (안건3) '자료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원칙'

- 우리 청은 동 안건지지

○ (안건4) “2011-12 OECD통계위원회 사업·예산운영계획(안)”

- 우리 청은 동 안건에 대해 동의 및 승인입장 표명

○ (안건 5) ‘스티글리츠-센 위원회 후속조치’

- 우리 청은 동 안건지지

○ (안건 6) ‘소득·소비통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

- 청장님 발언요지

한국통계청은 가계의 경제적 웰빙 측정을 위해 소득, 소비, 자산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가계자산조사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캐나다, OECD 등 국제기준의 측정방법과 내용을 통일하여 정확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겠음

※ 캐나다 통계청이 보고한 가계의 경제적 웰빙의 conceptual framework를 측정하는 작업에 영국, 프랑스가 참여하기로 함

○ (안건 7) ‘OECD 녹색성장전략의 지표’

- 청장님 발언요지

녹색성장 전략의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현재 지속발전가능지표(SDI), 환경지표 등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색성장 지표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conceptual framework)를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 (안건 8) ‘OECD 금융통계’

- 청장님 발언요지

금융위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각국의 경제사정이 달라 획일적으로 금융통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함

○ (안건 9) 'OECD 혁신전략과 측정에 관한 아젠다'

- 우리 청은 동 안건지지

※ 오는 6월 개최될 OECD통계위원회 의장을 맡은 호주통계청장은 한국의 기업혁신 관련통계가 있는지 통계청장에게 요청

○ (안건 10) 'OECD 이주(Migration) 데이터베이스 발전방안'

- 청장님 발언요지

2010 인구센서스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별 국적, 거주기간, 연령, 성별 등 자료는 적극 제공할것음. 다만 센서스에서 조사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용상태, 직업분류 등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나. 국제 통계협력 활동

### □ 유엔통계처장과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등 협의

#### ○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 한국통계청 · 유엔통계처 공동 국제세미나(Korea Forum on Official Statistics)를 정례화 함

- 2010년 : ICT통계 컨퍼런스(Global ICT Statistics Conference 2010)

- 2011년 : 저탄소 경제 및 녹색 삶 국제회의  
(Korea Forum on Official Statistics; Low Carbon Economy & Green Life)

#### ○ 직원파견

- 한국통계청 직원의 UNSD파견에 대해 협의하고 비용은 Trust Fund로만 추진 가능

### □ 몽골 통계청장(Mendsaikhan)과 통계협력방안 협의

- 『몽골국가통계시스템 강화사업』 (MONSTAT Project)은 양국간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사업

- 몽골청장은 3월말경 사업자 선정 및 최종계약이 체결되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몽골의 통계역량강화에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 ※ 공동참여자인 독일통계청은 3.16-17일 몽골에서 개최되는 프로젝트 계약협상에 한국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

#### ※ 몽골국가통계시스템강화사업

- 세계은행의 기금 등 3백만 불을 투자, 향후 5년간 몽골의 국가통계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
- 우리 청은 독일통계청의 제안을 받아 동 프로젝트 참가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09.11) 프로젝트제안서('10.01)를 제출

□ **중국 국가통계국장(Ma Jiantang)과 통계협력 방안 협의**

- 금년 6월 중국에서 제3차 한·중·독 공동세미나(6.24.~6.25)가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도 적극 참여 계획
- 동 세미나는 원격탐사기법의 각종 센서스 활용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3국간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 양국의 세미나 준비에 관한 의견교환 및 양자협력 내실화 방안 등 논의

□ **UNSIAP소장(Ms.Davaasuren) 면담**

- 금년 5월 제66차 ESCAP총회(인천)에서 치러질 SIAP 집행이사국 선거에 한국통계청이 재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 SIAP소장은 내년 SIAP 교육과정에 한국통계청 전문가들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하여 교육생을 지도하는 등 협조를 요청
- 8월3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SIAP 40주년 기념행사에 통계청장의 참석 요청

□ **UNFPA(Mr. Mabingue Ngom) 면담**

-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농업통계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한 한국통계청의 참여를 제의
- UNFPA가 다른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2008 북한인구센서스 집행잔액 170백만불은 통일부와 UNFPA간 직접 협의할 사항임을 설명
- UNFPA는 통계자료의 품질과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한국의 자금지원을 통한 북한농업센서스, MDG지표관련 통계조사 실시 등 통계청의 지원필요성에 공감을 표명

## □ UNDP총재보(Mr. Ajay Chibber) 면담

- UNDP는 대북지원 5개년사업('11-'15)에 농업·산업통계 등 MDG통계DB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통계청의 제안을 환영

## □ 주UN대표부 대사(박인국 대사) 예방

- 한국의 DAC공여국 가입 및 G20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과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 논의
- 국제통계 수집·분석을 통한 외교정책 지원, 국제기구의 통계사업 참여 등을 위해 UN대표부에 통계주재관 파견 필요성을 제기
- 대사는 통계주재관 파견에 적극 환영을 표명하고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족한데 UNFPA, UNDP 등 국제기구와 통계청, 통일부 등이 협력하여 북한의 기초통계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 ICT통계 국제회의 홍보 및 실무협의

- 통계청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금년 ICT국제회의 한국개최(7.19-21일, 서울)를 알리고 UN통계위원회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
- 아울러 국제과장은 부대행사인 ICT통계회의에서 우리청과 UNSD, ITU, UNCTAD 등이 공동주관하는 ICT통계 국제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을 요청
- 또한 UNSD, ITU, UNCTAD 실무자와 만나 경비부담, 회의장소 및 오만찬, 주요 논문발표자 초청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

No	제 목
1	국가통계 품질
2	농업통계
3	국제상품교역통계
4	국제서비스교역통계
5	국제비교프로그램
6	국민계정
7	환경통계
8	환경경제계정
9	세계통계의 날
10	세계지리정보관리
11	세계통계표준표
12	MDGs 모니터링 지표개발
1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통계개발
14	인구·주택총조사
15	고용통계
16	마약 및 범죄통계
17	장애통계
18	문화통계
19	산업통계
20	서비스통계
21	금융통계
22	물가지수
23	비공식부문 통계
24	통합경제통계
25	정보통신기술(ICT)통계
26	통계역량구축
27	통계프로그램조정 및 통합
28	국제경제사회분류
29	경제사회이사회 정책결정 후속조치

(세부자료는 <http://unstats.un.org/unsd/statcom/sc2010.htm> 참조)

# 1) 국가통계 품질

##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리포트”

### □ 개요 및 배경

- 본 보고서는 캐나다통계청의 국가통계 품질보증체계(NQAF) 및 도구의 검토, 각국 통계청의 품질관리체계 이용현황 및 기본요소, 일반품질보증체계 모형 및 지침서 개발과정 등을 소개
- 통계조사 응답자의 참여 감소와 경제, 사회의 빠른 변화 등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품질 지수 개발 및 국가통계의 품질 관리 필요

※ NQAF : 국가통계 품질보증체계(National Quality Assurance Frameworks)

### □ 통계품질의 개념, 품질보증체계 및 도구

- 현재 통용되고 있는 품질 기준은 ISO 9000로 이용자 중심, 품질향상 보증을 위한 리더십 제고, 근거기반 의사결정 환경 조성 및 이행 등에 중점을 둔 기준
- ISO 9001의 도입과 함께 품질관리시스템의 계획 및 이행은 이용자 요구 사항, 각 기관의 규모 및 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음. 즉, 모든 조직 및 기관이 무조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의 특수상황과 목적에 걸 맞는 기준이 부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 ISO 202526는 ISO 9000 시리즈에 비하여 통계생산 공식기관에 더욱 적합한 품질 기준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기본적으로 영리단체의 목적으로 고안되어 국가통계기관에서 채택하는 데는 무리가 따름
- 2005년 유엔통계활동조정위원회는 통계 수집 국제기구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하여 통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엔국제통계활동관리원칙(UN Principles Governing International Statistical Activities)”를 공표
- 2009년 3월 개정된 “유럽통계규정”은 품질평가기준, 대상 및 평가를 위한 최소 기준에 대한 정의와 평가 항목 등을 제공

- Eurostat이 개발한 기존의 Quality Barometer는 Eurostat에 보고하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통계조사 절차 등을 적용하여 각국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데에 한계가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urostat은 유럽지역국가에 Euro SDMX를 적용하도록 독려 중.
- 2003년 공고된 OECD품질체계 및 지침서(Quality Frameworks and Guidelines)는 산출 데이터의 품질평가 기준을 일관성, 정확성, 신뢰성, 시의성, 접근성, 해독가능성, 정합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정의
- 그 외에도 Eurostat은 “Eurostat을 위한 품질보증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은 자체 “통계품질체계”를 2008년 개발

## □ NQAF의 구조와 이점

- 각국 통계청간 직원 교류를 극대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품질보증 및 관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도 높은 통계제공자로서의 통계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
- NQAF는 품질관리환경, 품질관리정책, 품질 기준, 품질보증절차, 품질 평가 절차 등을 기술
- NQAF를 통하여 각국 통계청은 개별적으로 품질보증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
- NQAF 지침서는 고위급관리자의 품질보증체계 적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장기적인 참여의식, 품질관리대상 설정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 논의사항

- NQAF를 보유하는 통계청의 비용편익(cost-benefit)
- 각국 통계청의 품질보증체계 개발 지원을 위한 일반품질보증체계모형과 지침서 개발의 이점

## 국가통계 품질에 관한 의견

### ○ 품질보증체계 마련이 통계청에게 주는 비용편익

- 우리나라는 이미 품질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품질보증체계는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품질보증체계는 통계청 조직 및 환경에 중점을 둔다고 한 것과 관련,
  - 특히 통계후진국의 경우에는 통계 기술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통계청 이외의 통계작성기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의 경우 360개 기관에서 863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중 통계청 작성통계는 52종뿐임
  -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마련하여 각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 각 기관의 통계작성 과정에 품질관리가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통계품질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질적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임

### ○ 각국 통계청의 품질보증체계 개발 지원을 위해 일반품질보증체계 모형(template)과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의 이점

- 완전히 표준화된 품질보증체계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모형(template)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각국 통계청에서 취사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간 비교성을 확보하면서도 각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택한 국가의 경우 통계청 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작성기관에도 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통계품질보증체계 도입 가능
- 품질보증절차 부분에 기관환경관리, 통계절차관리, 통계산출물관리의 세 부분으로 명료하게 구분하여 품질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록1에 제시된 세 가지 안 중 유럽통계작성지침에 기초한 3안 선호

- 모형은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만들어 넣어야 하는 Plus형보다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Minus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표준 일반품질보증체계 모형(template)과 지침서 개발 방법

- 모형 및 지침서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통계품질보증 현황 파악
  - 국가별 통계보증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한 국가별 의견 수렴
- 캐나다 통계청이 주도하고 각국 통계청 대표로 T/F팀 또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모형 및 지침서 초안 작성



---

## Comments on National Quality Assurance Frameworks

---

Statistics Korea recognizes the needs for an internationally agreed national quality assurance framework. Followings are our comments on the discussion points.

### ○ **The cost-benefit to NSOs of having an NQAF**

- Statistics Korea has Quality Assessment Programs. Yet the NQAF will help us to enhance the existing programs.

\* Regarding the part from the paper stating that "NQAF has more focus on the organization of an NSO." (page 20, paragraph 38)

▪ In general, Statistics Korea agrees that it should not focus too much on the organization of NSOs, but statistical techniques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Also it focuses on NSOs, but other statistical institute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since various institutes other than NSOs produce various kinds of statistics in the countries with a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 In Korea 863 statistical processes are managed by 360 different institutes and agencies. Only 52 of them are produced by the Statistics Korea.

▪ Providing a standard NQAF to institutes and agencies a standard NQAF and helping them to introduce voluntarily quality assurance program will result in dramatic reduction of the cost.

▪ It will als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m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and hence the quality improvement.

### ○ **The benefits of developing a generic NQAF template and accompanying guidelines as an aid to NSOs in developing their individual NQAFs**

- Statistics Korea believes that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n

one-size-fits-all NQAF. Developing a generic NQAF template and accompanying guidelines will secure comparability across countries as well as allow each NSOs to reflect their own specifics.

- Also providing a generic template and guidelines to other statistical institutes and agencies in the countries with a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will help them to set up a cost-effective quality assurance framework.
- \* Among the three proposals illustrated in Annex 1, Statistics Korea prefers the third one which is based on ESCoP in a sense that the section covering quality assurance practice presents quality principles more clearly by dividing them into three groups, which is more familiar to us.
- \* The template should be a "Minus" type that presents every possible aspect and allows users to drop the ones that are inapplicable to them rather than a "Plus" type that presents only basic items and force users to add new ones.

○ **The appropriate mechanism for developing a standard generic NQAF template and accompanying guidelines**

- Actions to understand current practice of each country should be taken first.
  - Perform survey of country practices in quality assurance
  - Collect ideas through expert group meetings.
- Form a Task Force Team or Work Group lead by Statistics Canada to draft the template and guidelines

## 2) 농업통계 I

### “농업 및 농촌 통계에 관한 국제실무그룹 보고서”

#### □ 개요

-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식량 위기 등의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및 농촌 통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를 위한 국제전략(Global Strategy) 필요성 합의
- 국제전략의 주요 요소로는 농업 및 농촌 통계의 새로운 개념 틀 정의,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 세트 정의, 국가통계시스템으로의 농업통계 통합 등이 있음

#### □ 농업 및 농촌 통계에 관한 실무그룹(FoC) 구성

-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2008년)에서 논의된 농업 및 농촌 통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국제전략발전체계는 이와 관련된 지침서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국제전략을 이행할 실무그룹 (Friends of the Chairs) 구성에 동의
- 제39차 유엔통계위 직후, 브라질, 호주,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미국, 우간다 등 11개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통계처가 옵서버 및 사무국 역할을 하고 Eurostat과 World Bank가 옵서버로 참여하는 실무그룹(FoC) 구성을 완료
- 동 실무그룹(FoC)은 통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위성회의 등을 개최하여 식량 및 농업 통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농업 및 농촌 통계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권고하고 있음
- 제36차 FAO 회의(2009.11월, 로마)에서 농업 및 농촌 통계 관련 국제전략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동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번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전략 최종안을 채택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예정

## □ 국제전략의 구조

- (최소한의 핵심데이터 세트의 정의) 이를 위하여 국제전략은 각국의 관심 품목 및 각국의 데이터 제공 가능 품목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전략 실천계획에 반영할 예정
- (농업통계의 국가통계시스템으로의 통합) 현재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통계를 집중시키고, 조사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농업에 관한 “마스터샘플 체계” 개발, 통합조사체계 이행, 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시급
- (통계시스템의 지속성) 일반적으로 각국 농림부에서 생산되는 농업 및 농촌 통계가 국가통계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제공가능 할 수 있도록 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국가통계 조정위원회 등의 설립 권고

## □ 권고 사항

- 국제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농업 및 농촌 통계가 생산되어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개도국은 농업 통계 관련 국내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실무그룹(FoC)의 노력을 통하여 각종 이해당사자의 국제전략의 실행 방향 및 기술적 내용 추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오고 있음
-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국제전략 실행계획 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공여국의 지속적인 기술 및 재정지원이 요구됨

## 농업 및 농촌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전략에 관한 의견

- 농업/농촌통계의 개선을 위해 Global Strategy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FoC(Friends of the Chair) Group의 보고서에 전반적으로 공감함
- Global Strategy의 주요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Global Strategy의 주요내용 : 새로운 (농업통계) 개념틀의 형성,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 세트 정의, 농업통계를 국가통계시스템으로 통합
-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의 형성
  - 기존의 농업통계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개념틀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농업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는 동의함
    - \* 많은 국가에서 어업 및 임업 통계를 농업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어업, 임업 통계 및 농어촌 지역의 일반 가구까지 농업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Global Strategy의 주요내용
  - 그러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통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임
  -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을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로 개념틀을 정의하고 형성할 것을 제안
-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 세트(Minimum set of core data)의 형성
  -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를 생산·제공함으로써 국가간 연계 및 분석자료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 동의함
  - 또한,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념틀을 그룹별로 정의하더라도 핵심 데이터 세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농업통계를 국가통계 시스템으로 통합(Integration of agriculture into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 우리나라는 이미 '98년과 '08년 2차례에 걸쳐 농림어업센서스,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등의 주요 농어업통계를 통계청으로 이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농업통계를 국가통계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유사통계의 중복생산을 피할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

※ 참고사항

-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Global Strategy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은 선진국의 지원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ng)과 관련된 범규사이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농업통계에 어업과 임업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나 Global Strategy의 필요성에는 찬성하고 있음

---

## Comments on Global Strategy to Improve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

---

Statistics Korea agrees that the Global Strategy is needed to improve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 and felt the same way about the report of the FoC group.

Our comments on the main components of the Global Strategy\* are as follows

\* Main components of the Global Strategy : 1) Establishing a Conceptual Framework, 2) Defining a Minimum Set of Core Data, 3) Integration of agriculture into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 1) Establishing a Conceptual Framework

- Statistics Korea agrees to broaden the coverage of agricultural statistics to product various and extensive agricultural statistics data.
- It could not be reasonable, however, if UNSC try to apply the same standards about the scope of agricultural statistics to every country.
- So, Statistics Korea proposes to make a few groups of the countries of similar level, and to define and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pective group.

### 2) Defining a Minimum Set of Core Data

- Statistics Korea positively supports the idea that every country produces and provides a Minimum Set of Core Data because Statistics Korea expects the linked and analyzed data between countries.

- As Statistics Korea proposed the above, UNSC could define a conceptual framework for each group, but the standards of a Minimum Set of Core Data should be applied identically to all countries.

### 3) Integration of agriculture into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 Korea has already transferred main agricultural statistics such as the Agricultural Census,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and the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from the Agricultural Ministry to Statistics Korea in 1998 and 2008.
- In view of our experience, integration reduces the duplication of efforts to produce statistics, and enables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 농업통계 II

##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통계에 대한 Wye Group 보고서”

### □ 개 요

-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Wye Group에서 농촌발전 및 농가수입 통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Wye Group은 제38차 유엔통계위원회(2007)의 결의에 따라 결성되어, 농업 및 농촌지수의 개발을 위한 사무국간 실무그룹이 만든 핸드북 「Rural Households' Livelihood and Well-being :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Household Income」을 2년에 걸쳐 개정
- 기존 핸드북이 OECD 회원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Wye Group은 기타 국가들로 관심권을 확대

### □ Wye Group 활동경과

- 2009. 7월 이태리 로마에서 2차 연례회의를 개최
- 이 회의에서 핸드북의 개정은 유엔통계위원회의 후원 하에 개발 중인 농업 및 농촌통계의 국제전략(Global Strategy for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과 연계되어야 하며
- 핸드북은 개정본 및 부록으로 구성하고, 그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0. 5월 워싱턴의 그룹 미팅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 다양한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비OECD회원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의견을 모음
- 또한 1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개정작업을 위한 향후일정에 아래와 같이 합의
- 2009. 8월까지 미국 ERS(Economic Reserach Service, US Dep. of Agriculture)와 FAO가 Wye Group의 개정작업과 농업 및 농촌통계의 국제전략 연계방안의 초안 마련
- 2009년 여름까지 핸드북의 개정 및 부록 작성 참여자에 대한 서면동의 요구
- 2010. 2월까지 작업결과를 편집진에게 제출

- 2010. 5월 워싱턴의 Wye Group Meeting에서 내용 검토
- 2010. 10월 Uganda Kampala에서 열리는 ICAS(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icultural Statistics)에서 최종본 확정

□ **Wye Group 로마회의(2009. 6.11~12) 세부내용**

○ **1차 본세션 : 변화하는 농촌의 패러다임(새롭게 부상하는 이슈)**

- OECD국가 및 비OECD국가에서의 농업생산활동과 생활수준과의 관계, 농촌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 및 생산활동의 변화양상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 대해 논의

- 주요 토의내용

- 농촌지역의 한정(소득정책과 관련한 지중해 지역의 사례)
- 농가의 소유 및 관리형태, 소득의 측정
- 네덜란드 및 이태리에서의 생산활동의 다변화 실태
- EU국가에서의 농가소득통계의 자료원(Data Source)의 품질제고

○ **세션1a : 소득의 다각화 및 비농업소득에 대한 여러 시각들**

- 비농업소득 및 농촌가계수입의 다각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 논의

- 특히 인도 및 캐나다의 농촌소득패턴을 특징짓는 요소에 대해 초점을 맞춤

- 주요 토의내용

- 농촌가계수입의 다각화와 이의 측정방법(인도)
- 경작지 소유와 농가와와의 관계(캐나다)
-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의 척도(영국)

○ 세션1b : 농촌조사의 개선방안

- 농촌 개발 및 가구소득 통계의 자료수집 및 해석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
- 주요 토의내용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를 이용한 농업소득의 측정(네덜란드)
  - 중국의 농업 및 농촌통계 통합시스템

○ 2차 본세션 : 농촌 데이터의 채신 및 신기술의 적용

- 농촌 및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데 활용 가능한 신기술을 소개
- 주요 토의내용
  - Agro-MAPS\* : 국가내 경작지 이용통계의 Global Mapping

※ Agro-MAPS : 곡물재배 및 수확지에 대한 국가이하 단위의 통계를 가지고 글로벌 수준의 통합된 통계를 지원하는 웹정보 시스템

- 농업 및 토지이용 통계조사와 원격감지(Remote sensing)기술의 접목
- 소규모 미곡생산시스템에서의 생산의 다각화에 대한 평가(Ivory Coast)
- 웹을 통한 통계자료의 보급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

○ 세션2a : 데이터의 수집

- 주요 토의내용
  - 예산이 부족한 경우 행정자료와 같은 다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방안
  - 미국 및 유럽에서의 가족중심농업의 구조변화

○ 세션2b : 농촌 데이터와 테크놀로지

- 주요 토의내용
  - 유기농업과 농촌의 발전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경지의 측정
  - 농업수입측정에 대한 거시 및 미시적접근(이태리의 공식통계)

○ **3차 본세션 : 발전수준이 다른 나라에서의 농촌발전 및 농가수입**

- 한 나라의 발전수준이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 농업인구의 규모나 농업활동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농업에 사용되는 기술수준, 통계시스템의 정비상태 등이 데이터의 수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토의내용
  - 농촌빈곤의 추정(인도)
  - 개도국에서의 농촌소득의 다각화
  - 농가 및 도시와 농촌의 비농가의 저소득층의 실태(캐나다)
  - 농업부문에 산업통계조사방법을 적용할 경우의 자료수집 방법

○ **세션3a : 식량수급안정도 및 식량부족의 측정**

- 빈곤, 식량확보, 사회적 배제의 양상을 개인적, 공동체적, 권역적 차원에서 다룸
- 빈민의 수나 비율의 측정 수단, 빈곤과 최소식물섭취요구량의 연계문제,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소개됨
- 주요 토의내용
  - 국가 및 지방단위의 영양부족 및 식량부족에 대한 지표
  - 농촌지역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폴란드)
  - 식량부족의 측정

○ **세션3b : 핵심지표Set에 대한 접근**

- 주요 토의내용
  - 개도국의 관점 - 농촌발전의 평가 및 모니터를 위한 지표의 선택
  - 개발 및 빈곤에 대한 종합지표 - MDG지표에 대한 적용

○ **세션4**

- 핸드북의 추후보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

##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통계에 관한 의견

- 한국은 Wye 그룹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UN, OECD, FAO를 통해서 Wye 그룹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009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2nd Wye 그룹 회의 의제설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한 한국 통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농촌 패러다임의 변화 : 떠오르는 이슈와 데이터의 필요성
  - 농촌 환경의 변화 -농촌 소득의 구성, 농업 및 가계지출, 농가 구조-에 따라 다양한 농촌지표\*들의 필요성에 동의함
    - \* 한국 통계청은 주요 농업통계 생산을 통해서 다양한 농촌 지표들을 산출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경제와 별도로 농어업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농업 소득 통계에서의 IFRS\* 적용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
- 혁신, 농촌 통계를 위한 새로운 기법과 technological tools
  - 새로운 기술 및 방법론은 농업통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임
  - 한국 통계청 역시 세계 최고의 IT환경을 바탕으로 원격탐사, GPS 등을 농업통계 작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음
- 발전단계별 국가의 농가소득 및 농촌발전에 관한 이슈들
  - 2009년 Wye 그룹 회의에서는 농촌지역의 빈곤, 식량안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친환경 농업현황 등 농업과 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Comments on Report of the Wye Group

---

- Even though Korea is not a participant of Wye City Group, Statistics Korea has have a profound interest in the Wye City Group activity and the Handbook.
- In principle, Statistics Korea is in agreement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e 2nd Wye Group meeting and our comments on each subject are as follows.

### 1) Changing Rural Paradigm: Emerging Issues and Data Needs

- Statistics Korea agree to identify new issues i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Household income.
  - \* Statistics Korea has already produced major agricultural indicators especially 'Agriculture and Fisheries Establishment Survey' in addition to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 Statistics Korea suggests that depreci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 2) Innovation, New Tools and Results in Rural Statistics

- It would be meaningful to share the experience of using 'New technological tools and methodological solutions' among Nations.
- Statistics Korea has a plan to use the new technological tools such as remote sensing, GPS, etc. Therefore we believe that we can share our internal best practices.

### 3) Some Issues in Rural Development and Household Income Statistics for Countrie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 To broaden the coverage of agricultural statistics, Statistics Korea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should be discussed.

### 3) 국제상품교역 통계

#### “국제상품교역 통계의 작성권고안 수정안”

##### □ 개 요

- 제39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제상품무역통계 권고사항 개정과 관련한 UNSD 계획 및 전략을 승인. 동 개정 초안 채택을 위해 제41차 회의에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 개정된 권고사항이 자료수집 및 배포에 대한 가이드스 및 업데이트된 개념체계를 제공하고 국제서비스무역통계의 개정 권고사항, 국제수지, 국민계정과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
- 권고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자료수집비용 및 보고부담 최소화에 충분한 관심을 주도록 강조

##### □ 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응 활동

###### 1) 국제적 협의

- 개정전략의 핵심요소는 모든 국가와의 전세계적 협의로 2단계로 실시
- 1단계: · 향후 권고사항의 범위 및 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  
·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상품무역통계 전문가 그룹과 국제상품무역통계 기관간 작업팀과 협력하여 유엔통계처는 개정 권고사항의 잠정 초안을 준비
- 2단계: 전 국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동 초안이 검토됨

###### 2) 국제상품무역통계 전문가 그룹(EG-IMTS)

- 권고초안의 승인 획득 및 개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 국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UNSD는 국제상품무역통계 전문가 그룹 창단
- 개정권고사항의 잠정초안 전문을 검토하고 수정 및 해설 제공을 조건으로 승인
- 이행프로그램 및 관련 연구 아젠더 승인

###### 3) 국제상품무역통계 기관 간 작업팀(TF-IMTS)

- 개정 권고사항 마련에 적절한 실질적/개념적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초국가/지역 기관 간 의견 교환 및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를 위한 포럼으로서 역할
- 전 세계적 협의의 1단계 결과를 검토. 권고초안에 각 국의 입장 편입과 관련 견해를 제공

## □ 개정된 권고사항 개요

### 1) 개념체계의 연속성

### 2) 업데이트된 새로운 권고사항

- IMTS2010은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권고사항 및 핵심 개념의 설명을 제공
  - 권고사항의 범위는 전 통계과정을 포함하도록 확장
  - 국제상품무역통계 범위에 관한 권고사항 업데이트
  -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사용 신 권고사항(분석적 목적)
  - 사정가격관련 업데이트된 신 권고사항
  - 수량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권고사항
  - 2차 상대국의 기록을 위해 업데이트된 신 권고사항
  - 추가자료 차원으로서 운송방식을 포함하는 신 권고사항
  - 다른 자료소스 사용에 대한 신 권고사항
  - 필요한 제도적 협약 수립관련 신 권고사항
  - 자료품질관련 신 권고사항
  - 종합 메타데이터 집계 및 배부관련 신 권고사항
  - 자료 배부에 대한 업데이트된 신 권고사항
  - 무역과 사업체통계 연계 촉진관련 신 권고사항
- ### 3) 국제수지 및 국민계정 집계자 수요 대응

## □ 이행프로그램 개요

- IMTS 집계 매뉴얼 및 관련지식 업데이트
- 기술원조
-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 향후 연구 아젠더 및 국제협력

## □ 논의 사항

- 국제상품무역통계: 개념 및 정의(2010)에 포함된 국제상품무역통계의 개정된 권고사항 채택
- IMTS 2010 이행 프로그램(개정된 집계 매뉴얼 준비포함) 승인
- EG-IMTS 및 TF-IMTS의 연구 지속 요구
  - 세계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국제상품무역통계의 분석 가능성 개발을 위함



## 국제상품교역 통계에 관한 의견

### □ 논점 (a): 무역통계 수집 및 통계제공 관련

- 한국은 물류비용 절감 및 신속·정확한 무역통계의 수집을 위하여 '96년 수출입통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수출입신고시 100%전산화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UN 국제상품무역통계 작성 권고안을 기준으로 '96년 무역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집계 및 공표를 하고 있음
-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 계상시점은 세관에서 수출입신고한 물품을 신고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및 공표하고 있으며 수출은 출항일 기준을 추가하여 제공함.
  - 매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전월 상품무역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세계에서 가장 빨리 분석된 무역통계를 공표)

### □ 논점 (b): 교역상대국 및 가격기준 무역통계 관련

- 대세계 무역통계 작성시 국별 분류는 수출은 최종 목적국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은 원산지 국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산국이 우리나라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적출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원산국과 적출국을 함께 제공
- 금액의 표시는 미국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되 원화를 함께 표시하며 무역통계 작성시 수출은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수입은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IF)를 기준으로 작성
  - 2009년 수출 3,635억불, 수입 3,231억불

※ FOB : 파는 사람이 배에 짐을 싣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함

---

## **Comments o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

### **□ Discussion Point (a): Dat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rade statistics**

- Korea has established the Import & Export Customs System since 1996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encourage speedy & accurate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Korea produces 100% computerized data collection method in import and export report.
- Korea has established a foreign trade statistics system in 1996 based on the U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recommendation and has collected data and disseminated statistics through the system.
- The import & export merchandise statistics is added up and compiled by the report acceptance point of time, and the export is additionally provided with a clearance date.
-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nounces last month's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on the 1st of every month, and it is the fastest announcement in the world for the analyzed trade statistics

### **□ Discussion Point (b): Trade partners and Trade statistics by price**

- When compiling trade statistics toward the world, the exporting countries are classified by final destination and the importing countries are by the origin. And, if a Korea originated product is imported to us, the product is classified into the shipping country's one and the both information of origin country and shipping country is provided.
- The amount of money is basically in US \$ and Korea Won(KRW) is also displayed. In compiling trade statistics, the export is made out by FOB(Free on Board) price and the import by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price.
- 2009 : Export US\$ 363 billions, Import US\$ 323 billions

## 4) 국제서비스 교역 통계

### “국제서비스교역통계의 매뉴얼 수정작업에 관한 TF보고서”

#### □ 배 경

- UN통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2 국제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2002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MSITS)』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한 Task Force의 보고
- 통계위원회 대표들은 TF(이하 TFSITS, Task Force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함께 제출된 『2010 국제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MSITS 2010)』의 초안을 승인하도록 되어있음

#### □ Task Force 활동경과

- TFSITS는 금번 보고서에 앞서 제32차 통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서비스교역통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음
- 제32차 통계위원회에서 결정되거나 논의된 사안은 아래와 같음
  - TFSITS에서 마련한 국제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 승인
  - 매뉴얼과 관련하여 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요구
  - 후속단계로 데이터의 수집에 중점을 두어 매뉴얼 작업을 계속하도록 TFSITS에 권고
  - 매뉴얼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작업이라는 점을 인식
  - 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TFSITS의 제안에 대한 동의
- TFSITS의 최근 작업결과는 이번 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

#### □ Task Force 보고서 개관

- **32차 위원회이후의 수정작업 체계**
  - 수정작업은 8차례의 회의 및 각국과 국제기구의 관련자들로부터의 자문 및 협력을 거쳐 시행
  - BPM6(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차개정판)의 서비스부문의 매뉴얼 작업과 연계하여 IMF와 협력
  - BPM6 및 OECD, Eurostat의 다른 매뉴얼 작업과 발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연기

- TFSITS는 OECD에 의해 소집되며 세계무역기구(WTO), 유엔통계처(UNSD), IMF, Eurostat,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세계관광기구(UNWTO) 등의 멤버로 구성
- 이들 국제기구이외에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개정 매뉴얼의 초안작성에 참여

## □ 새 매뉴얼의 특징 및 내용

- 새 매뉴얼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아울러 BPM6, SNA2008, OECD의 『외국인직접투자표준정의(Benchmark Defini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4차개정판, BD4)』와의 연계를 위해 수정의 폭을 제한하였으나, BPM6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취함
- GATS는 서비스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협정으로서 본 매뉴얼은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 GATS외에 SNA 및 국제수지 매뉴얼(Balance of Payment Manual, BPM), 외국지분기업교역통계(Foreign Affiliates Trade Statistics, FATS), BD4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매뉴얼에 적용하였음
- 또 매뉴얼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나 권고안에 근거하여 통계작성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국가간 비교성을 높여야한다는 점을 강조

## □ 매뉴얼의 시행 프로그램 및 후속작업

- 매뉴얼은 이 수정안의 시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권고
  - 이로써 각국에서 국제표준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서비스교역통계에 사용가능한 정보들을 점진적으로 체계화하도록 함
  - 권고안의 시행의 단계별 순서는 통계작성자들이 수정안의 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도록 만들어졌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수정안의 총체적인 시행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통계이용자의 세부적인 요구와 데이터 수집의 애로사이에서의 절충을 통해 성취해야 할 것임
- 프로그램의 시행에는 각국의 참여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TFSITS가 주체가 되어 각국의 시행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원조를 계획
  - 이와 관련하여 TFSITS 주관의 연례 세미나 개최를 추진

## □ 향후 작업에 대한 TFSITS의 권고 및 지침

- MSIT 2010의 권고안 시행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서비스 부문의 국제수지통계 작성에 대한 보완적인 지침의 개발
- MSITS 2010의 권고안 시행을 위해 TFSITS의 주축으로 통계역량강화 및 기술원조 프로그램의 추진 필요
- 서비스교역통계 및 외국지분기업교역통계(FATS) 데이터의 품질제고 필요
- 국제상품교역통계 TF(Task Force o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TFIMTS)와의 협력 하에 상품교역통계와 서비스교역통계의 통합된 통계적 조망이 필요

## □ 통계위원회의 향후 조치사항

- MSITS 2010 권고안의 검토 및 채택
- MSITS 2010 시행 프로그램의 승인
- 각국의 MSITS 2010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TFSITS의 추진방안 지원
- 서비스교역통계의 설명력 제고를 위하여 TFSITS에 향후 지속적인 작업 권고

## 5) 국제비교프로그램(ICP)

### “국제비교프로그램(ICP) 에 관한 세계은행보고서”

#### □ 개요

- ICP(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국제비교프로그램)은 개별국가들의 소득, 발전정도, 빈곤, 불평등을 세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 통화의 대외실질구매력인 PPPs(Purchasing Power Parities, 구매력평가지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2005년 시행된 ICP는 전세계 5개 대륙(아프리카, 아태지역, 독립국가연방, 남미, 서남아시아) 146개국의 구매력평가지수를 비교하였으며 이는 역대 ICP 최대 규모
- 2011년 시행 예정인 ICP는 IC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글로벌 오피스(Global Office) 설립 등을 통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 ICP 2010 조직체계 (governance structure)

- (집행이사회) ICP 이행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Eruostat, OECD, UN통계처, IMF, 세계은행 등 주요국제기구와 ICP 참가국의 대표들로 구성됨
- (글로벌오피스) 전세계적으로 ICP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실무기구로서 세계은행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세계은행 소속의 글로벌 매니저가 총괄
- (지역별 조정그룹)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조정그룹은 글로벌오피스 등과 협력하여 주요 작업 분야 선정, 자료 제공 등의 역할

#### □ ICP 2010 5대 이행 목표

- ① ICP 이행 범위 확대
  - 글로벌오피스 설립, ICP 조사 대상 국가 약 170개국으로 확대
- ② ICP 사용자 요구에의 부응
  - 세계통계의 날('10.10.20.(잠정)) ICP 사용자 국제회의 개최 등
- ③ ICP의 경제 통계 분야에서의 활용도 제고

- ICP 2005를 보완·발전, 보다 다양한 항목의 통계 등을 포함

- ④ ICP 관련 통계역량 구축 활동 확대
- ⑤ 데이터 품질관리 제고 및 투명도 증대

#### □ 기타 중점 사항

- ICP의 국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UN의 1993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계) 집계국이 개인 소비 GDP 등에 관한 통계 집계기준을 준수하여 ICP 이행을 위하여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 통계가 집계될 수 있도록 글로벌오피스를 중심으로 노력할 예정
- 기타 이란 (지역조정그룹 미가입국), 칠레, 멕시코, 수단, 이집트 (지역조정그룹 중복가입국)의 가입 시 데이터 제공 중복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글로벌오피스에서 마련 중

#### □ 위원회 논의 사항

- ICP 2010 이행계획, 준비상황 등에 대한 코멘트
- ICP 2010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정보 및 심도 있는 조언 등

## 국제비교프로그램(icmp)에 관한 의견

### □ 보고서 내용

- ICP의 개요, 2011 ICP의 목적 및 일정, SNA 준수 등에 관한 보고

#### <국제비교프로그램(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목적)

- 5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국가들과 OECD 및 EUROSTAT에 의해 PPP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총 146개국 참여

(2011라운드 ICP 주요내용)

- 2005라운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2011라운드 ICP는 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임
  - 태평양 및 카리브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서아시아 국가 추가 계획
- 2011라운드 일정 : 2009년 ~ 2013년
  - ICP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 및 제도적 정비,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방법론적 준비, 국민계정 활동 및 가격조사 수행, 임시 및 최종보고서 준비 등 4단계로 진행
- 국민계정은 대다수의 국가가 SNA 1993으로 운영되어, ICP는 이를 준거로 사용

### □ 참고사항

- 우리나라는 1999라운드부터 ICP 하위프로그램인 OECD-PPP(구매력평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임
  - WB(World Bank)는 OECD-PPP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 실시
- 따라서, ICP는 OECD-PPP 이외의 국가와 주로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은 적음

\*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국가간의 가격수준의 차이를 제거하여 다른 통화들 간의 구매력을 같게 하는 통화교환비율



## 6) 국민계정

### “2008 SNA의 보완작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

#### □ 개요

-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은 “국민계정에 관한 작업반(ISWGNA\*)” 보고서를 제출

- 국민계정 체계(2008 SNA)의 최종판 및 출간용에 관한 업데이트
- 2008 SNA 이행 방안

\*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

#### □ 2009년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의 활동

- SNA 2008의 vol.1을 포괄하는 vol.2 채택, 국민계정에 관한 국제 통계 기준 제공, 회원국 및 지역 산하 기구의 기준 이행과 국민계정 통계에 관한 국제적 보고의 활용 권고
- SNA 2008 완결 및 6개 유엔공식언어로 출간 요청 (주관 : ISWGNA)  
※영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SNA 2008의 이행 전략 지지와 및 국민계정과 거시경제체계의 부문별 통계 조화 및 일치에 대한 요구사항과 경제 통계의 개선을 위한 관심 요청
- 지역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 프로그램의 지역 협조 및 조정 강조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진행사항(progress)에 대한 보고 요청

#### □ 2008 SNA 최종화 작업

- 최종 수정 작업 후 vol.1과 vol.2 통합 작업
- 2008 SNA의 최종 검토, 완결 및 공식 편집
  - 최종 검토 : 2009. 3~ 5월에 ISWGNA가 수행
  - vol.2 최종 원고 5월에 편집용 제출, 편집부 검토 완료 : 2009. 6. 22
  - vol.1과 vol.2 단권화 및 출간 준비 중
- 2008 SNA 온라인 제공(영어버전) : 2009. 9. 4  
(<http://unstat.un.org/unsd/nationalaccount/SNA2008.pdf>)

- 2008 SNA 출간을 위한 준비
  - 유엔사무국장 및 관련 5개 기관의 2008 SNA 서문 준비 (2009.7)
- 번역 준비 및 진행과정
  - 영어 외 5개 공식언어 번역 관련 지역 기구와 파트너십 구축하여 진행
  - 공식 5개 언어 외, 포르투갈, 일본, 한국은 각자 번역 준비

## □ 2008 SNA 및 통계 지지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 글로벌 SNA 이행 이니셔티브 3단계
  - 1단계 : 전략적체계 검토 및 국가별·지역별 이행 프로그램 구체화
  - 2단계 : 분류 체계, BR 및 프레임, 조사, 행정자료 소스 및 IT 인프라의 대응
  - 3단계 : 채택된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출처, 백캐스팅 적용 및 2008 SNA 전환
- 지역 위원회의 활동 및 계획
  - 각국 통계청은 SNA 2008 이행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레임워크 활성화 (2014년 이후 2008 SNA 전환)
- ISWGNA의 활동 및 계획
  - 이행전략 논의 및 2008 SNA에 관한 각국별 워크숍 및 교육 수행
  - 핸드북 및 가이드라인 발간
  - 세미나 개최 (2009년 9월 및 10월 개최, 2010년 가을 3차예정)

## □ ISWGNA의 교육 및 연구

- SNA 이행을 위한 훈련 및 리서치의 주요 요소 수행
- 2008 SNA 표준화된 훈련 교재 개발 추진
- 2008 SNA 연구 의제 결과의 이행에 관한 평가\* 수행
  - \* 1999년 제30회 UN 통계위원회가 제정한 SNA 업데이트 절차에 근거한 평가
- 국민계정에 관한 전문가 자문그룹 (AEG on National Account)의 2008 SNA의 연구수행 및 이행 프로그램 검토 등 ISWGNA 활동 원조

## 국민계정에 관한 의견

### □ 논점 (a): 2008 SNA의 출판·번역계획 관련

- (지역소득통계팀)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함. 2008 SNA의 한국어 번역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우리 통계청에서는 번역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홍보 및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음
- (한은 개정SNA연구반) 『2008 SNA』 번역본은 국민계정 편제 담당자, 관련 통계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수요가 많음.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UN 등 SNA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 □ 논점 (b): 2008 SNA의 이행프로그램 관련

- (지역소득통계팀) 각종 표준훈련교재 개발 및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함.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각국 국민계정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국제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2008 SNA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 제고는 물론 각국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의 장도 넓혀주길 기대함
- (한은 개정SNA연구반) 국가별 기초통계 여건이 상이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국 여건에 맞는 단계적 이행이 필요. 이를 위해 UN, 지역위원회 등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SNA 이행단계가 낮은 나라를 대상으로 편제 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임

※ 한국은 2010년 기준년 개편이 이루어지는 2014년경 2008 SNA로 이행할 예정

## □ 논점 (c): 국민계정 관련 훈련 및 연구활동 조정방안 관련

- (지역소득통계팀) 각종 표준훈련교재 개발 및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함.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각국 국민계정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국제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2008 SNA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 제고는 물론 각국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의 장도 넓혀 주길 기대함
- (한은 개정SNA연구반) ISWGNA가 표준화된 교재를 개발하고, 『2008 SNA』에서 미해결된 「향후 과제」 등의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 작성된 교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 교재 등을 이용한 『2008 SNA』 이행관련 연수를 추진. SNA 이행 단계가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OJT 연수 등 기술적 협력을 실시하거나, IMF 등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 「향후 과제(부록 4장)」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도 있는 동 연구에 대해 ISWGNA가 관리를 할 필요. 이러한 업무를 실제 담당할 국민계정 전문가그룹(AEG: Advisory Expert Group)을 ISWGNA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 논점 (d): 속보성(high frequency) 통계 및 지표의 data template 관련

- (지역소득통계팀) UNSD에서 구축하고 data template 사업이 세계적 경제 및 금융위기를 조기에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기대함. 우리 통계청도 G20의 하나로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임
- (한은 개정SNA연구반)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각 국 data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중요해졌지만 각국의 통계제공 방식이 달라 국가별로 자료입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통계부터 제공 방법을 규격화하고 호환성을 높일 필요

---

## Comments on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

### □ **Discussion Point (a): Views on the publication and translation process of the 2008 SNA**

-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generally agrees with the contents of the report proposed by ISWAGNA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2008 SNA. The translation of the 2008 SNA into Korean is so encouraging that Statistics Korea will be unsparing of our support for the task. Statistics Korea will also make every endeavor for its dissemination and training to help the transition to the 2008 SNA progress without any difficulties.
- (The Bank of Korea) The demand for Korean version of 『2008 SNA』 is high among those in charge of compiling national accounts, related statistic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a. Assistance from SNA specialists from UN or other institutions is necessary to minimize errors that can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 □ **Discussion Point (b): Provide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program for the 2008 SNA and supporting statistics**

-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considers that it is appropriate to adopt a strategical approach with distinct stag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ach country's implementation plan. While it is necessary to urge countries to implement the 2008 SNA, substantial support to build statistical capacities should be initiated for the countries in troubl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3 SNA.
- (The Bank of Korea) Taking different situations related to basic statistics in each country into account , the program of each country needs to be implemented in stages accommodating to its respective situations. For that, the UN or the regional commissions need to hold workshops and offer compilation techniques to countries whos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SNA is low.

※ Korea plans to implement the 2008 SNA around 2014 when the base year will be changed to 2010.

□ **Discussion Point (c): Provide guidance on the proposed ISWGNA mechanism for coordinating training and research on national accounts**

-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fully agrees with the ISWAGNA's plan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tandardized training materials on the 2008 SNA. In addition to that, we expect that regular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s will be provided for national staff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task. Statistics Korea also hopes that these training programs will offer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2008 SNA, and share opinions on each country's specific circumstance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 (The Bank of Korea) ISWGNA needs to standardize training materials and continue to supervise research on pending issues, 'Research Agenda (annex 4)', that have not yet been solved in the 2008 SNA. The training materials should be posted on the web site and used for the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Countries at a higher level of the SNA implementation should provide those at a lower level with the technical cooperation, including OJT training.

Existing training systems of organizations such as IMF can be used as well. ISWGNA needs to continue to supervise research so that 'Research Agenda' can be adopted as the global standards. It is advisable for ISWGNA to maintain the Advisory Expert Group (AEG) in charge of these tasks.

□ **Discussion Point (d): Provide guidance on the data template of high frequency statistics and indicators**

-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hopes that the Data Template Project will help us cope with a global economic crisis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As a member of G20, Korea will take part in the project as best as we can.

- (The Bank of Korea) Although the access to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 is gaining growing importance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it may not be easy to acquire data by country due to the difference in data templates. For this reason, data templates need to be made consistent, particularly those of high frequency statistics and indicators, and the compatibility among the templates should be enhanced as well.

## 7) 환경통계 I

### “환경통계개발을 위한 Framework구축”

#### □ 개요

- 2008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국제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도출
- 환경통계에 관한 명확한 정의, 분류, 변수 및 지표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 등을 망라할 수 있는 개념체계(conceptual reference framework) 마련 필요
- 기후변화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정보 등을 포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환경통계 관련 데이터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등 산재되어 있는 환경통계의 재편 필요

#### □ UN FDES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Statistics)

- 1984년 UN에서 발간한 환경통계의 정의, 조사 범위, 특성과 함께 환경통계 개발체계에 관한 문서
- 환경 관련 문제를 수치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 등을 규정짓고 관련 데이터의 유효성 등을 평가
- FDES는 환경통계 개발 착수 시 각국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개발 체계로서 환경통계의 개념, 정의, 분류 등의 일관성 유지, 환경통계에 활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작업 등을 수행

#### □ FDES 전문가그룹회의 ('09.11월 UN통계처 주관) 결과

- 환경통계 개념체계는 환경통계의 조사 및 분석 범위와 이를 통계와 연관짓기 위한 필수적인 기제임(tool).
- FDES는 환경통계 개념체계 개발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하며 FDES 개정 방향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의 환경이슈 등과 관련한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과학적인 기반에서 진행할 것



- 환경 관련 데이터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기관의 수요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데이터의 실질활용도는 낮은 수준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데이터 수집 방법에 최신 과학적 기법을 접목시켜 경제 및 사회분야와의 연계가 강화된 환경통계 개념체계를 확립할 필요
  
- 특히 FDES 전문가그룹은 환경정보의 유효성과 품질제고를 핵심방향으로 FDES 개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FDES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 각 국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하여 FDES개정 주관부처인 유엔통계처는 환경통계의 핵심 지표세트를 정립하여야 함

#### □ 위원회 논의 사항

- FDES 개정 방향 및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코멘트
  
- 환경통계 핵심 지표세트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의견

## 환경통계개발 관한 의견

UN의 환경통계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FDES)에 대한 권고와 환경통계의 core set를 작성하는 계획에 기본적으로 동의.

### □ 논점 (a): FDES에 대한 전문가그룹회의의 결론

- FDES의 수정 : 이론적 프레임워크
  - 기존의 FDES에 생태계 접근방법\*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생각임. 하지만 두 프레임워크의 연결과정이 잘 설계되고 구성되어야함. 그렇지 않는다면 프레임워크가 복잡해져 결국 전체 프레임워크의 일치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 \* 생태계를 구성하는 유기체와 물질적(자연적) 과정간의 모든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계의 통합 관리방법
- FDES의 수정 : 통계변수, 정의, 분류 등의 미포함
  - FDES가 간결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독자나 이용자들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FDES가 통계변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제공할 것을 제안함.

### □ 논점 (b): 수정 FDES의 원칙, 내용, 양식 및 스케줄

- 수정 FDES의 수록 내용
  - 수록내용에 기존의 FDES와 수정FDES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수정 FDES의 개선점 등 기존의 FDES와 수정FDES 비교부문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수정 FDES의 양식과 스케줄
  - 전문가 그룹에 과학계와 이용자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데 유용함. 이 경우에 IPCC, IEA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 Comments on th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Statistics

---

Statistics Korea generally agrees on the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UN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Statistics (FDES, 1984) and the plan to establish a core set of environment statistics.

### **Conclusions of Expert Group Meeting on the FDES**

- The revision of the FDES : Conceptual Framework(paragraph 21)
  - It is an useful idea to incorporate the ecosystem approach\* into the current FDES as conceptual framework. However the linking procedure should be well established and organized. Otherwise, it might be possible that the framework can be complicated, resulting in losing the consistency of the framework
  - \*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ecosystem through considering all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sms and physical processes which constitute the ecosystem
- The revision of the FDES : Not including statistical variables, definitions, classification, etc. (paragraph 29)
  - Statistics Korea agrees that the FDES should be concise as possible.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FDES provide the brief information of statistical variable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at least, because this could help the readers or users easily to understand the whole framework.

### **The guiding principles, the contents, the modalities and timetable for the revision of the FDES**

- Contents of the revised FDES (paragraph 32)
  -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tents includ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FDES and the revised FDES such as the explanation on the differences, the improvement of the revised version compared to the FDES, etc.
- Modalities and timetable for the revision process(paragraph 33)
  - Including the scientific and user communities in the expert group is very helpful to improve the framework. In this case, we suggest the specialists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PCC and IEA be included.

# 환경통계 II

## “환경통계에 관한 국제기구 작업반 보고서”

### □ 개요

- 2003년 제34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는 환경통계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통계에 대한 국제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결정
  - \*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Environment Statistics (IWG-ENV)
- 2003년 유엔통계처, OECD, Euristat, UNECE(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EP(유엔환경계획), FAO 등 총 6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동 작업반을 설치
- 동 작업반의 목표는 기초 환경데이터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환경통계를 각국의 공식통계에 포함시켜 환경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등에 기여하는 것임

### □ 환경경제계정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UNCEEA)

- 2005년 유엔통계처는 “환경경제계정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UNCEEA)”를 설치하여 환경경제통계 및 관련 통계 개발, “환경경제계정 통합시스템(SEEA)”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
  - \* UNCEEA : UN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 SEEA :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 2009년 제40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UNCEEA가 제출한 “UNCEEA 권고안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불채택하고, SEEA 표준화 및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UNCEEA 설립의 목적이 환경관련 통계개발임을 다시 한번 명시
- UNCEEA의 권고안 채택이 지연됨에 따라 IWG-ENV의 권고안에 대한 작업을 연기함. 단, 통계위원회에서 지적한 UNCEEA의 역할 및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 예정

#### □ 환경통계에 관한 국제작업반(IWG-ENV) 향후 추진사업

- 유엔통계처 주관의 환경통계 핵심지표세트 개발 사업 지원
- 환경통계 용어사전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개정 작업 진행
- IWG-ENV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관련 지표 개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 중

---

## 환경통계에 관한 의견

---

환경통계의 개선과 관련 지표 및 통합된 환경경제계정의 개발에 대한 환경통계 작업반의 활동과 수고에 감사하며, 우리나라의 comment는 다음과 같음

### □ 기후변화통계에 대한 환경통계작업반의 역할 강화

- 기후변화는 모든 나라에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이런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되며 작성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함.
- 따라서 환경통계작업반의 업무에 온실가스배출통계에 중점을 둔 기후변화관련 통계의 개선업무가 포함되어야 함. 이에 따라, 환경통계작업반이 온실가스배출통계의 분류, 작성방법 및 품질검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

##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Environment Statistics(IWG-ENV)

---

Statistics Korea highly appreciates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of IWG-ENV o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statistics and on developing related indicators,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give a short comment as follows.

- The role of IWG-ENV in climate change statistics should be increased.
  - Climate changes are highly crucial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In this regard, it is demanded that the related statistics should be accurate and the compiling system should be well established for the appropriate policies and analysis of the impacts on climate changes.
  - Thus, the work of IWG-ENV should include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related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focusing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 Statistics Korea suggests that IWG-ENV provide the international guidance of classifications, compilation methodologies, and quality control/assurance on GHG(Greenhouse Gas) statistics.

## 8) 환경경제계정

###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보고서”

#### □ 개요

-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핸드북의 조속한 완결 요청  
\* SEEA :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
- 위원회에게 환경경제계정과 환경과 기후 변화 통계에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관리 구조 검토를 요청
- 환경경제계정 조정과 생산에서 국가통계국의 중심 역할 강조,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 □ 전문가위원회의 의무 및 관리사항

- 위원회는 환경경제계정과 관련 통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관련 통계에는 환경, 에너지, 기타 통계도 포함됨.
- 기후변화는 통계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현재의 기후변화는 정책과제에 대한 통계적 응답에 대한 SEEA의 적용사례로 다루도록 함
- 위원회는 협력과 이행 촉진, 표준 통계기준과 타 연구의 방법론적 개발, 국제권고사항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통계 능력개발, 정책과제에 대한 통계응답 등 SEEA의 작업 프로그램에 동의
- SEEA개정작업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SEEA-에너지와 SEEA-자원흐름(Material Flow)은 그 서브시스템 작업임.

#### □ 전문가위원회의 작업과정

- SEEA 검토를 위한 과제해결을 위해 열린 런던그룹회의('09.11, 비스바덴)에서 자원흐름과 화폐에 대한 계정, 고갈, 자산계정에 관한 과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의, 41차 위원회 보고 예정
- UNSD는 SEEA의 검토를 위한 신탁자금을 개설, 2010년까지 \$280,000 추가확보 예정이며 이는 전체 프로젝트 측정비용의 약 23%에 해당



- 에너지계정과 관련된 모든 과제는 해결되었고 전문가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오슬로, 서기관간, OECD/Eurostat 테스크포스 등의 단체로부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
  - 검토된 SEEA의 완성초안 Volume 1은 2011년 상반기에, Volume 2와 3은 2012년 중반에 완성될 예정
- 수질통계에 관한 국제 권고사항(IRWS)준비와 환경경제계정 시스템의 이행
- 국가간 국제적 수질통계비교의 수집, 배포 및 SEEA의 이행을 지원하고 기준표 및 질의사항, 국제수질지수 종합에 대한 권고 리스트가 포함된 IRWS는 초안이 완결되어 제출예정
  - IRWS와 수질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간, 기관 간 문제 인식과 이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데이터 이용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환경경제계정에 관한 의견

### □ 전문가 위원회의 권한과 관리범위

- SEEA가 환경과 경제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환경통계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야함. 따라서 FDES 전문가 그룹과의 협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 전문가 위원회의 수행업무

- SEEA의 대차대조표에 재생에너지자원을 독립된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재생에너지의 영향이 SEEA에서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어떻게 이런 측면을 SEEA에 반영할 것인가도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함.

### □ 물 통계 개발 추진 계획

- 환경통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물에 대한 통계 작성권고안 뿐 아니라 다른 환경 매개체들에 대한 통계 작성권고안도 동시에 개발할 것을 제안

---

## Comments on the Report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 **The mandate and governance of the Committee of Experts**

- In order to encompass all aspects of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the SEEA should link to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statistics. Thus the cooperation with the expert group on FDES should be enhanced.

### **The progress of work of the Committee of Experts**

-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SEEA does not include separate entries in the balance sheets f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Nonetheless, th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detected in the SEEA as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n economy recently has increased. Thus how to reflect this aspect into SEEA could be considered.

### **The progress of preparation of the recommendations for water statistics**

- Considering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statistics, Statistics Korea suggests that not only the recommendation for water statistics but also the recommendation for other environmental medias should be developed urgently.

## 9) 세계통계의 날 제정

### “세계통계의 날 제정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서”

#### □ 개요

- 본 보고서는 공식통계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 2010.10.20)’ 제정을 제안
- 세계통계의 날 제정 목적은 서비스, 무결성,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공식통계의 기여를 인식시키기 위함

#### □ 배경

-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통계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분야 발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센서스 발전에 기여
- 현재 약 80개국에서 매년 통계의 날 기념(1주일간, 혹은 5년에 1번, 수시)
  - 공식통계의 가시성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
  - 중요한 통계 생산을 착수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한 의사결정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통계의 날을 활용
- 세계통계의 날 제정으로 지금까지 국가, 지역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기념일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 2008년 9월 UNSD는 각국, 국제기구에 세계통계의 날(2010.10.20) 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 약 75개 국가 및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적극적 지지 표명
- 2010년은 많은 국가들이 센서스를 실시하는 해로 이에 맞춰 세계통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통계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 기념 방법

- 배너 광고 “공식통계 업적 달성 축하”
- 적절한 지침과 조정 제공

# 10) 세계지리정보관리

## “세계지리정보관리에 대한 브라질통계청 보고서”

### □ 개 요

- 세계지리정보 인프라의 필요성 및 통계정보-지리정보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결정 지원능력과 분석능력 향상 도모 가능
- 국가통계기관과 국립地圖제작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권고
- 본 유엔통계위원회에서 통계정보와 지리정보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세스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함

### □ 배 경

- 최신 위성사진 및 GPS의 발전에 따라 지리정보 활용기회가 증진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센서스 등 공식통계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증진에 기여
- 이를 위해 지리정보의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며 2가지 과제가 존재
  - 1) 국가(national)-권역(regional)-세계적(global) 차원의 지리정보 관리
  - 2) 지리정보와 통계정보의 연계 및 통합방안

### □ 지리정보 관리(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 국가 차원(national)
  - 거버넌스 향상 및 통계자료, 메타데이터, 서비스, 사용자, 도구간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지리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
- 권역 차원(regional)
  - 아메리카대륙 地心참조시스템(Geocentric Reference System of Americas), 유럽지리정보 인프라 등과 같이 권역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리정보 프로젝트의 연계필요성이 증대
- 세계적 차원(global)
  - 기후변화, 재난관리, 자원보호 등 세계 공동의 문제에 대해 지리정보 관리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UN통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조정 및 관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능력을 배양

## □ 통계와 지리정보의 통합(Integration of statistic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 통계 자료와 GIS의 연계는 조사비용 절감, 정확도, 시의성, 편의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며 사회경제·환경 분석에 있어 활용이 증대됨  
※ 예 : 지진발생 전후 위성사진을 판독·비교하여 원조규모결 결정
- 명확한 조사구 설정은 센서스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리정보시스템은 조사 및 자료집계, 자료배포 등 통계 전 과정에서 활용가능
- 브라질 및 멕시코는 국가통계기관과 국립지리원이 같은 기관소속으로 통계와 지리정보의 긴밀한 연계성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가는 별개로 운영함으로써 공동기준의 부재 및 비교성 곤란, 중복성, 품질 문제 등이 발생
- 개도국의 통계지리정보 인프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UN통계처가 중심이 되어 각국 정책결정자에게 통계지리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과 유용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

## □ 브라질의 국가통계정보 인프라 현황

- 지리공간자료의 생산 및 관리는 정부기관 소관으로 자료량은 방대하나 사용은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지리공간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
- 2008년 11월 '브라질 국가지리정보인프라 기업'(INDE)이 대통령령으로 설립
  - 각 정부기관별 지리공간자료의 생산, 보관, 공유, 보급 및 이용의 촉진
  - 지리공간자료 생산에 있어 국가地圖위원회의 기준과 세부규칙의 활용증대
  - 각 정부기관별 메타데이터의 보급을 통해 중복생산 및 자원낭비를 방지
- INDE 설립으로 지리공간자료를 생산하는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브라질 공간지리자료 디렉토리'에 자료게재 및 국민에게 제공을 의무화하고, 국민은 포탈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  
(단, 주정부·지방정부는 제공의무 없음, 국가안보 관련 자료는 제외)

## □ 지리정보와 통계자료 연계에 관한 실제경험

- 브라질 통계지리원(National Statistical and Geographical Institute of Brazil)은 2010인구센서스에 위성사진 등 지리정보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
  - 28만개 조사구를 수치지도로 전환도입
  - 주소자료를 통계조사용 지도로 재구성·활용함으로써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서비스를 향상(도로, 블록 등까지 서비스를 세분화 가능)

※ '07년 센서스 : 8만개의 PDA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조사

○ 조사용지도 S/W로 GeoBase와 SisMap를 활용

- GeoBase(2만명이하 지역용 독립형 S/W), SisMap(대도시용 웹기반 S/W)

- 현재는 조사구설정 중심이나 향후에는 주제별·지형별로 발전

○ 지리정보를 아마존별목감시에 활용하여 필요한 산림통계 작성 가능

※ 예시 : Thailand지역은 '01~'06기간 633km<sup>2</sup>에 이르는 산림이 감소

## □ 결론 및 제안

○ 단일기관에 의해 지리정보와 통계자료가 연계될 때 인구센서스 등에서 지리정보DB 활용이 촉진됨

○ UN통계위는 각국통계청이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연계한 통계지리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구축을 권고할 것을 제안

○ 지리정보기술은 국가차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UN통계위원회는 UN사무총장에게 세계차원의 지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지리정보관리에 관한 세계포럼을 개최하여 최신동향, 발전방안, 현안 사항 등에 정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UN이 핵심역할 수행을 요청

○ 인구센서스 조사구설정에 관한 UN통계처주관 연례 국제회의를 요청

- 자료공유 및 정책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리정보 및 통계자료의 접근성과 상호연계를 증진하는 방안

- 기술 기준과 세부사항의 결정방법, 법적·정책적 프레임틀

- 향후 Web 서비스의 기준 등

- 제18차 UN아태지역지도제작회의('09.10월, 방콕)에서 '세계지리정보의 관리, 국가별 활동조정, 표준틀, 보편적 기준정립 필요성'에 대해 결의한 바 있음
- UN사무총장과 사무국은 향후 지리정보 세계포럼 창설을 포함하여 지리정보에 관한 비전보고서 준비 및 'UN경제사회이사회'에 논의세션 신설을 주도해주기 바랍.

## □ 논의사항

- 지리정보-통계정보 통합의 중요성
- 각국 통계청은 국가지리정보 능력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
- 세계포럼 창설 및 지리정보에 관한 비전보고서 준비 요청(UN사무총장)
- 인구센서스 조사구설정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요청(UN통계처)



---

## 세계지리정보에 관한 의견

---

- 공간통계정보의 개괄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한 보고서로 그 내용에 대하여 공감함.
- 우리 청도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체계 내에서 공간통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주체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 중
  -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중 공간통계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
  - 공간통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 인구주택총조사와 사업체조사의 2개 센서스에 대하여 조사용지도 제작 및 공간정보 기반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

## Comments on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

Statistics Korea agre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Statistics Korea has also made effor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Geospatial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s one of the main body on the basis of Acts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s follows;

- Planning and implementing Geospatial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the framework of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Plans
- Common utilization of Geospatial Statistical Information and its standardization
- Providing census map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establishments census, and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geospatial information

# 11) 국제통계표준표

##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멕시코통계청 보고서”

### □ 개요

- 멕시코 신통계법은 국가통계시스템은 국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멕시코통계청은 국제기준 적합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DB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 멕시코통계청은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며 동 DB를 UN통계청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국제통계사회에 제공하고자 함
- 본 위원회는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 개발의 이점, UN통계국 웹사이트에 DB게재여부,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에 검토요청 및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멕시코통계청(INEGI)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 □ 새로운 법적 근거

- 2006년 헌법개정을 통해 멕시코통계청은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 신통계법이 효력 발생.
- 국가통계시스템에 의해 생산하는 통계는 공식통계이며 연방·주·지방 정부 모두 이를 활용하여야 함. 멕시코통계청은 국가통계시스템으로서의 권한부여와 조정자 역할 수행.
- 신통계법은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의 국제통계기준 적합성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음.

## □ 통계자료의 국제비교성

- 세계화 추세에 따라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표준화된 국제기준을 제시.
- 하지만 국제표준이 모든 국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국가별로 자국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국내표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존재.
- 멕시코통계법은 통계방법론 개발에 있어서 국제표준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국내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어 국내현실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

## □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의 개발

- 현재 국제통계기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인터넷, 보고서, 법적 문서, 용어집, DB 등)하여 이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부재
- 멕시코통계청은 독자적으로 국제기준 인벤토리를 개발하기로 결정함
  - (원칙) 모든 국가통계 작성기관이 이용가능할 것, 중복생산 및 가용자원의 오용을 방지, 국제표준과 국내방법론 사이의 불일치를 가시화할 것 등
  - (방법)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기준 등을 종합검토
  - (분류) 현재 약 800개의 국제기준을 리스트하였으며 이를 SDMX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의 기준에 따라 5개 카테고리(개념 및 정의, 분류, 방법 및 과정, 데이터 소스, 인디케이터)로 분류
  - (DB구축) 이용편의성을 위해 DB로 구축하고 metadata시스템도 개발함
  - (DB분류) DB는 멕시코 통계시스템에 따라 ①경제, ②인구사회, ③환경·지리, ④정부·치안·법 등 4개로 구분
  - (애로사항) 국제통계기준별로 발전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개념틀 구축에 어려움.(잘 구축된 국민계정 vs 신생업무인 환경통계) 국제기준개발에 너무나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함에 따른 어려움 등

## □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의 사용

- DB구축에는 상당한 인적, 물적 초기투자가 필요한데, 본 인벤토리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① DB자료 전체에 대한 영어번역
  - ② 국제규범 담당기관의 관점에 따른 콘텐츠의 유용성
  - ③ DB의 범위 및 디자인에 대한 검토
  - ④ DB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검토
  - ⑤ UN공식언어 외 언어로의 번역가능성
  - ⑥ 지속가능한 업데이트 체제의 정의
- 상기 과제는 각 국제기준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UN지역별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 현재 모든 국제기준은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 산하조직에 의해 DB화 되어있으므로, CCSA에 본 DB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 논의사항

-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 구축의 이점
- UNSD 웹사이트에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 DB를 게재하고자 하는 멕시코 통계청 제안의 승인여부
-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에서 본 DB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발전방안 등 논의

## 국제통계표준표에 관한 의견

- 멕시코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국제통계기준 인벤토리 구축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 800개의 국제기준(통계용어, 분류 등)들이 국제기구별로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들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국제기준들간 불필요한 차이를 향후 표준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다만, 의미 있는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면 관련 통계간 비교·분석 등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별 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량이 될 것이므로 상기 작업에 이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비교적 단순화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UNSD 웹사이트에 동 DB를 게재하고자 하는 제안의 승인여부
  - 800여개의 국제기준을 한곳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DB로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함

---

## Comments on Inventory on Global Statistical Standards

---

- Statistics Korea fully agrees with the INEGI's points of view that the establishment of Inventory on Global Statistical Standards will benefit all countries. Our comments on the related issues are as follows.
- The merits of such global inventory of statistical standards
  - Over 800 international standards(statistical terminologies, classifications, etc) on the INEGI's inventory have been developed by numer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purposes and needs. Therefore, we can expect small and big differences among these standards.
  - The proposed inventory has advantages of standardizing such unnecessary differences among international standards.
  - Furthermore, if we can identify and understand such differences, improvements could be made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various analytical purposes.
  - The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re complex and vast. Therefore, Statistics Korea recommends that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iden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difference among available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its complexity, the work scope needs to be simplified in harmoniz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 Endorsement of the proposal the database be posted on the UNSD website
  - Statistics Korea endorses INEGI's proposal to post the database on the UNSD website so that contents are updated regularly and easily accessible by all countries.

## 12) MDG 모니터링 지표

### “MDG의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사무국장보고서”

#### □ 개요

- MDG 지표에 대한 국제전문가그룹(IAEG)\*과 유엔통계처는 지난 40차 통계위원회의 MDG 사업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7개 중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보고

\*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 <IAEG-UNSD의 7개 중점사업>

- ① MDG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선 및 데이터 유효성 향상
- ② MDG 모니터링을 위한 각국의 공식통계 생산 역량 구축
- ③ MDG에 대한 국내외 데이터 호환성 증대
- ④ 각국의 MDG 모니터링 이행 역량 강화
- ⑤ MDG 지표 관련 교육 확대 및 각국의 지표생산에 대한 매뉴얼 제작 완료
- ⑥ 지역적인 범위 (지방 차원) 내에서의 MDG 모니터링 및 분석, 유관 데이터 생산에 대한 교육 확대
- ⑦ MDG 지표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에 관한 보고 및 MDG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적용범위 확대

#### □ MDG 지표를 위한 데이터 품질 개선 사업

- 각국의 국내데이터 및 국제데이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IAEG는 메타데이터에의 접근방안 개선, MDG 지표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각국 통계전문가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

\* 특히,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국제기구 (ILO, FAO, UNESCO, UNICEF, WHO, ESCAP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유효성 증대 방안 협조

#### □ 각국 MDG 수행 사업 및 메타데이터 교환 방안 개선

- IAEG는 각국 통계청이 MDG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SDMX(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교환 표준) 등을 활용한 데이터 교환 표준을 정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MDG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안 등을 제시

- 권고안의 내용으로 각국의 MDG 사업 진행 관련 선진기술 공유, MDG

지표의 온라인 제공, 각국 통계청과 국제기구간 MDG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의견교환 창구 마련 등이 제시됨

## □ MDG 지표에 관한 데이터 유효성 평가

- IAEG에 따르면 상당수 국가가 MDG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생산, 분석 역량이 미비함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을 권고
  - \* 국제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수혜국은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9년 MDG에 관한 데이터 유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향후 MDG 지표에 관한 데이터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생산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의 글로벌위기와 함께 대두되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

## □ 통계위원회 논의사항

- 국내외 데이터 호환성 증대 및 각국 MDG 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향
- 새로운 MDG 매뉴얼북의 배포 등 각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 각국 지방단위에서 MDG 지표 및 데이터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안
- MDG 지표를 위한 SDMX 채택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방안



## MDG 모니터링 지표에 관한 의견

### □ (논점 1) 각국 MDG 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향

- 2010년은 MDG 달성시한을 5년 앞둔 시점으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여 MDG 달성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때임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의 ODA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티 재앙 등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등 M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중견 공여국으로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하여 M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
- MDG 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향 제안
  - MDG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IAEG와 UNSD의 지표 개선 사업 등으로 MDG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유효성이 향상되고 개도국의 통계역량이 강화되어 MDG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해짐
  - 최근 기후변화 관련 환경오염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MDG 모니터링 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문제와 개발이슈와의 연관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논점 2) MDG 지표를 위한 SDMX 채택국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방안

- SDMX가 데이터 교환 표준을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MDG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음에 동의
  - 한국통계청 역시 MDG 모니터링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SDMX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선진 기술 등을 전수받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SDMX 채택을 위한 내부 기반을 마련할 예정
  - 앞으로 전문가회의 개최 뿐 만이 아니라 SDMX 채택 준비국에 관련 전문가 직접 파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이 SDMX를 채택하여 MDG 이행사항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 Comments on the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DGs

---

**□ Discussion Point 1) to improve coordination of MDG monitoring in countries**

- With only five years left until the 2015 deadline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oncerted efforts for accomplishing MDGs should be made.
  -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unprecedented disaster such as Haiti's earthquake have called more close cooper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ccessfully reach MDGs.
  - As the chair and host of 2010 G20 Summit, Korea will play a bridging role between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so, Korea would like to provide assistance so that MDG can be concisely monitored and fruitfully achieved. In this regard, Statistics Korea would contribute to this effort by supporting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 Statistics Korea believes that the work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MDG Indicators and UNSD has improved the data availability and quality for the monitoring of the MDGs. It is clear that IAEG and UNSD's activities have supported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of MDGs with ease.
  - In particular,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environmental deca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given more weight to implement the monitoring of the MDGs as recent global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 that have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ing action together.

**□ Discussion Point 2)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to countries who wish to adopt the SDMX standards on MDG Indicators**

- Statistics Korea agrees that the SDMX is a good technical solution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the desired levels of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presenting data for monitoring MDGs.
- Statistics Korea also has prepared to adopt the SDMX as a part of supporting work for the achievement of MDGs by attending expert group meetings on the SDMX and sharing best practices and the preparatory step for adopting the SDMX is positively under consideration at this stage.
- Not only holding various expert group meetings on the SDMX but also designing experts dispatching program is also required for encouraging more countries adopt and implement the SDMX. Statistics Korea believes that more active and concerted effort would bring about the successful MDG monitoring.

# 13)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통계개발

## “중남미 통계개발을 위한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보고”

### □ 개 요

- 제40차 통계위원회('09년)에서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의 지역내 최신 공식통계동향 및 주요 과제 실천계획의 검토와 인준을 요청

※ 한국은 2007년 7월 UNECLAC(유엔중남미 경제위원회) 정회원국으로 가입

※ 중남미경제위원회 산하 미주통계회의 : Statistical Conference of the Americas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 중남미 공식통계 현황

- 국가현황(총33개국) : 라틴아메리카(20개국), 카리브(13개국)

- 통계작성 현황

- 센서스(32개국), 고용통계(19개국), 환경통계(14개국), ICT통계(16개국) 등

- 분야별 현황(8대 분야)

- 인구센서스 분야

· PDA사용 조사 및 설문지 광학판독 등 기술발전

· 남미 13개국, 카리브 4개국에서 인터넷 조사 실시

- 가계조사 및 고용통계 : 대부분 실시

- 국민계정

· 총 22개국이 UN 1993 SNA 채용하고 있으나 전체 추계표 작성은 못함

- 성인지통계

· 작성국가가 증가하고 생산자(통계청)과 이용자(정부부처 등)간의 협력이 체계화 되고 있는 추세이나, 인종별·장애인·이민자의 성인지통계 값 측정은 어려움

- 인구동향조사

· 모든 국가에서 인구통향 통계를 작성. 다만, 범위 및 품질상 일부 문제가 있음(7개국은 출생·사망 조사범위가 50%에 불과 등)

·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은 인구동향 및 보건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실천계획을 추진중

- 교육통계

· UNESCO활동,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설립, ICT기술의 발달, MDGs 관리 등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교육통계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실적

- 환경통계
  - 28개 국가통계기관중 14개가 환경통계 부서를 신설하고 16개국은 환경통계 보고서를 발간하나, 환경부와의 협력은 미흡한 실정
- ICT통계
  - 최근 비약적인 성장중(24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통계자료 접근이 가능, 20개국에서 통계조사에서 인터넷을 활용)
  - 아메리카 ICT통계회의 실무그룹은 전자정부 및 주요 교육지표를 개발중

## □ 중남미 통계조직 현황

- 거의 모든 국가에서 통계법 등에 의한 국가통계조직이 있음
- 통계시스템의 특징
  - 기본적으로 '분산형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 통계법에 의해 통계생산이 이루어지고 비밀도 보장됨
  - 통계조사의 범위, 품질, 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미달되어 정책지원기능 미비
  - 대부분 통계청은 인력, 재정자원이 부족한 실정
  - 최근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멕시코통계청은 대통령 및 상원이 임명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개혁됨
    - 일부국가 통계청 주요직위는 공개경쟁을 통해 충원하도록 변화

## □ 지역간 공식통계활동의 조정

- 1940년대이후 지역간 공식통계활동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
- ECLAC(중남미경제위원회)산하 미주통계회의의 주요활동
  - 연 2회 회의개최, 집행이사국 임기는 2년
  - 다양한 Working Group활동 : 인구센서스, 제도구축, 성인지통계, 이민 및 송금, MDGs관리, 국민계정, ICT, 인력개발, 환경통계, 빈곤 등
  - 기관간 통계활동조정 및 국가통계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협력활동 DB를 구축하고 주제별, 국제기구별로 관리
- 소지역간 활동 조정 메카니즘
  -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 Andean통계위원회(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 SICA(중미국가 통계조정위원회)
- CARICOM(카리브지역국가 통계상임위원회) 등

## □ 주요 발전과제

### ○ 통계생산 분야

- 인구센서스 : 높아진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여야 하나 센서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인구동향조사 : 품질제고와 함께 산모연령, 신생아몸무게 등도 포함
- 가계조사 : 제도적 미비, 자원부족, 담당자의 잦은 이직 등
- 국민계정 : 2008SNA도입으로 국민계정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
- 성인지통계 : 특정인구집단(인종별, 장애인, 이민자 등)에 대한 성인지 정보격차가 존재
- 교육통계 : 사교육기관, 교사, 교육비지출, 조기 및 고등교육에 대한 metadata 이용가능성을 증진하고 교육부-통계청간 협력 강화 필요
- 환경통계 : 환경통계 작성 시스템 강화를 위해 별도 프로그램 강구필요
- ICT통계 : ICT활용한 통계작성을 증진하고 ICT정책수립과정에서 관련 통계이용을 활성화할 필요

### ○ 자료배포 등 통계정보서비스 분야

- 전문가 뿐만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서비스 확충도 필요하며 인터넷이 중요한 수단중 하나
- 통계생산자와 이용자간의 협력증진으로 통계품질 및 유용성 제고

### ○ 국가통계시스템

- 국가통계시스템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
- 국가통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

## □ ECLAC(중남미경제위원회)의 발전전략 및 산하 미주통계회의 역할

- ECLAC 통계위원회의 '2005-2015 발전전략'
  - 통계관행 및 배포를 선진화하고 국제기준을 도입
  - 지역내 국가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조사방법론의 발전 도모 등
- ECLAC는 각 국의 인구센서스, 가계조사, 국민계정, 성인지 등 통계작성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각국 통계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통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국기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
  - 빈곤 및 사회용화 측정을 위한 조사방법론 개발, MDGs목표 달성도 관리 등 국제흐름에 부합노력
- ECLAC는 통계모범관행 규약을 정립하고 법·제도적 기반구축을 지원

## □ 통계위원회 논의사항

- 중남미지역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통계제도와 통계발전에 대한 의견
- ECLAC 통계위원회 '2005-2015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 및 실무그룹운영에 관한 조언
- 공식통계의 정책결정 지원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과제에 대한 조언
- 지역내 통계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전략에 대한 조언

##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의 통계개발에 관한 의견

- 한국은 ECLAC의 회원국<sup>1)</sup>으로서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 공식 통계발전을 위하여 ECLAC 보고서가 제안한 실천 계획을 지지하며 comments는 다음과 같음.
  - 취약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여러 도전 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고 공식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적 역량과 재정적인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2년마다 개최하는 ECLAC 미주통계회의에서 EUROSTAT 등과 공조하여 역내 통계모범실행수칙(a code of good practice in statistics)을 제정하여 보급할 것으로 기대함.

1) 중남미 33개국과 역외 11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독일, 일본, 한국), 한국 2007년 7월 정회원 가입



---

## Comments on Reg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 As a member country of ECLAC, Statistics Korea generally supports the report describing the mai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official statistic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 also endorse the proposed courses of action.
  
-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ly significant challenges and develop public statistics under the serious institutional weaknesses, technical capacity building and financial independence needs to be strengthened.
  
- Statistics Korea anticipates that the biannual Statistical Conference of the Americas of ECLAC will focus on and prepare "A Code of Good Regional Practice in Statistics" with the collaboration of ECLAC and 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 14) 인구 · 주택총조사

### “2010 인구주택센서스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서”

#### □ 개 요

- 38차 UN통계위원회에서 UNSD 및 기타 국제기구들에 대해 2010 인구 및 주택센서스 국제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각국의 중앙통계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요구
  - 더불어 각국에 대하여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지침 및 권고 수정안을 실행에 옮기도록 촉구
- 2009년 말까지 78개 국가나 지역, 세계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2010라운드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시행
  - 2009년에만 14개국이 실시하였고, 2010년 63개국, 2011년 54개국이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0라운드 센서스가 계획되지 않은 나라는 9개국임
- 금번 센서스 라운드 동안 UNSD가 이미 시행된 센서스와 향후 계획 중에 있는 센서스에 대해 모니터하여 센서스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나라들을 확인
  - 2000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예산제약, 운영능력의 미비, 정치적 불안 등으로 센서스를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

#### □ 2010 인구 및 주택센서스 세계 프로그램의 활동내역

##### ① 센서스의 국제적 지침의 마련

-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원칙 및 권고안 제2판(Th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2)』를 인쇄 보급하고 2010 인구 및 주택센서스 세계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 등재
- 2009년 『센서스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핸드북(The Handbook on Geospatial Infrastructure in Support of Census Activities)』을 발간하여 발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을 센서스에 적용하는데 사용토록 함
- 2008년에 열린 센서스 자료처리에 관한 일련의 워크샵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센서스 데이터 수집방법에 관한 기술적 보고서(Technical Report on Census Data Capture Methodology)』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2010 인구 및

주택센서스 세계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 등재

- 2009년 『센서스평가매뉴얼 : 사후조사(Manual on Census Evaluation : Post Enumeration Surveys)』를 발간하여 센서스의 사후평가 및 사후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개관(概觀)

## ② 기술지원

- 글로벌통계시스템 증진의 일환으로 UNSD에서 센서스와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들을 지원
  - 일례로 UNSD의 국장이 이라크 센서스를 위한 국제기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Technical Advisory Board for Iraq Census)의 의장을 맡아 이라크의 센서스 수행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술지원

## ③ 센서스 자료의 보급을 위한 **CensusInfo** 소프트웨어 개발

- UNSD에서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 및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과 협력하여 무료 소프트웨어인 CensusInfo를 개발·보급
  - CensusInfo를 통하여 각국의 센서스 결과를 CD-ROM 및 웹으로 보급하는데 용이하도록 함
  - CensusInfo의 보급을 위해 일련의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CensusInfo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 전파

## ④ 센서스의 사후평가에 관한 훈련 워크숍 개최

- 2009년 UNSD는 지역위원회와 연계하여 센서스의 사후평가 및 사후조사에 관한 워크숍을 3차례 개최
  - 워크숍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후에 워크숍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하여 각국의 워크숍 권고안 시행에 대해 모니터

## ⑤ **2010** 인구주택센서스 세계 프로그램 웹사이트 운영

- 2010 인구주택센서스 세계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2009년 개설하여 각국의 센서스 수행현황, UNSD나 기타 기구의 센서스관련 국제회의·워크숍 내용소개
  - 아울러 각국의 2010 센서스 시행일자, 조사표, 주관기관의 웹주소 등을 게재
- 동 웹사이트는 Census Knowledge Base을 운영하여 각국의 시행사례 및

방법론에 관한 문건을 축적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 및 전문가들로부터 생산된 문건 370여종을 보유

- 2009년 동안에 UNSD는 웹페이지에 센서스 뉴스를 Update하고 2010 인구 주택센서스 세계 프로그램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센서스와 관련된 활동 및 연구동향 등을 소개

#### ⑥ 2010 라운드에 활용된 센서스 방법론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분석

- UNSD는 UN의 각 지역위원회와 협동으로 각국의 센서스 기획 및 수행에 활용된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
  - 이와 관련하여 각 나라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센서스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 2009년 말까지 110여개국에서 설문지를 보내왔으며, 설문결과는 DB에 축적되고 분석과정을 거쳐 2010년 배포될 예정
- 이로써 각 나라의 2010 센서스 기획·시행·자료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각 나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 향후 계획

- 다수의 국가가 2010 라운드 센서스를 2010년이나 2011년에 마무리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초점을 자료의 분석 및 보급에 맞출 예정
- 2010년에도 CensusInfo에 관한 훈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시행
- 센서스 데이터 보급의 각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그룹회의를 2010년에 개최
- 개도국의 센서스 데이터 분석·보급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추진
- 개별국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각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센서스 수행능력배양
- 국가간 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상호 연구방문(Study Visit)을 추진
- 센서스 수행국가의 진척상황에 대해 모니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

## 인구. 주택센서스에 관한 의견

### □ 인구주택 총조사에 관한 2010 세계 프로그램 활동 관련

- 대한민국 통계청은 UN의 2차 개정(안)을 반영하여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있음.

< UN 2차 개정(안) 반영내용 >

\* 조사항목(국적, 입국연월), ICR 입력, 조사구 설정의 항공사진 활용

- 유엔통계처는 국제적인 지침 마련, 기술지원, 워크숍 등을 통해 각국의 센서스 통계능력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대한민국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음.

### □ 향후 활동 관련

- 향후 유엔통계처에서 센서스 자료제공 및 분석뿐만 아니라 센서스 자료가 각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 주었으면 함.

---

## Comments o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 III. Activities of the 2010 World Programme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Statistics Korea has prepared a plan for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ased upon the "Principle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2"
- In reviewing the "Principle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2" for the plan of the 2010 Census, Statistics Korea recently adopted two items(nationality, year and month of entry), the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in data capture, and use of aerial photographs in delineating enumeration districts.
- Statistics Korea believes that the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plays significant role in reinforcing many countries' statistical abilities through global guidelines, technical support, and workshops.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actively take part in the activity of the UNSD.

### IV. Future activities

- In the future, Statistics Korea hopes that the UNSD will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way Census data is being used in each country as well as dissemination & analysis of Census data.

## 15) 고용통계

### “ILO의 통계조직 및 활동의 재편에 관한 보고”

#### □ 조직 개편 ('09.5월~)

- **(보고 시스템 변경)** 통계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통계국 정책총괄담당 부서에 보고하던 시스템에서 직접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 **(통계 관련 업무 집중화)** ILO내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개발된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조율함으로써, 중복과 불일치 해소
- **(내부개혁)** ‘품위있는 일자리 데이터 생산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단기, 연간 지표를 만들고 전자조사표 등을 이용하는 등 자료수집 방법 개선
- **(정보격차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정립)** 노동통계의 양적, 질적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우선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 전세계 노동 통계 작성 실태 매핑 작업 진행 중
- **(통계 작성방법 업데이트)**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업데이트 작업 진행 중
  -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일시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 정책을 위한 적시성 있는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
- **(통계 작성절차 대폭점검)** 외부전문가에 의해 내부 통계시스템 평가 ('09.10월)
  - 평가 결과,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과 통계역량강화가 요구
  - 각국의 고품질 통계 생산 기술지원을 위한 통계 방법 업데이트

#### □ 최근 활동

- **(비공식고용\*)** ILO통계국은 인도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델리그룹\*과 함께 비공식고용 조사 매뉴얼 작성, 최종 초안은 델리그룹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10.1.27~29, 제네바)
  - 제17차 노동통계컨퍼런스(ICLS) 권고안에 비공식고용조사와 관련해 각국 기술지원 확대

- \* 델리그룹 : 유엔통계처 산하 전문가그룹인 시티그룹 중 하나로, 비공식부문 통계를 담당.
- \* 비공식고용 : 1970년대 초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고용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논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공식 부문 기업과 비공식 부문 기업 및 가계에서 수행되는 총 비공식 일자리 수”로 정의된다(ILO, 2002년). 이때 비공식 일자리란 “노동규정, 사회적 안전망 혹은 복리후생 등 제도권의 보호 규제 틀 밖에서의 근로”를 의미한다. 즉,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경제에서 비공식적으로 수행되는 일자리 수를 뜻한다.

- **(노동력 저활용 측정)** 최근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실업률을 보완하고자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이 연구 중
  - ILO는 이를 위한 실무그룹을 결성, 향후 이 그룹은 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통계 관련 현행 국제기준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 제공 예정
  - 이와 관련하여 ILO는 그간 품위있는 일자리(decent work) 측정과 그 지표 개발을 선도하고 UNECE, EU위원회와 협력하여 시험조사 실시
-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 노동통계 전문가 그룹에 의해 ISCO-08 개정 업데이트 ('07.12월)
  - ISCO-08 개정 최종 초안 발표 ('09.7월)
  - 많은 국가들이 ISCO-08에 따라 자국의 표준직업분류 개정작업 착수
  - ISCO-08 적용을 위한 매뉴얼과 훈련자료 준비
- **(노동력구조변경 측정의 향상 방법)**
  - ILO는 국제고용상태분류(ICSE) 검토 작업 수행(~'10년)
    - 고용주, 피고용자, 자영업자, 무급가족봉사자 등 고용 범주와 관련된 문제점 검토
    - 회사 경영자, 계약업자, 최저생활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현재 고용 틀에서 분류하기 불분명한 그룹들에 대해 다른 맥락에서 접근
- **(산업, 직업에 따른 임금, 노동시간 통계)**
  - 제18차 ICLS 결의에 따라 ILO는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 개념 재정립(“October Inquiry”로 명명)
  - 전통적인 질문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사 방법 시범 예정
- **(노동통계 컨퍼런스 관련)**
  - 개최 주기 및 기간 : 현행 5년, 2주간 → 3년, 5일로 단축하여, 컨퍼런스 간 연속성과 전문가들의 참가 촉진



- ILO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직 개편 상황에 따라, 2011년 계획된 제 19차 ICLS는 2012년으로 연기

## □ 결 론

-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동상태 불평등을 고려한 실무그룹 운영
- 제19차 ICLS회의가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되었음을 공지
- ILO는 위원회가 회원국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도록 당부
- 고용위기와 노동상태 악화 방지 정책 평가조사에 대해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

## 고용통계에 관한 의견

□ ILO의 통계활동 개편을 지지하고, 최근의 ILO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comment는 다음과 같음

### ○ ILO의 집권화된 새로운 통계부서와 분권화된 지역 네트워크

- 노동통계정보의 수집, 품질관리, 제공을 집권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ILO의 통계조직의 개편을 지지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분권화된 지역 통계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역시 바람직한 방향임
- 이에 더하여 개별 국가내의 노동통계조직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노동통계조직의 집권화 여부와 협력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각 국가, 각 지역별 모범사례를 정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노동통계자료제공 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노동통계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수집하고, 이용자 편의적인 적용을 통한 ILO의 자료제공 노력을 지지함
- 이에 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노동통계 연구를 위해 각 국가의 조사표, 지침서와 같은 meta data와 통계분석의 기초가 되는 microdata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ILO의 지역 지부나 지역 노동통계전문가 네트워크에서 관리하는 remote access system\*과 on-site access facilities\*\*를 고려할 수 있음

\* remote access system : 인터넷을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스템

\*\* on-site access facilities : 일반 제공용 마이크로데이터 보다 상세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설치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시설

### ○ 노동력 저활용 측정

-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ILO의 노동력 저활용 측정수단 개발 활동을 지지함
- 노동력 저활용 측정은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주제로, 통계청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고용통계를 생산하도록 국회, 정책 결정자와 언론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음
- 향후 많은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국제기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Comments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ILO's statistical activities

---

-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reorganization of the ILO's statistical activities, and positively evaluates the ILO's recent activities. Comments on relevant issues are as follows.
  - Concerning the ILO's new centralized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decentralized regional network
    -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reorganization of the ILO's statistical organization to implement compilation, quality control and dissemination of labour statistics data centrally. Also it is a good direction that the ILO supports a decentralized network of labour statistician at the regional level.
    - Additionally, the advice of the 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with labour statistical organizations at the individual national level is needed through scrutiny for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country.
    - To this end, it needs to share best practices on the related issu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 The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labour statistical data provision system for in-depth analysis
    -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ILO's effort to compile comprehensive labour statistics data in a timely manner and provide data in a user-friendly application.
    - Additionally, it needs to find practical way to provide 'meta data' such as questionnaire and survey guide, and 'microdata'(an observation data collected on an individual object) to support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labour statistics research.

- To achieve this goal, remote access system(data provision system through the internet) and on-site facilities(the on-site facility is a 'safe setting' in which confidential data can be analysed) will be managed by ILO regional office or regional network labour statistician especially to provide microdata.

○ Measures of labour underutilization

-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ILO's activities to develop measures of labour underutilization that more fully reflect the realities of labor market.
- As Korea has great interest in this topic of labour underutilization, Statistics Korea is requested to produce more realistic employment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Assembly, policy-makers and media.
- Henceforth, Statistics Korea hopes that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labour underutilization will be developed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 so that the guidelines can be accepted in many countries.

# 16) 마약 및 범죄통계

## “마약 및 범죄통계에 관한 UN보고서”

### □ 개 요

- 40차 UN통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범죄 및 마약통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 보고서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마약 및 범죄통계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하는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
  - 또한 범죄통계 작성 - 특히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 -에 대해 각국 중앙통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

### □ 범죄통계

#### ○ 배 경

- 행정자료를 근간으로 한 범죄통계는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제 범죄발생규모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비교가 곤란
-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나라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조사가 중앙통계기관에서 시행되거나 조율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정부조직이나 NGO에서 조사를 시행
- 한편 통계분야에서도 범죄가 사회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8. 9월 뉴욕에서 열린 사회통계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도 범죄통계분야에 적절한 데이터수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 범죄통계와 관련된 UNODC의 활동

##### ① 데이터의 수집·배포

- 1970년대 이후로 UNODC는 각국으로부터 범죄 및 사법행정자료를 수집하여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활동조사(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CTS)자료를 축적
- UNSD의 협조아래 각국의 중앙통계기관 및 외교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여 웹상에 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며 192개 나라 중 약 50% 가량의 국가에서 자료를 접수

- 2009년 UNODC는 국제적인 범죄통계지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8개 국가의 살인통계자료를 축적
- 결의안 2009/25에서 경제사회위원회는 세계의 범죄실태에 대한 데이터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자료수집 및 보고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시킬 것을 요구
-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2010년 2월 아르헨티나에서 전문가그룹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여기서 범죄데이터 수집방안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가다듬을 예정

## ② 방법론의 개선

- UNODC는 각국의 조사 및 행정자료 수집·분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방법론을 개발·보급
- 국제표준안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UN 매뉴얼 작성
- UNECE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에 관한 가구조사를 시행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 매뉴얼을 작성
- 이와 함께 유럽통계학자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와 협력하여 범죄분류(Crime Classifications)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작업을 위한 TF는 2009년 말에 결성되어 2010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
- 이밖에 UNODC는 여성폭력 및 청소년범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기위한 기관간 작업에 참여 중

### ③ 기술지원

- UNODC는 각국의 중앙통계기관이 범죄통계를 조정하고, 국가통계의 마스터플랜에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면서 각국에 대해 범죄피해조사의 수행 및 형사사법데이터의 수집·분석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

#### □ 범죄통계분야의 현안문제

- 범죄통계의 데이터가 경찰이나 사법·교정기관의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까닭에 통계표준에 대해 정의함에 있어서 중앙통계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결과적으로 중앙통계기관의 조정기능이 적절하게 가동하지 않음
- 데이터의 일관성, 시의성, 국제비교성, 신뢰성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내재해 있으며, 각국의 통계자료 수집 및 보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하고 통합된 보고체계(Reporting system)가 필요
- 국제통계사회에서 범죄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UN범죄방지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와 통계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 마약통계

- 개 관
  - 마약통계는 불법마약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
  -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마약공급에 관한 통계가 마약사용에 관한 통계보다 더욱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공급자에 대한 사법기구의 대응을 통하여 공급측 자료가 보다 용이하게 얻어지기 때문
  - 마약통계의 작성체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다수의 기관에서 서로 다른 부문의 마약통계를 생산하는 국가도 있음

○ 마약통계와 관련된 UNODC의 활동

① 마약수급동향에 관한 통계관리

- UNODC는 연간보고조사표(Annual Reports Questionnaire, ARQ) 및 개별 마약압수자료를 통하여 불법마약의 수급동향을 모니터하고 있음
- 아울러 국제마약시장의 동향을 UNCND에 보고하고 연간 세계마약보고서(World Drug Report)를 작성
- 2009년 UNCND는 각국으로부터 마약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이러한 UNCND의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간 전문가회의가 2010년 1월 12~15일까지 열려, 현재의 자료수집시스템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② 마약의 재배 및 생산에 대한 감시

- UNODC는 여러나라와 협력하여 불법작물의 재배 및 마약의 생산에 대해 조사를 시행
- 또한 국가나 권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고 각국의 정부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마약재배감시체계를 강화

③ 마약시장통계의 개선을 위한 대(對)국가 지원

- UNODC는 데이터의 불일치가 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수집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책을 시행
- 정기적으로 UNODC에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가 큰 방법을 보급

□ 마약통계분야의 현안문제

- 지난 몇 년 동안 마약통계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마약수급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통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 일례로 마약사용에 관한 자료는 공급에 관한 통계에 비해 매우 부족
- 아편 및 코카인의 재배는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있으나 원격감지(Remote sensing)기술로 재배현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자료의 입수가 가능
  - 반면 작물의 수확량에 관한 자료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짐



-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데이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UNODC는 이러한 데이터의 결함을 보완하기위한 추정방법의 사용에 고심하고 있어, 이 부문에 있어 국제통계사회의 참여가 요구됨

## □ 범죄 및 마약통계분야에서의 통계위원회의 역할

- 1951년 통계위원회는 범죄통계부문에서의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최근 수년간 통계위원회는 이 분야의 현안에 대해 다른 바가 없음
- 따라서 통계위원회는 범죄 및 마약통계와 관련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범죄방지위원회(UNCCPCJ) 및 마약위원회(UNCND)의 통계와 관련된 노력을 지원할 필요
- 이밖에 통계위원회는 이 부문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할 필요
  - 범죄 및 마약통계에 관한 UNODC 및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해 의견 제시
  - UNCCPCJ 및 UNCND이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자문 제공
  - UNODC에 기술지원 및 자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 자문
  - 범죄통계에 조정에 있어서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범죄피해조사의 시행에 있어서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범죄통계에 대한 현안문제를 아젠다에 포함

# 17) 장애통계

## “장애통계에 관한 Washington Group보고서”

### □ 개요

- 장애측정에 관한 UN 국제회의\* 이후, 장애통계 관련 국가간 정보교환 및 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적 회의체 Washington Group 설립(2001.6월)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Measurement of Disability

- 본 보고서는 Washington Group의 설립목적 및 활동 내역 등을 기술하고 특히, 최근 달성한 주요 성과와 2010년의 활동 계획을 설명함

※ 현재 Washington Group에는 109개국, 7개 국제기구, 6개 장애인 관련 기관, UN 통계처 및 UN산하 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NECE, WHO, Eurostat 등과 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를 발의하여 각 국 장애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개발 중

### □ Washington Group의 설립과 기능

- 동 회의는 각 국 센서스 및 각종 조사의 장애 관련 통계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장애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센서스 또는 표본조사에 적합한 장애통계 개발 및 관련 조사항목 등에 대해 조언하고 활동 결과를 웹을 통해 공유
- 설립 이후, 매년 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총 9회), 2005년도에 지역별 워크숍(아프리카, 중남미)을 개최하여 각 국 센서스 구축에 있어 장애통계 관련 기술적 지원을 도모
- 동 회의는 UNESCAP의 재정지원으로 아시아 6개국에서 장애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인지테스트 및 현장점검 교육을 실시(2009.2월)하는 등 각 대륙별 유사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노력

### □ 최근 활동 및 주요 성과

- 동 회의는 ① 센서스용 단순 설문문항 개발, ② 장애 데이터수집 관련

교육, ③ 설문문항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 ④ 검사 결과 분석, ⑤ 인구조사용 포괄적 설문문항 개발, ⑥ 포괄적 설문 문항에 대한 표준화된 인지테스트 실시, ⑦ 포괄적 설문 문항에 대한 표준화된 현장테스트 실시, ⑧ 인지 및 현장테스트에 대한 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

-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표준화된 테스트 실시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애통계 데이터 수집 역량을 강화
- 동 회의는 센서스용 단순/포괄적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함(15개국)으로써 개도국 장애통계의 타당성과 정확도를 높임
-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각 국 통계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2006.1~6월)
- 동 회의는 UNSD, WHO, ESCAP, Eurostat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 통계청과 함께 장애통계 개선을 위한 통일된 접근을 위해 노력
- 센서스용 설문문항을 총 6부문(시각, 청각, 걷기, 인지, 자기돌봄, 의사소통)으로 구성하고 각 국이 반영하도록 권고 (2009년 기준 21개국 반영)

## □ 2010년 활동 계획

- 동 회의는 포괄적 설문문항 개발 및 결과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아시아지역의 UNESCAP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아프리카에서 추진할 예정
- 동 회의는 10번째 회의를 금년 10월 개최 예정

## 18) 문화통계

### “문화통계 체제에 관한 2009 UNESCO 보고서”

#### □ UNESCO 통계 연구회 소개

- 조사 시행 및 정보 보호, 새로운 조사 기법 개발, 문화통계 방면 역량 구축, 문화통계 데이터 분석 및 보급을 주요 업무로 함

#### □ 프레임워크 개정의 당위성

- 1986년 프레임워크 작성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화정책에 변화가 있어 2005년에 이를 반영한 프레임워크 개정 필요성 제기
  - 전자 정보의 활용도 및 통신기술의 영향력 증가로 인한 문화정책 변화
  - ‘창조산업’과 같은 문화와 경제·사회적 영역의 융합에 따른 정책전환
  - ‘무형문화유산’과 같은 새로운 요소 반영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고려

#### □ 프레임워크 개정 준비 내용

- 일련의 자문 워크숍(Workshop) 수행
  - 심도있는 응답을 이끌어내고 회원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측면에 관한 토론을 실현하려는 목적
  - \* 특히 응답률이 낮았던 아프리카, 아랍, 아태지역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 태스크포스(Task Force) 설치
  - 새로운 프레임워크 내용을 검토하고 초안을 마련
  - 자문 과정에서 부각된 이슈들에 대한 최종권고 시 조력

#### 프레임워크 개정 준비 과정

- 전문가 연구를 기초로 학자, 통계 전문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협의 개최 ('05.7-'07.12)
-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취합, 반영하여 새 프레임워크 초안 마련('07.12.)
- 회원국, 국제기구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 개최('08.1.)

## □ 새로운 2009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 새 프레임워크는 통계적 목적으로 문화를 정의하는 개념적 모델 마련
  - 상호 비교가능한 문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도구로 사용가능
  - 가장 넓은 범위의 생산, 공헌, 문화적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반영 시도
- 폭넓은 문화 영역의 측정을 시도
  - 새 프레임워크는 행동 및 신념, 사회 가치 체계로부터 비롯된 관습의 측정 및 인지를 통해 문화를 정의
  - 전통적으로 문화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순수하게 문화적인” 영역 이외에 레크리에이션, 레저 등 “부분적으로 문화적인” 영역도 문화 영역에 포함
  - 또한 교육과 훈련, (유산의)보관 및 보존, 무형문화유산을 새로운 요소로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문화영역 측정을 시도
-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새 프레임워크에서 충분히 개발되었으나 사회적 측면의 측정 방법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한 문화를 구체화하는데 사용되는 표준들은 대부분 경제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나 통계 결과 해석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므로 보완 필요
- 새 프레임워크는 현재 사용되는 모든 국제통계 분류 시스템 및 표준을 포함
  - 이 분류 시스템들은 문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 제공
  - 또한 문화 활동, 수단,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음
  - 국가 차원의 문화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는 본 프레임워크를 기본 토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 결론

- 2009 UNESCO 문화 통계 프레임워크는 향후 새로운 방법론, 데이터 수집 및 유네스코에서 개발할 지표의 토대를 제공하고 문화 영역의 유네스코 결의 기반을 마련할 것임

# 19) 산업통계

## “산업통계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서”

### □ 산업통계 전문가그룹

- 유엔통계처에 의해 2005년 설립
- 주요 역할 : 산업통계 국제권고안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산업생산지수 국제권고안 개정 초안, 산업통계 품질프레임워크를 위한 제안 및 경제통계에 관한 지식 기반 시스템 검토 ('08년 전문가그룹회의)

### □ 산업생산지수 국제권고안 개정

#### ○ 배경

- 산업생산지수는 분기국민계정 작성 시 주요 투입요소인 동시에,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기경제지표
- 산업생산지수 국제권고안은 각국 경제성과의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하며, 지수계산방식에 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

#### ○ 개정 절차

- 이번 권고안은 산업생산지수(50년, 유엔통계처)에 대한 개정안으로, 2005년 결성된 전문가그룹에 의해 작성
- 국민계정체계 2008, 국제표준산업분류, 중앙생산물분류, 산업통계 국제권고안 2008을 포함한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절차 진행

#### ○ 포괄 범위

- 측정방법, 최신 이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술
- 각국의 단기 경제지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업 레벨에서의 접근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 ○ 주요 변화

- **(산업생산지수 범위)** 산업통계에 관한 국제권고안에 따라 산업통계 범위 변화를 반영,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4차 개정안에 따른 섹션 B(광공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E(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를 포괄

\* 초기 산업생산지수(50년)는 광공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으로 포함 범위 제한

- (작성 방법) 산업생산지수 작성시, 5년주기로 업데이트 되던 고정가중치 대신 매년 가중치로 업데이트 되는 연쇄지수 작성방식으로 변화

## ○ 결론

- 41차 위원회에서 「산업생산지수 국제권고안2010」 파트1 채택, 파트2지지에 대해 논의
  - \* 파트1 : 통계 단위, 분류, 소스 및 방법 포함
  - \* 파트2 : 산업별 지표와 변수 품질 가이드라인
- 회원국들에게 국제비교가능성을 위한 권고안에 따를 것을 요청

## □ 기술협력 활동

- 유엔공업개발기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훈련프로그램 운영('08, '09년)
- 향후 훈련프로그램 및 워크숍 확대 계획

## □ 산업통계 데이터수집 프로그램

- 전문가그룹이 승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엔통계처는 200개 국가, 지역의 620개 품목에 대한 수량,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여 월간 게시
- 일반 대중을 위해 「경제통계 기초 지식(Knowledge base on economic statistics)」 보급('09.9월)

---

## 산업통계에 관한 의견

---

### □ 논점 1 : Main changes 관련

- 산업생산지수 작성범위에 있어 「산업통계국제권고(IRIS) 2008」에서 산업 생산의 분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범위에 섹션 E(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수선 활동)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각국의 조사환경과 자료수집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좀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희망함. 따라서 향후 섹션 E 포함에 관한 워크숍 개최 및 상호 기술협조의 확대가 필요

### □ 논점 2 : Main changes 및 C.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관련

- 산업생산지수 작성에 있어 매년 가중치로 업데이트되는 연쇄지수 작성 방식으로 접근을 권고함.
- 연쇄지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쇄지수 작성기법과 현재 연쇄지수 도입국가들의 사례 등에 대한 워크숍 등 개최 확대가 요구됨.



---

## Comments on Industrial Statistic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Statistics Korea generally agrees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bout Industrial Statistics and our comments on the related issues are as follows.

### **Discussion Point 1: Main changes**

- This chapter suggests that the scope of industrial production activities is defined to cover sections E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sewerage, waste collection and remediation activities) as well as B(Mining and quarrying), C(Manufacturing), D(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This is a reflection of the change in scope of "industrial statistics",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Industrial Statistics (IRIS) 2008.

- Statistics Korea hopes that this recommendation be applied flexibly considering the particular survey condition or characteristics of data collection of each country.

Therefore we need to have workshops on section E and expand the technical cooperation with each other.

### **Discussion Point 2: Main changes and C.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 Statistics Korea recommends the calculation methods of IIP(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should be the chain-linked approach with annually updated weights.
- Thus, Statistics Korea think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s are necessary for the countries using a fixed weight approach.
-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workshops on the chain-linked approach and the experience of the countries applying the chain-linked approach in IIP.

## 20) 서비스통계

### “서비스통계에 대한 Voorburg그룹 보고서”

#### □ 소 개

- 설립배경 : 서비스통계 개발을 위해 UN통계처와 캐나다통계청에 의해 1986년 설립
- 목표 : 서비스통계 생산관련 이슈 해결
  - 서비스생산물 산출/투입, 서비스활동의 실질생산물추정, 서비스생산물 및 산업 물가지수, CPC 및 ISIC에 대한 시사점 포함
- 그룹의 중점사항 · 원칙 검토 및 전략적 비전 준비(2005)
  - Voorburg 그룹의 권한, 역할 및 향후 사업계획을 기술

#### □ 비전 및 2005-2009 사업계획

- 주요목표
  - 서비스산업, 생산물, 매출액 측정에 대한 정의 및 식별
  - 디스플레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생산
    - 고정가격에서 GDP 중 서비스부문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함
- 분류관련 이슈, 산출물 측정, 물가 지수가 그룹의 중점사업(2005)임
- 주요기능 수행
  - 새로운 개념, 방법 및 우수사례 개발(동 그룹의 핵심 기능)
  - 지식기반 유지 및 개선(시간에 따른 방법과 우수사례의 발전을 고려)
  - 우수사례 및 지식이전(워크숍 및 매뉴얼을 통해 보급)
- 5개년 계획안 수립: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
- 동 계획안의 목표
  - 분류, 매출액/산출 및 물가에 대한 우수사례를 요약한 지식체 개설
  - 서비스생산자물가지수(SPPI) 개발에 대한 포함범위 확장
  - 우수사례 보급 개선
- 동 계획안의 결과
  - 매년 2개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12개 미니발표 및 2개 분야논문 완료를 통해 우수사례관련 문서 수집
  - SPPI 개발에 대한 포함범위 확장
  - 모든 논문이 반영된 종합 데이터베이스 수립([www.voorburggroup.org](http://www.voorburggroup.org))

## □ 혁신적 거버넌스 및 조직화된 접근법: 부어버그 그룹 사업계획

- 개발활동을 개선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도구뿐만 아니라 개념 및 방법 관련 프로세스 개발에서 혁신 도입
- 프로세스 개발
  - 새로운 개념 및 방법론의 프로세스 개발이 2년 주기로 조직화됨(2006)
  - 1년차: 개발분야에 대한 경험을 지닌 국가를 선별하여 미니발표 세션에서 경험 발표
  - 2년차: 요약논문(분야논문)을 준비(분류, 매출액, 물가관련 우수사례를 강조함). 논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수사례는 지식체로 최종 승인
  - '분야논문 재연구' 활동을 추가하기로 결정함(2008)
  - 프로세스 개발은 지식을 창출, 소통, 공유하는 방법과 일관적이고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채택하는 방법을 개선함
- 도구
  - 내용개발체계(CDF): 물가 및 매출액관련 국가 미니발표와 분야논문의 보고체계를 제공(논문에서 물가, 매출액 및 분류가 통합됨)
  - 유효문서(living documents) 개발: 물가 사전, 용어집, 일반방법론관련 논문(서비스물가지수 개발에 범용체계를 제공함)
  - 경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모니터링: 브어버그 그룹 국가 성취도 평가 및 그룹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사용되어짐

## □ 성과 및 잔여 우선순위

- 향후 5년간에 대한 전략적 비전 및 목표를 준비/채택함(2005)
- 새로운 프로세스 및 내용개발체계 도구를 채택함(2006)
- 과거 사업을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체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을 확장함(2008)
- 웹사이트에 모든 문서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급하기 위한 검색엔진 도구를 개선함
- 최근 사업계획의 결과
  - 20개 이상의 분야관련 우수사례 문서화가 완료됨
  - 개발프로세스의 회원국 참여가 증가함
  - SPPI 개발이 5배정도까지 증가하고 그룹 웹사이트의 검색도구가 개선됨

○ 부어버그 그룹의 향후 계획

- 향후 2년간 재연구 대상 논문의 대부분을 완료
- 복잡한 서비스분야(은행업,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 서비스품질조정문제)를 해결
- 오타와 그룹과 새로운 개발을 위해 협조 필요(이미 개념관련 업무는 시작)
- 서비스 무역, 가치사슬 및 이전가격 등도 해결 대상임(SPPI 및 매출액의 우수사례가 확립될 때까지 당분간 배제)
- 2010회의에서 그룹의 향후 사업계획을 개발·제출해야 함

## 서비스통계에 관한 의견

- 서비스업통계에 관한 한국의 실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 첫째, 한국 통계청은 서비스업 부문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년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 전자상거래조사 및 운수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들 조사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각 부문을 조사하고 있음.
  - 둘째, 통계청은 1968년이래 매 5년주기로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총조사는 공공행정, 국방 및 국제기관에 의한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부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총조사에서는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형태, 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 비용, 임금 등 27 항목을 조사함.
    - 총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표본조사의 표본틀로도 제공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은 2011년에 가구, 공공행정, 국방 및 국제기관에 의한 경제활동을 제외한 산업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경제총조사는 기존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대체하는 것임.
    -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모든 경제통계의 비교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역시 여러 가지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될 것임.

---

## Comments on Voorburg Group on Services Statistics

---

- Regarding the services statistics,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Korean situation as follows.
  - Firstly, Statistics Korea conducts the annual Whole & Retail Trade Survey, the Service Industry Survey, the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Service Industry Survey, the E-Commerce Survey, and the Transportation Survey in order to acquire annual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 Those sample surveys are designed to cover each sector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ion 4.
  - Secondly, Statistics Korea has conducted the Census on Wholesale & Retail Trade and Service Industry every five years since 1968. It covers all establishments managing service sectors, except economic activities by household,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or international agencies.
    - The Census manages 27 items such as name of the establishment, location, business type, number of workers, capital, sales, expenses, wages, etc.
    - It also serves as sample frames for various sample surveys.
  - Also, Statistics Korea has a plan to conduct the first Economic Census in 2011 to cover all establishments except economic activities by household,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or international agencies.
    - This Census will replace the previous Industrial Census and the Census on Wholesale & Retail Trade and Service Industry.
    - The purpose of the Census is to improve the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of all economic statistics. The results will also be used as sample frames for various sample surveys.

## 21) 금융통계

### “금융통계 테스크포스 보고서”

#### □ 개 요

- 1992년 설립되었던 금융통계관련 범기관테스크포스는 1998년 대외채무와 국제준비금관련 자료의 개선을 위해 재 소집
  - ※ 중점 검토분야 : 방법론의 건전성, 투명성, 적시성 및 자료접근성
- 테스크포스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07년 2월 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에 동 보고서는 그 이후 추가업무분과 '09.3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된 업무계획을 포함

#### □ 방법론 검토

##### ① 공공부문 채무가이드

- '09. 3월 미팅시 IMF가 준비하고 관계기관에서 동의한 가이드 발간계획관련 각 기관별 역할분담 협의
  - 가이드 중 4개의 장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
  - 가이드 초안은 2010년 테스크 포스 미팅에 제출될 예정
- 테스크 포스에서는 또 공공부문 채무가이드와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6차개정판), 2008 SNA와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 강조

##### ② 대외채무가이드 개정(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매뉴얼 제기 이슈)

- IMF통계국은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매뉴얼을 준비, 국제수지통계위원회 연례회의에 보고('08.11)
- 개정판은 '93년 이후 발생했던 세계경제계 주요이슈를 반영하고 있고 SNA개정 및 타 매뉴얼에서 사용한 리코딩, 방법론 등을 고려하였음
- 테스크포스는 2011년 대외채무가이드 개정작업에 착수 2013년까지 완료예정
- 테스크포스는 자료보고 변화에 대한 의견청취 중. 특히 IMF는 대외채무 가이드 상 국제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교역채무의 명목가치 외에 시장 가치로도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
- 테스크포스는 가이드 표준데이블에 교역채무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 □ 채무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 ① 대외채무허브(Joint External Debt Hub)

- BIS, IMF, OECD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간 협력사업인 대외채무허브 (Joint External Debt Hub)는 2006년 3월 출범
  - 동 채무허브는 포괄적인 대외채무 통계의 원스톱 자료제공을 위해 개설
  - 당초 채권국과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와 200여 국가의 특정해외자산 및 IMF SDDS 54회원국의 포괄적 국가 대외채무 자료를 제공토록 구상
  - 2009년 회의에서, 대외채무허브의 확대(공공부문 또는 국가보증해외채무 QEDS의 대외채무허브 포함), 2004-2005 OECD공식 론포지션 게시에 따른 기술적 문제의 극복, OECD수출채권관련 과거자료 및 대외채무허브에 게시 검토 등과 관련된 개선필요성에 합의
- 베른연합(Berne Union)과 협의, 회원국으로부터 획득한 보험가입국의 수출채권 자료의 허브게시에 합의
  - ※ 베른연합 : 수출채권 및 투자보험자 협회

### ② 세계은행 채무국 자료

- 대외채무허브의 채무국자료는 '04년 11월 시작한 세계은행 DB에서 인용. DB에는 분기대외채무 자료의 주요 지표를 포함. IMF통계국과 세계은행은 공공부문 대외채무 자료의 신속한 배포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이 결과 QEDS에 참여하는 GDDS 참여 국가 수가 지난 12개월 동안 크게 증가('09.10월 현재, 43개 국가 참여합의, 28개 국가 QEDS보고). 또한, QEDS보고 SDDS국가의 숫자도 증가(총 64개 SDDS국가 중 60개국 참가)
- 개정판과 2008 SNA의 주요 방법론적 변화는 특별인출권(SDR)의 장기 대외채무 인정

### ③ 정부채무자료

- 국가채무자료 수집관련 토론을 거쳐 테스크 포스는 세계은행이 중앙정부 총 부채 자료 수집에 집중할 필요성 제기
  - 세계은행은 IMF와 더불어 SDDS 프레임워크에 맞춰 정부채무자료 템플릿을 준비 중에 있음(분기별로 채권발행지역 또는 채무자 주거지역에 관계 없이 합산, 취합될 것임)



## □ 역량구축 활동

- 대외채무통계 생산관련 최적사례 발굴, 배포(테스크 포스)
- IMF 대외채무통계과정을 운영 중(IMF본부, 격년)
  - ※ 최근 대외채무통계관련 과정 일부 감축(기타과정 수요증가)
- 대외채무관리 및 보고과정 운영(영연방 사무국, UNCTAD)
  - ※ 2008년 잠비아, 카메룬, 자메이카, 마리셔스 등
- QEDS/GDDS 채무보고관련 워크숍 개최(영연방 사무국)
- DMFAS프로그램 배포(UNCTAD)
  - ※ DMFAS(Debt Management Financial and Analysis System)
- 채무통계워크숍(8회), 후속방문(3회), 자료검증워크숍(7회), 자료검증 후속 방문(3회), DMFAS연수(20회) 등(UNCTAD)

## □ 금융통계 테스크포스 웹사이트('08.12월 출범, IMF주관, 관련문서 포함)

## □ 테스크포스 주요업무

- 공공부문 채무가이드 완결, QEDS확대, 중앙정부 채무자료 취합 추진, 대외채무허브 개선 및 대외채무가이드 개정 등

## 22) 물가지수

### “물가지수에 관한 오타와그룹 보고서”

#### □ 오타와 그룹의 목 적

- 물가지수관련 국제작업반으로 1994년 창립
- 전문가들의 경험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포럼을 제공
- 물가변화측정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
- 주로 소비자물가지수 부문의 응용연구에 집중
-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제적인 운영 환경에서의 다양한 개념, 방법 및 절차의 장·단점 검토
- UNECE/ILO 소비자물가지수 회의와 교대로 격년제로 회의 개최

#### □ 구 조

- 조정위원회 : 활동의 연속 및 발전 보장
- 동 위원회는 당해 및 향후 회의 주최 기관의 대표, 회원들이 동의한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 현재 호주통계청 대표가 사무국장을 맡음
- 회의 구성
  - 2개 세션으로 구분 (2개의 명확히 정의된 주제를 다룸)
  - 지정된 좌장(논의의 요약 및 권고사항 기록에 책임을 짐)
- 주최기관의 역할
  - 회의시설 제공 및 의사록 편집(제출된 논문 및 토론 요인 준비 포함)
  -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 권고사항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균형 잡힌 설명을 동반한 다양한 의견의 요약
- 웹서비스 제공
  - 동 그룹의 의사록 복사본 및 정보는 [www.ottawagroup.org](http://www.ottawagroup.org)에 제공
  - 주최기관이 웹사이트 관리에 책임이 있음
  - 조정위원회는 선별된 주제에 대한 개론서의 편집 및 정기 출간 결정
- 12차 회의는 2011년 4/5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예정

#### □ 최근 활동

- 2009년 5월 스위스, 너샬텔에서 회의 개최
- 미시수준에서의 물가측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최근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제임
  - 상품품질변화 처리(헤도닉방법), 복잡한 가격체계 처리(예: 전화, 인

터넷 및 케이블 텔레비전의 시스템 판매 관련 할인)를 다루는 여러  
기술 및 절차의 사용

- 세션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 의료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 및 주택 등 물가지수구성 영역에 할애
- 기타 쟁점사항도 고려 (물가통계, 주택시장, 계산법에서의 신개발, 물가지수의 가중치 관련 이슈 및 주요 인플레이션)
- 물가지수관련 국제매뉴얼 (수출입물가지수 매뉴얼, 주택물가지수 핸드북관련 시험사업 포함) 제작에서의 성과 인정
- 오타와 그룹 조정위원회는 회의의제 조정을 위해 사무국간 작업반 (IWG) 회원 및 ECE/ILO 공동 소비자물가지수회의 주최자와 협의

## □ 참고

### 물가통계관련 IWG, 오타와 그룹, ECE/ILO 공동 소비자물가지수회의의 역할

- ECE/ILO 공동 소비자물가지수회의는 물가통계 분야의 견해 및 경험 교환 및 우수사례 식별의 기회를 국가 전문가에게 제공. 동 회의는 ILO 통계국 및 유럽통계인회의에 보고
- 동 회의는 국가통계기관 소비자물가지수 수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슈에 초점. 자료의 수집, 처리, 보급 등 모든 단계에 대해 논의(재원 및 구조적 쟁점사항 포함). 격년제로 개최
- 동 회의는 통계기관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우수사례에 대한 논의 및 권고 사항 마련을 목적으로 함. 의제는 수요 주도적으로 결정. 조직위원회가 국가 대표에게 받은 제안서를 토대로 향후 아젠다 항목을 정함
- 2004년 출판된 국제소비자물가지수매뉴얼 사업 및 매뉴얼의 전자식 버전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 국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중요한 포럼의 장
- 회의 참석 : 80-100여명 참석
  - ECE 회원국 국가통계기관 전문가
  - ILO에 의해 초청된 아시아, 아랍권 국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국가 통계기관 대표
  - IMF, OECD, ILO, Eurostat의 전문가
  - 중앙은행 대표
  - 오타와 그룹 및 IWG 회원
- 사무국간 작업반 및 기타 국제기구에 통계기관의 소비자물가지수 수집과 관련한 활동, 문제 및 필요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포럼을 제공. 향후 아젠다 제안서뿐만 아니라 보고서 및 권고사항도 IWG에 제출

## □ Ottawa Group

- 물가지수관련 국제작업반으로 1994년 창립
- 전문가들의 경험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포럼을 제공
- 물가변화측정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
- 주로 소비자물가지수 부문의 응용연구에 집중
- 전문가, 국가통계기관, 국제기구 실무자 등 참여
- 통계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격년제로 회의 개최
- 통계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20-40여명이 참여
- 논문 발표가 요구되기도 함
- 의제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동의 (현재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의 통계청 대표로 구성)
- 지난 10년 동안 물가지수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
- 국제기구 대표가 오타와 그룹 회의에 주로 참석
- 요약서(결론 및 권고사항 포함), 제출된 논문이 [www.ottawagroup.org](http://www.ottawagroup.org)에 게재

## □ 물가통계에 대한 IWG

- ECE/ILO의 소비자물가지수 권고와 ILO통계국 협조하에 1998년 설립
- 물가통계의 국제표준 개발 조정 업무 담당
- 소비자물가지수 및 기타 물가통계(생산자물가, 국제교역물가지수)관련 국제매뉴얼 개발 및 수립
- 다양한 물가지수간 혹은 물가지수와 기타 관련 경제/노동통계간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물가통계체계의 개발 보조
- IWG 활동책임범위의 2005 개정 목표
  -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매뉴얼 개발 및 이행(매뉴얼의 전자식버전개정 포함)
  - 기타 물가통계(수출/입물가지수, 부동산물가지수) 표준 및 매뉴얼 준비
  - 우수사례이행, 교육/기술원조관련 정보공유, 사업 중복 회피 등 국제기구의 사업 조정
  - 물가통계체계의 개발 보조
- 구성 : IMF, ECE, ILO, OECD, Eurostat, WB
- 동 그룹은 사업운영 시 전문가를 초빙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2009년 오타와 그룹 회의에 참석

## 물가지수에 관한 의견

### □ 보고서 내용

- 오타와그룹에 대한 연혁, 역할, 그동안 추진실적 보고

#### <오타와그룹(Ottawa Group on Price Indexes)>

- 소비자물가 관련 국제회의는 ①The joint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ECE)/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on Consumer Price Indexes, ②오타와그룹, ③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Price Statistics(IWGPS) 등이 있음
- 1994년에 가격변동 측정에 대한 연구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설립된 모임
  - 우리나라,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7개국 및 OECD, ILO 등 국제기구로 구성
  - 초기 매년 개최에서 2년 주기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총 11회 개최
  - 현재 호주통계청이 회의 주최국으로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
- 각국의 통계청 직원이 참여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작성방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ECE/ILO(2010년 5월 개최예정)과 달리 특정논문 발표 및 토론이 목적인 전문가 그룹

- 2009년(스위스) 회의에서는 주택가격, 가중치 조정, 측정이 어려운 상품 측정, 최하위단계의 지수작성, 근원물가 등을 주제로 토론
  - IWGPS의 수출입물가지수 등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매뉴얼, 주택조사핸드북 등에 대한 연구결과 포함

### □ 우리청 참여 및 활용

- 2001년 헤도닉품질보정논문을 발표하여 참여하였고, 오타와그룹에 발표된 논문의 번역 및 학습을 통하여 물가동향과 직원들의 국제동향과악 및 업무능력 제고에 활용
- 2011년 뉴질랜드회의 참가 예정(한국은행은 지금까지 미참여)

### □ 보고서관련 제안 사항

- 오타와그룹의 '09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제안사항 없음

## 23) 비공식부문 통계

### “비공식부문 통계에 대한 Delhi Group 보고서”

#### □ 델리그룹 배경

- 비공식부문 통계관련 전문가 그룹
- 1997년 UN 통계위원회 City Group으로 창립
- 비공식부문의 다양한 방법론적 이슈 해결을 도모
- 인도 통계프로그램이행부의 장관이 의장을 맡음

#### □ 2007년 10차 회의

- 10차 비공식부문 통계관련 전문가그룹(델리그룹) 회의가 ILO주관으로 2007.10.8~10일 제네바에서 개최
- 회의 의제
  - 비공식취업 및 비공식부문 조사 매뉴얼: 경과보고서
  - 동 매뉴얼의 1-5장 및 10장의 초안 논의
  - 업데이트된 SNA의 비공식부문(24장) 초안 논의
  - ISIC 경제활동 중 비공식부문을 위한 대안체
- 초안 및 기타 의제의 대체적인 개요 승인과 동시에 동 의제관련 내용 및 구조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 제언
- 동 매뉴얼의 초안을 담당할 팀은 10차 델리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초안을 적절히 개정하고 나머지 장(6-9장)의 초안을 담당. 완성된 매뉴얼은 11차 회의 이전에 그룹에 제출 예정

#### □ 2010년 11차 회의

- 11차 델리그룹 회의는 2010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제안
- 비공식부문 및 비공식취업 관련 매뉴얼 초안, 그룹의 향후 활동방향이 논의될 예정

## 비공식부문 통계에 관한 의견

### □ 총 평

- **(고용통계과)** 전반적으로 10차 비공식취업 통계에 대한 전문가 그룹 회의('07.10.8~10, 제네바, 스위스)에서 논의된 Delhi group의 향후 주요작업 방향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comment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은행)** 여타 非觀測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부문의 정확한 측정은 GDP 추계치의 완결성 제고에 긴요한 과제로서 그간의 비공식 부문 통계에 대한 델리 그룹의 연구 성과를 높게 평가함

### □ 논점 (a): 2장(개념, 정의, 하위분류)

- **(고용통계과)**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비공식취업과 decent work를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효율적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우 유용함. 따라서 이 둘의 개념과 관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필요

비공식취업의 정의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지만, 각 국가별 고용사항이 다른 만큼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 논점 (b): 3장(측정목적과 데이터수집 방법)

- **(고용통계과)** 비공식 취업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방법(노동력조사, 사업체조사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조사항목을 메뉴얼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음

비공식취업 측정은 가구조사인 노동력조사를 통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비공식 부문에 대해서 국민계정(GDP) 추정에 필요한 2단계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국은행)** 한국의 경우 GDP 추계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에 자영업자 등 가계소유 비법인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GDP에 누락된 비공식부문 생산은 크지 않음

예컨대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통계청의 연간 서베이 자료와 국세청의 자료는 개인사업체를 포괄하고 있음



□ **논점 (c): 4장(비공식부문취업과 기타 형태의 비공식취업에 관한  
가구조사)**

- **(고용통계과)** 가구조사와 기업체조사 혹은 혼합조사 각각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각 조사간의 관계나 상호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향후 통계청이 비공식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非觀測 경제측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Comments on Report of the Delhi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

### **Overview**

-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generally agrees with the 「Manual on Surveys of Informal Employment and Informal Sector」 by tenth Delhi group meeting and our comments on the related issues are as follows.
-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highly appreciates the contribution of the Delhi Group on informal sector statistics, which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for achievement of exhaustive GDP estimates like other non-observed economic activities.

### **Discussion Point (a): Chapter 2(Concepts, Definitions and Sub-classification)**

- (Statistics Korea)
  - Regarding a recent issue of flexibility in labor market, it is useful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informal employment and decent work to make an efficient labor policy. Thus supplementing materials are needed to explain in detail.
  - The basic guideline for the definition of informal employment is necessary, but it should be decided under each country's condition because the employment conditions are different by country.

### **Discussion Point (b): Chapter 3(Concepts, Definitions and Sub-classification)**

- (Statistics Korea)
  -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 of informal employment survey, necessary data items according to survey methods should be enlisted.
  - It is proper that the measurement of informal employment should be done first through labor force survey and then secondly, detailed survey should be done to estimate GDP.

- (The Bank of Korea)
  - In Korea, informal-sector production which is not captured in GDP estimation is not so large, because main GDP source data provides production data on household unincorporated enterprises including the self-employed.
  - For example, Statistics Korea's annual survey data, such as Report on the Survey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port on the Service Industry Survey, and the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cover household unincorporated enterprises.

**Discussion Point (c): (Household Survey on informal Sector Employment and other types of informal Employment)**

- (Statistics Korea)
  - It needs to be explained the relationship and complementarity between household survey and establishment survey.
- (The Bank of Korea)
  - If Statistics Korea should provide more detailed employment statistics on the informal sector in the future, it would facilitate the measurement of the non-observed economy including the informal sector.

## 24) 통계경제통합

### “경제통계의 통합에 관한 FoC 보고”

#### □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FoC\*의 책임 및 목적

-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FoC는 집중형 및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지는 자료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책임이 있음
  - \* Friends of Chair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 및 민간 의사 결정자에 의해 사용되는 자료의 일치성, 정확성 및 관련성을 증가시켜야 함
- 동시에 현재 수집 중에 있는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야 함
- 2011년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완료하는 것이 동 그룹의 목적임

#### □ 2008년 FoC 보고서 결론

- 경제통계의 통합은 통계조정과 관련. 조정은 주요경제통계, 거시경제계정, 장·단기 경제통계, 국가·국제경제통계를 포괄. 개념적, 통계적 생산 및 제도적 이슈도 포함. 인적자원 및 IT 이슈 또한 고려
- 경제통계통합은 자료의 일치성 및 일관성을 위해 사용자 요구에 의해 주도됨
- 통합경제통계에 대한 단독의 세부이행 접근법을 보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국가통계시스템이 상이)
-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마련이 통합경제통계의 관리를 위해 중요하며 유사한 개혁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함

#### □ FoC의 권고사항

- 경제통계의 조정체재(體裁)로서 SNA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민계정관련 국가간 작업반에 의해 업데이트된 SNA의 이행전략 설계 시에도 고려되어야 함
- 통계위원회와 통계활동조정위원회는 유엔통계처와 협력 하에 경제통계의 통합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제통계 분야에 종사하는 국제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해야 함
- 유엔통계처는 위임사항에 관해서는 통계위원회와 협의 하에, 실제사업에 관해서는 관련 국제기구 및 초국가기관과 협력 하에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해야 함(통합경제통계의 실례관련 사

- 레연구 포함). FoC의 연구세션 관련 자료 및 개념서 초안을 참고함
- 유엔통계청은 추가통합이 유용할 통계분야 선정을 이끌기 위해 추가 연구를 추진해야 함

## □ 권고사항관련 대응

- 동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2차 FoC 형성(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주도)
- 동 그룹은 미국 경제분석국이 의장을 맡고 구성은 국가기관 및 국제기관을 대표하는 활동 회원으로 함
- 현재 캐나다통계청, 네덜란드 통계청, 뉴질랜드 통계청, 남아프리카 통계청, IMF, ECB, Eurostat, OECD, UN으로 구성

## □ 개발 중인 가이드라인 초안

- 1차 그룹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토대로 함
- 동 가이드라인은 경제통계관련 전반(단기지표에서 국가적·국제적 거시경제지표까지)에서의 일치성 및 일관성에 초점
  - 관련 개념, 생산, 및 제도적 이슈가 해결되어야 함. 동 이슈는 일치성 정의, 질문지, 분류, 표본틀 사용에서부터 국민계정에서의 일관적 개념 및 비교가능한 기술의 사용까지를 아우르고 있음
  - 인적자원 및 IT 이슈 또한 제안된 통합전략 및 사례연구에서 해결 중에 있음
- 일치성 및 일관성 성취시 사용자 필요가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 통합 성취 시 사용자 필요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텍스트 및 사례연구 예가 사용되어짐
- 가이드라인은 통계기관의 전 범위에서 경제통계의 조정을 위한 실질적 조언뿐만 아니라 일반적 지도 지침을 나타냄.
  - 그 범위는 생산 전 과정(표본틀에서 거시경제통계까지)을 관리 가능하고 집중형의 기관에서 분산형의 통계기관을 포괄함
  - 가이드라인은 여러 기관들이 다른 표본, 추출틀, 개념 및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다량의 자료를 조정해야 함
- 가이드라인은 조정체재로서 SNA 및 타 국제 매뉴얼을 사용함. SNA 이행시 기관과 국가 간의 조정의 핵심 역할 및 거시·미시경제통계를

조정할 시 기타 가이드라인을 논의함

- 2차 FoC는 제출된 초안의 그룹검토를 위해 2009.12.7~9. 워싱턴에서 회의 개최
  - 최초의 보고서, 권고사항, 미해결 사안의 분류 및 추가적인 변동과 함께 일치성 논의를 위해 초안 챗터 제출
  - 2011년 제42차 통계위원회에서 고려사항으로 최종의 정식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음

##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의견

- 경제통계 통합에 대한 UN 통계위원회에서 마련한 잠정 가이드라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각국별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지침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

※ 통계 자료의 갱신에 대한 UN 잠정 가이드라인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 통계 기관은 정보를 반영한 갱신된 통계를 공표한다.

### ○ 우리나라의 특수성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지표는 시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표 이후 기준년 변경 및 추가적인 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갱신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 지표의 경우 공표 이후에 실행하는 갱신은 통계수치에 대한 정확성의 결여로 보는 시각이 있어 갱신의 어려움이 있음

### ○ 경제통계의 통합 준비

- 과거에는 국세자료 활용이 불가능하여 조사자료(기업체 및 사업체조사)만을 이용하여 기업 등록 명부(business register)를 작성했으나, 기관간 협의(국세청)에 의하여 2010년부터 행정자료(국세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좀 더 포괄적인 기업 등록 명부(comprehensive business register)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음

---

## Comments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

※ UN draft guideline for comprehensive business register:

For data sharing and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we need to compile comprehensive business register.

□ While Statistics Korea generally agrees with the 2008 Report of the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we suggest this guideline should be presented as a comprehensive one that considers each country's characteristics.

### ○ **Korea's Characteristics**

- In Korea, because short-term indexes require timeliness, the revision of short-term indexes owing to changes of standard year and additionally obtained data can be partially admit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change long-term indexes after publication because of the possible perception of a lack of statistical accuracy.

### ○ **Preparation of integration of economic statistics**

- Since tax report data were unavailable, we had to rely solely on survey data for constructing our business register. Following a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Statistics Korea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for data sharing, we can now use the tax report to compile a comprehensive business register beginning in 2010.



## 25) 정보통신기술(ICT) 통계

### “발전을 위한 ICT 측정 파트너십 보고서”

#### □ 개요

- 2010년은 2015년 밀레니엄발전 목표(MDG)와 정보사회회의(W SIS)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ICT 통계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
  - \*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2004년 발족 이후 ICT 측정을 위한 파트너십은 UN통계위원회에 매년 정식의제로 경과보고를 해오고 있으며, 통계위원회는 교육부문·정부 내 ICT 사용측정과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측면에서 파트너십의 업무를 장려함.
- 2008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지속적인 ICT측정업무를 권고한 바 있고, 제41차 통계위원회는 국제 목표달성을 위해 ICT통계의 가용성 강화방안에 대해 제의함.

#### □ ICT 측정 성과보고 : 방법론 관련

- 유네스코통계국(UIS)는 방법론적 도구(methodological tools) 인증을 위해 교육 분야 ICT통계실무그룹(WISE)을 설립, 견본질의를 이용한 예비조사를 실시함.
  - \*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WISE- Working Group on ICT Statistics in Education
- UIS 예비조사 검토가 2009년 부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방법론적 도구들은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 도출.
- e-정부 파트너십 실무그룹(TGEG)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토론, e-정부 핵심지표(Core Indicators) 조사 등을 추진하며 TGEG의 지수검토는 2010년 4월로 예정.
  - \* TGEG : Partnership Task Group on e-Government
- 파트너십은 ICT정책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지원의 중요성 논의를 위해 포럼을 개최(W SIS Forum 2009, 제네바)하였으며 ICT 마이크로데이터와 사용지표 등 더 나은 통계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의.
- Eurostat은 경제에 미치는 ICT의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국가 통계청이 사용했던 마이크로데이터의 비교연구 운영
- 2009년 제7차 세계통신/ICT지표회의(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meeting)를 계기로 ICT인프라 검토, 지표 및 자료수집 방법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설립되고 최종작업을 진행중.

- ITU는 2009년 3월 ICT발전지수(IDI : ICT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함.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 ICT 측정 성과보고 : 능력배양 및 데이터보급 관련

- TGCB(파트너십의 역량강화 TF)는 지속적으로 각국으로부터의 지원요청을 주시하고 회원들 간의 시너지를 강화시킴.
- ITU는 ICT 가구통계에 관한 ITU의 트레이닝 과정에 기초해 참고자료로 사용가능한 'ICT접속과 가구 및 개인사용 매뉴얼'을 제공.
- ITU와 UNCTAD는 전문가 트레이닝을 실시(제네바, 2009)하고 개발도상국에서 ICT 통계 트레이닝 과정 교육을 위한 전문가양성을 지원함.
-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ICT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파트너십은 정기적으로 UN 데이터 포털에 핵심 ICT 지수에 관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성 증대를 추구

## □ 결론

- 2015년 최종목표년도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올해에도 여전히 ICT 통계에 격차가 있어 ICT통계자료의 수집 및 배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파트너십은 각국이 ICT 통계를 국가통계전략과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국제비교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기초한 ICT 방법론을 조성하도록 권장함.

---

## ICT통계에 관한 의견

---

동 보고서는 200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전을 위한 ICT 측정 파트너십(旧 명칭: 정보사회 측정을 위한 파트너십)'의 실적에 관한 것임

### □ 논점 A : 방법론 작업

- UIS, World Bank, TGEG, OECD, UN지역위원회 등과 같은 파트너십 참여기구의 ICT 지표개발 노력에 경의를 표함
- 특히 2009년 3월 ITU가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는 2007년부터 2년여 간의 수정 작업과 192개 UN 회원국 전문가들의 온라인 포럼참여 등으로 폭넓은 동의를 얻은 지표로 구성된 지수임
- 따라서 2009년 제40차 UN통계위원회에 제출된 기초 핵심지표(Basic Core Indicator)중 일부 지표는 IDI에 이용된 해당 지표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기초 인프라 및 접속 핵심지표 중 기초 핵심지표의 하나인 '인구당 국제인터넷 대역폭'은 지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IDI 지표인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으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

### □ 논점 B : 역량강화

- UNCTAD, ITU, OECD, UN지역위원회 등이 개도국의 ICT 통계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교육과 매뉴얼 발간에 감사함

---

## Comments on the Partnership on Measu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

### **Discussion Point (a): Methodologies**

-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gratitude for the efforts of partnership organizations such as UIS, World Bank, TGEG, OECD, and UN regional committees for developing the ICT Development Index.
- The IDI(ICT Development Index) which the ITU announced in March 2009 is especially essential as it a composition of indicators which required 2 years of modifications prior to obtaining the consent of 192 UN member countries through online participation.
- Therefore some basic core indicators which were submitted during the 40th UNSC in 2009 should be replaced with appropriate IDI indicators.
-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per inhabitant' which is one of Basic Core Indicators in Core indicators on the ICT infrastructure & access must be revised to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per Internet User' to ensure the validity of indicators.

### **Discussion Point (b): Capacity-building**

- Statistics Korea appreciate the efforts of the UNCTAD, ITU, OECD, UN regional committees to train and publish manuals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 26) 통계역량강화

### “통계작성체계 구축에 관한 PARIS21활동보고”

#### □ 2009 PARIS21 성과

- 지역별 프로그램 활동지원
- 통계지원도구의 지원 및 개발
- 원조협력활동의 장려
- NSDS(국가통계 발전전략) 방법론 개발
- NSDS 설계 및 이행관련 국가별 경과보고
- 위성 프로그램

#### ※ PARIS21 :

개도국 발전에 통계역량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통계관련 주요국제기구간 파트너십으로 그간 개도국의 NSDS<sup>2)</sup>수립, 워크숍 및 회의개최, 국제회의참석 등을 통해 역할강화를 추진

#### □ 지역프로그램

- 소규모 섬국가('09.2.뉴욕), 아랍국가('09.5,이집트), 카리브해국가('09.7.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위한 지역 NSDS세미나 주최
- 앙골라,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등 22개국을 직접적으로 원조

#### □ 통계지원도구의 지원 및 개발

- 통계지원툴킷(START\*) 완성
  - \* Statistical Advocacy Resource Toolkit
- UNECA와 공동으로 성인지통계 관련 영화를 제작 등

#### □ 원조협력활동의 장려

- 2009 PRESS 보고서\*의 2007-2009 실적
  - 총지원의 반이상을 아프리카가 수급
    - 아프리카: US\$422M (총지원의 54%)
    - 아시아: US\$150M (19%)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US\$71M (9%)
    - 유럽: US\$48M (6%)
    - 글로벌, 비특정국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US\$95M (12%)
  - 유럽위원회, 세계은행, 영국이 총지원의 반이상을 제공

2) 빈곤감소 전략, MDG달성 등과 같은 국가개발정책 수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개도국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 13개국(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브르키나 파소,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수단, 탄자니아,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총지원의 40%를 차지

\* Partner Report on Support to Statistics

## □ NSDS 방법론 개발

- 방법론 연구
  - 개도국 국가통계시스템 개혁의 성공요인(튀니지 사례)
  - 국가통계활동의 재정지원, NSDS 설계 시의 품질 접근법
  - 사용자 중심의 통계정보서비스 방안(노르웨이 통계청과 공동 연구) 등

## □ NSDS 설계 및 이행관련 국가별 경과보고

- 79개 IDA(국제개발협회)\* 차용국 중 24개국이 현재 NSDS 설계를 진행 중이거나 정부채택을 기다리고 있고 36개국은 NSDS를 이행 중에 있음.(약 75%가 NSDS에 참여)
- 아프리카는 40개국중 36개국이 NSDS를 설계중이거나 이행중에 있음
- 39개 중하소득 국가(lower-middle) 중 31개국이 설계 중이거나 이행 중에 있음
- 보고서에 포함된 118개국 중 9개국(8%)만이 전략이 없거나 현재 계획이 없음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 위성 프로그램

- PARIS21 사무국은 2개의 위성프로그램을 이행(국제가구조조사네트워크, 자료개선프로그램(Accelerated Data Program))

## □ 2009 PARIS21 컨소시엄 회의 결과

- 2009.11.16~18.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100개국, 400명 이상 참가)
- 개도국의 통계발전 상황, 해결되어야 할 사업 결정, 향후 10년간 협력기관 및 국가의 역할 및 책임 등 논의
- 통계발전에 대한 다카르선언(Dakar Declaration) 승인
  - 목표 해결 및 관련이슈의 협력 실행을 위한 5개 요구사항을 약속
  - 발전전략의 이행, 통계기술 및 재원의 동원, 공여국의 통계지원 조정, 통계이용자의 요구 충족, 통계도구 및 방법론의 개발
- PARIS21 조정위원회는 2010-14년의 5개 목표와 신전략을 승인
  - 증가된 통계수요 및 통계자료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
  - 변화된 아젠더에 대처하기위한 이해관계자의 조정활동을 촉진
  - 통계발전에 있어 국가 관계자의 참여확대를 지지
  - 고품질 및 국가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
  - 주요 국제 의제에서 통계의 중요성 고양

## □ 향후 PARIS 사업 방향

- 다카르선언의 이행 및 모니터링
- SPC\*와 공동으로 태평양 섬나라의 국가통계전략을 위한 고위급포럼 개최
  - \*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 약소국 및 전후국가의 통계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10유엔통계위원회 특별 추가회의(special side meeting)를 개최
- NSDS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해 TF 소집
- FAO와 공동으로 4개국에 농업통계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을 제공
- 국가차원의 NSDS 활동지원을 지속하고 PRESS\* 2010라운드를 수행
  - \* Partner Report on Support to Statistics

## 통계역량강화에 관한 의견

### □ PARIS21 활동 관련 한국통계청의 입장

- 개도국의 통계활동을 점검하고 통계기반 의사결정 확산을 촉진하고자 설립된 “21세기 개발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IS21)”의 2010년도 활동방향에 적극 동의함
- 이는 최근 한국의 OECD DAC가입, 한국정부의 ODA증액계획, 그리고 한국 통계청의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역할증대 방침과 일맥상통함.
- 특히 올해는 PARIS21이 개도국 기술협력사업에 한국통계청의 참여를 공식 요청해 온 바 있음.(‘10.1월, Mr. Mohamed Berrou)
  - 따라서 우선 금년 6월초 개최되는 PARIS21집행위원회에 업저버로 참석하여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 향후 PARIS21과 협력하여 우리청의 경험전수와 개도국 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 Comments on PARIS 21 Report

---

- Statistics Korea strongly agrees with the work of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PARIS21)'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the statistical activ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ing a culture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 These relate strongly with Korea's environment and policies, as evidence in its recent involvement on the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Korea government's plan of expanding ODA program, and Statistics Korea's plan of strengthening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society.
- In particular, this year PARIS21 has officially asked Statistics Korea to participate in the technical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January 12, 2010, by Mr. Mohamed Berrou, Manager, PARIS21)
  - Therefore, Statistics Korea will attend the PARIS21 executive committee meeting on this June as an observer to discuss cooperation projects.
  - In addition,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address its intent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by sharing our experiences with them in close cooperation with PARIS21.

## 27) 통계프로그램 조정 및 통합

### “통계활동조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 개 요

- 동 보고서는 2009년 개최된 2개 회의의 주요 결론 요약
  - 제13차 회의: 2009.2.23. 미국, 뉴욕(40차 유엔통계위원회 시)
  - 제14차 회의: 2009.9.9~11. 태국, 방콕
- 제40차에서 검토·승인된 국제기구 간 자료공유원칙(Modalities) 첨부

#### □ 제13차 회의 결과

- PARIS21의 Partner Report on Support to Statistics(PRESS) 검토결과를 논의하고 PRESS를 개발파트너간 효과적인 협력도구로 인정
- 위원회의 우려사항
  - PRESS질문지에 대한 낮은 응답률, 회원국 및 UN기구의 무응답
  - 자료의 신뢰성(원조공여국의 무응답, 중복답변 유도 등)
- PARIS21에 PRESS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및 개선 로드맵 제출을 요청

#### □ 제14차 회의 결과

- PARIS21은 자료수집, PRESS 결과의 처리 및 분석과 관련한 PRESS 개선 계획안을 동 회의에 제출
- PRESS를 기획 및 조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접근성이 중요
- 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PRESS 사용 사례의 시연을 하도록 제안
- 위원회는 응답률 개선, 질문지 간소화, 중복산정 방지 등을 위한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
- 위원회는 회원국, 특히 UN기구들이 2009 및 향후 PRESS 라운드에서 응답율을 향상시키도록 촉구

#### □ 국제기구의 통계품질에 관한 2010 컨퍼런스

- 제13차 위원회
  - 글로벌통계시스템의 거버넌스가 주요 이슈로 고려되며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규세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통계시스템의 거버넌스 및 위원회 역할에 대한 0.5일 특별세션을 제14차 위원회에서 개최
- 제14차 위원회
  - 국제기구의 통계품질에 관한 2010 컨퍼런스 개최에 합의

- 2010 유럽품질컨퍼런스(European Quality Conference)와 연계하여 5.6~7일에 핀란드(헬싱키)에서 개최
- 동 컨퍼런스는 국가품질보증체계(NQAF)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 기여하고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리직을 대상
- 조직위원회는 Eurostat, UNSD, UNHSP(유엔인간정주계획), AfDB로 구성
- CCSA 특별세션 개최에 합의
- 2010년 9월 제16차 CCSA위원회에서 인적자본 특별세션이 예정
- OECD, UNESCO, Eurostat, WB, UNHSP 등이 팀 구성원으로 자원
- 특별세션 준비상황보고서가 '10.2월 제15차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 통계인 네트워크
- UNESCAP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통계인들의 네트워크 수립을 제안 · 주도, UNODC(유엔마약범죄기구), WB, Eurostat가 참여자원
- 네트워크 수립 전략은 제15차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 □ 글로벌통계시스템의 거버넌스 및 위원회의 역할

- 제14차 위원회 특별세션에서 논의
  - 글로벌통계시스템의 거버넌스는 국가의 영역이며 국제기구는 새로운 아 이템제안, 시스템 기능관리, 표준이행 지원에 중심적 역할
  -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뒤쳐져 있으며 글로벌통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품질, R&D, IT, 자료배포, 교육tool 등 '수평적 이슈'와 주제와 관련된 '수직적 이슈'의 구분이 유용하며, 위원회는 수평적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의됨
  - 위원회는 '글로벌통계시스템의 조정, 정보공유 및 관리' 등 3가지 역할을 수행
  - 신 프로젝트로 글로벌통계시스템을 보완하고 회원국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 유지 및 유엔통계위원회에 조언
- FoCG (Friends of the Co-chairs Group) 창립에 합의
  - 사무국 설치에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FoCG 창립에는 합의
  - WB, FAO, ILO, UNCTD, OECD가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제15차 위원회('10.2월)에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로드맵을 보고예정

## □ 국제기구간 자료공유 원칙(Modalities)

- 위원회는 데이터·메타자료 공유의 '일반적 비구속적 관행의 원칙'(principle of general non-binding best practices)에 동의

- 국제기구 간 이용가능한 자료 및 메타자료의 공유는 무료여야 하며 우수사례는 미세수정 후 채택

## □ 응답대체(imputation)/추계에서 국제기구의 비공식자료 사용

- 응답대체 및 추계에서 국제기구 비공식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유의점
  - 국가통계(특히 결측자료) 및 지역통계 작성시 국제기구에 의해 쓰이는 응답대체/추정의 필요성과 이슈를 식별할 것
  -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선택기준 및 우수사례를 수집할 것
  - 만족도, 범위, 형식, UNSD 보고가능 시기 등을 평가할 것

## □ 국제기구의 인구추계자료 사용 관련

- 국제적으로 합의된 연간인구통계 표준 수립은 시기상조
- 인구추계의 메타자료 범위 및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SDMX 채택 권고
- 연간인구추계의 시스템적 작성과 배포를 위하여 구조화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제안

## □ 기타 이슈

- Eurostat
  - 회원국은 디렉터리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
  - 국제기구 품질관리체제 가이드라인의 신버전 개발 및 국제통계처리평가점검표(ISPAC) 개정판 경과보고
- 세계통계의 날
  - 2010.10.20. 세계통계의 날 축하행사 계획 발표(UNSD)
  - 회원국에 웹사이트에 게재할 포스터, 브로슈어 등 홍보자료 요청
- Web-based 국제통계표준 인벤토리 개발
  - 멕시코 통계청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최근 세계통계커뮤니티에 영어 버전을 기증
  - 제41차 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이 보고(의제14번)
- 2009.2월 UNESCAP 회의에서 지역 통계활동조정위원회가 수립되는 등 지역내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수행

○ 통계지리정보

- 현재 지리정보분야의 국제표준은 분산되어 있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효율적 조정 및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은 부재
- 통계위원회는 동 문제를 제41차에서 논의 계획

□ 차기 공동의장 추천

- 제14차 위원회에서 2010-2011년 공동의장으로 Mr. Pieter Everaers(세계은행 추천), Mr. Henri Laurencin(UNESCAP추천)을 선출

## 통계프로그램 조정에 관한 의견

### □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 활동방향에 원칙적 동의

- 한국통계청은 각국 통계시스템 거버넌스는 각국의 역량에 일임하고, 국제기구는 글로벌시스템의 기능관리와 국제표준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함
- 이를 위해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통계역량 개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통계청도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 국가 및 SIAP집행이사국의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공동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 세계은행 및 OECD와 협력하여 향후 2년간 아·태지역,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해 OECD Global Project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UNSIAP과 공동으로 아·태국가 통계공무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담금도 2009년 1.7만불에서 2010년 5만불 수준으로 증액함.  
※ 2010년 계획 : 장애보건통계, MDG database, 연구기반지역과정 등
- 독일통계청과의 컨소시엄으로 2010~2015년까지 세계은행의 '몽골 국가통계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예정.(세계은행지원금 총 3.1백만불)
- KOICA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확대 계획 등

---

## Comments on Work of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

### □ **Statistics Korea agrees with the 'Work of the CCSA'**

- Statistics Korea basically agrees with the 'Work of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CCSA)', which place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ance matters of a statistical system to the discretion of each country. Whi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lay an core role in supporting the functional management of the global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 To this end, Statistics Korea believe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devote specific efforts aimed at the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 Statistics Korea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oint programmes as a member of the Bureau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and Executive member of UNSIAP.
- In particular, taking the opportunity of Korea's recent involvement on the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last November, Statistics Korea is planning to actively promote statistical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clos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OECD.

### □ **Statistical Technical Assista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 Statistics Korea is carrying out OECD Global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the OECD Statistics Directorate and World Bank including the training of statistical offici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of Asia/Pacific and Africa for the next 2 years.
- Statistics Korea is continuously providing training courses in collaboration with UNSIAP for statisticians from the Asia and Pacific region, and Statistics Korea has increased its share of UNSIAP expenses from US\$ 17,000 in 2009 to US\$ 50,000 in 2010.

※ 2010 courses : Disability and public health statistics, MDG database, Research-based training

- Statistics Korea is planning to conduct the MONSTAT project (Strengthening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of Mongolia) together with Destatis(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through the financing of the World Bank for the period of 2010 - 2015.(Total US\$ 3.1 million)
  
- Lastly and most importantly, Statistics Korea is planning to expan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in collaboration with financing by KOICA.

※ 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28) 국제경제사회 분류

### “국제 경제사회 분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 개 요

- 동 보고서는 최근 경제사회분류 분야 주요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주요내용은 2007년 이후 ISIC, CPC, ISCO 및 ISCED 개정관련 주요활동 내용과 2009년 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회의 주요논의내용임

#### □ 국제기구 추진 주요활동

##### ① UNSD

- 최근 개정된 ISIC, CPC 실행통 관련 작업 지속 및 기술지원 활동 추진
  - ISIC 개정4판 실행가이드 등 작성, 신·구대비표(상호비교테이블) 작성
  - CPC개정2판 알파벳 인덱스 개발 및 보급, 워크숍 개최
- 2010년 초 개정분류 활용현황과악을 위한 조사 추진
- ISIC 개정4판 번역완료 및 배포, 환경관련 분류추진, 핫라인 운영 등

##### ② ILO

- ISCO-08 분류구조 인터넷 공지('08년), ISCO-08 세부정의 초안공개('09.7)
- 신규비교표 작성, 직업명 영어인덱스 공개(예정)
- 직업분류관련 지역차원의 교육, 기술지원, 자문 추진  
(필요시 매뉴얼 및 훈련교재 준비 제안)
- ICSE-93검토 착수

##### ③ UNESCO

- '07년 10월 UNESCO 34차 총회에서 교육시스템구조의 변화측면에서 ISCED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UNESCO통계연구소는 12명의 교육전문가, OECD 및 Eurostat등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
- 1차 회의에선 관련이슈를 규명하고 우선순위 조정, 제안확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2011년 총회제출 권고안에 대한 일치된 의견도출
- ISCE개정판은 2011년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현재 개정초안은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서 접근가능

#### ④ FAO

- FAO, WCO등 HS 개정제안 검토추진
- HS2012는 농수산물 320개 품목관련 개정내용을 담은 예정
- 동 개정으로 농수산물 통계의 품질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HS2012가 식량안보와 조기경보관련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관련 개정은 CPC 개정2판에 근거, HS와 CPC간 연관성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생산 및 교역통계의 비교를 촉진할 것임

#### □ 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 그룹

##### ① 설립개요

- 제30차 통계위원회에서 국제경제사회분류전문가 그룹에 분류개정, 현 국제 분류와 개별국가 분류체계 통합준비 및 기본원칙검토 역할을 부여
- 전문가그룹 당초 업무계획은 ISIC 및 CPC개정과 관련 수립되었음

##### ② 2009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그룹 회의

- '09년 회의(9.1~9.4) 개최되었으며 분류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
- 검토 중인 분류의 기술적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를 권고
- 전문가 그룹은 새로운 기준의 준비 및 평가와 기존분류의 개정에 필요한 판단근거의 필요성 강조

##### ③ 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 분과위원회에서 표준분류로 분류되고 FIC에 소속되며 비교분류로 위치되기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 검토. 우선 '99년에 마련된 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새로운 요건의 필요성 검토

##### ④ 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회의의 임무 및 업무추진

- 전문가그룹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완료. 새로운 역할,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위한 임무개정안 준비 중
- 검토과정에서 전략적이고 공식적인 접근을 통해 전문가그룹의 업무범위, 역할 및 의사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개정임무에서 전문가 그룹 운영구조를 고려 미팅 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동하고 이를 위해 위원단 설치도 고려

#### □ 결론

- 보고서 제출당시 개정임무(안)이 미완성 상태여서 제출치 못함.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 통계위원회 세션에서 처리권고

---

## 국제경제사회분류에 관한 의견

---

- 대한민국 통계청은 한국형 중앙생산물분류를 개발할 계획이 있음
-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comment는 다음과 같음
  - 국가차원에서 중앙생산물분류 개발 및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엔통계처의 중앙생산물분류, 유럽 및 미국 등의 생산물분류 경험을 토대로 한 매뉴얼/가이드를 유엔통계처에서 작성해줄 것을 바람

### <참고>

#### 4 한국생산물분류 개발 필요성

- 공급(생산) 측면 분류인 표준산업분류를 보완하는 표준적인 수요(시장) 측면의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분류는 각종 경제통계분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각종 경제통계의 활용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계인 프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함
- 국제기준(CPC)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및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개발 필요

#### 4 주요활용

- 광업·제조업통계 품목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
- 국세청의 업종코드(6자리) 개편 등을 위한 기초자료
- 산업활동-무역 등 자료의 비교·분석 수단 제공

---

## Comment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

- Statistics Korea has a plan to develop a national version of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 It would be a great help if the UNSD could provide guidance, preferably in the form of a manual detailing each phase of product classifications development, including prior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 29 ) 경제사회이사회 정책결정 후속조치

### “통계위원회 업무 관련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책결정”

#### □ 7개 분야

- 주요 UN회의 결과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후속정책
- 경제사회이사회의 연차별 검토 수행을 위한 다년도 실행프로그램
- 국가통계역량 강화와 2010세계 인구주택센서스 수행을 위한 이사회의 후속정책
- 특정 범죄 트렌드의 정보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강화
- 성인지관점(gender perspectives)의 주류화
-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 장애인을 위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인식

#### □ 경제사회이사회의 요청 내용과 통계위원회의 정책실행 내용

- 경제사회이사회는 주요 UN회의 결과 실행의 체계적 조정을 위한 중심 메커니즘으로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재확인
  - 이사회는 발전지수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논의해 왔으며 다양한 패널 참여 등으로 지속적 실행
- 이사회는 2009년에 “세계 공공보건 관련 국제적으로 동의된 목표와 참여”에 대해 연차별 검토를 수행
  - 2010년은 ‘여성인권신장’, 2011년은 ‘교육’을 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
- 이사회는 국가통계역량 강화와 2010 세계인구·주택 센서스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용, 국가통계프로그램 지원 노력 집중강화를 요청
  - 위원회는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통계국과 파트너 기관의 세부 활동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에 대한 후속정책 고려
- 이사회는 국제 범죄 트렌드 관련 통계의 품질 및 범위의 향상을 촉구
  - 마약과 범죄통계에 관한 해당국의 보고와 사무총장의 의견포함을 고려
- 이사회는 성인지관점을 UN시스템의 모든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재확인, 여성폭력에 관한 지수set의 개발 노력 집중강화를 요청
  - 2007년 3월 협력패널참석 논의, 여성폭력에 관한 지수에 대해 FoC검토 보고와 사무총장의 의견 포함 고려

-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계 정책실행 프로그램의 목표 관련 지수 개발을 위한 노력 강화를 요청
  - DESA의 사회개발부서가 가능지수 개발과정 요약과 위원회의 효율적 참여를 위한 논의 행사 주관예정
  
-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부족관련 장애관련 통계 개발 가이드라인과 원리 배포와 실행에 관한 보고서 요청
  - 장애 측정에 관한 워싱턴그룹의 보고와 사무총장의 의견 포함 고려

## VI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의제요약 및 코멘트

•

No	제 목
1	공식통계의 신뢰성 측정
2	자료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원칙
3	2011-2012 사업계획 · 예산안
4	스티글리츠-센 위원회 후속조치
5	소득·소비통계
6	OECD 녹색성장전략의 지표
7	금융통계
8	OECD 혁신전략
9	이주통계 DB

※ 유엔 통계처 건물 DC2-1949실에서 개최

# 1) 공식통계의 신뢰성 측정

## “공식 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보고서”

### □ 개 요

- 2008년 6월 OECD통계위원회에서 “공식통계에서 신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설문조사 모델 개발임무를 맡은 실무그룹의 Ivan Fellegi은 다음을 제안함.
  - 국가별로 측정대상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가 너무 커 ‘통계청에 대한 종합적인 국제 모델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
  - 통계청에 대한 인식도, 통계자료의 신뢰도·객관성 등을 포함한 ‘신뢰도 조사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실현가능하고 실익이 있음
- 공식통계의 신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식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별 환경차이로 인해 적절치 않으며, 대신 설문조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별로 널리 사용되기를 희망함.
- 2009년 6월부터 실무그룹이 활동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결과물임.

### □ 실행 제안

- 설문지의 인지검사를 허용하고 결과위주로 설문지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의 권한을 강화
- 공식통계의 신뢰측정에 OECD설문지를 사용하려는 회원국에게 가능한 설문지 검토에 동의

### □ 국가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및 실무그룹의 실행원칙

- 실무그룹은 16개 국가로부터 국가별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실행원칙을 도출함.
- (일반인구에 초점) 공식설문조사는 ‘고객’(customer)이 아닌 ‘일반인구’(general population)에 초점을 맞춘 일반인구 조사모형이 되어야 함.
- (공식통계에 대한 인식) 일반대중은 공식통계자료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공식통계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응답자를 찾는 것이 중요.

- (집중형 또는 분산형) 상이한 국가별 환경으로 인해 공식통계 신뢰도 조사에도 국가별 관행이 존재함. 예로 영국은 분산형으로 영국통계청(ONS)은 여러 통계생산기관중 하나이므로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도 측정과 영국통계청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구분되어야 함. 대부분의 OECD국가는 분산형이므로 실무그룹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할 필요.
- (신뢰회복보다는 일상적인 신뢰 모니터링) 신뢰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예로 2005년 영국인 6명중 1명만이 공식통계가 외부간섭없이 작성되며 3명중 1명만이 통계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국가별 특성으로 인해 치유방법도 제각각 일 수 밖에 없으므로 실무그룹은 일상적 방법에 의한 신뢰 모니터링을 희망함.
- (모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정보) 대부분 설문조사는 분석편의를 위해 응답자의 기본정보를 어느정도 포함하는데 실무그룹은 최소한의 배경 정보 변수를 추천함.
- (신뢰도의 해석 및 측정) 신뢰도 해석과 측정은 통계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는데, 신뢰도는 신빙성, 신뢰성, 시의성 그리고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
- (설문지의 간략화) 짧은 설문지는 비용부담, 보고부담을 줄이는데 바람직하며, 간략한 설문지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공통의 시사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짐



## □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 공식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음
- 공식통계의 근본적인 신뢰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음
  - 구조적 요소: 통계의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등
  - 통계적 요소: 통계작성과정의 건전성 및 양질의 결과물
  - 평판적 요소: 중요통계를 국민에게 공표할 책무, 언론과의 관계, 부정확한 언론보도를 교정 등
- 개념화의 한계
  - 저급한 결과물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만 양질의 결과물이 단기간에 필연적으로 국민의 신뢰수준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음
  - 타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 또한 통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통계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 프레임워크
  - 외부요인 : 문화규범, 인식도, 과거 역사 및 경험 등
  - 내부요인 : 통계자료의 신뢰(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객관성, 관련성, 일관성)  
통계기관 신뢰(비밀보장,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효과성)
  - 내부요인은 통계작성기관의 권한에 속하고 통계자료의 신뢰 및 통계기관의 신뢰를 통해 공식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 가정과 추가사항

- 설문조사는 도급하여 실시
  -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일기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고, 통계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급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
- 설문조사는 인터뷰 진행자에 의해 진행됨(전화 또는 대면조사)
- 설문지는 각국의 통계시스템(집중형/분권형)에 맞추어 조정되어짐.
- 설문지의 인지 검사(cognitive testing)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공식통계의 신뢰도 측정에 관한 의견

### □ 논의 배경

- 공식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통계 자료의 품질과 신뢰도 제고 필요
    - 이용자 스스로 통계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통계자료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객관성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함
  - OECD 통계위원회에서 “공식통계 신뢰도 모니터링 방법” 논의 (2008. 6.)
    - 현재 일부 국가에서 공식통계 신뢰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
    - 국가별 역사, 통계시스템, 정부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 등 환경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학습 가능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비교성 확보를 통해 분석의 유용성 개선
- ⇒ 따라서 **표준조사표** 개발을 위해 Ivan Fellegi를 단장으로 하는 Electronic Working Group 결성하여 “공식통계 신뢰도 측정 조사표” 제안

### □ 최근 국제적 동향

- UN 공식통계원칙(1994년) “공식통계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통계기관은 자료 수집, 처리, 저장 및 제공 방법과 절차에 대해 철저한 전문적 고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Fellegi (2004) 통계청 신뢰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 구조적 요소 : 조직의 독립성
  - 통계적 요소 : 건전한 통계절차 및 고품질 산출물
  - 평판적 요소 :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영국 ONS는 2004년부터 “공식통계에 대한 공공 신뢰도 조사” 실시
  - 사람들이 공식통계를 신뢰하는가?
  - 공식통계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공식통계 신뢰와 불신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인가?
- 캐나다 통계청은 2년마다 인식조사 실시
  - 민간조사회사에서 대행하며 핵심적 질문은 추세파악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관심 사항에 따라 일부 질문은 추가 또는 수정
- 핀란드 통계청은 1975년부터 2년마다 종합이미지조사 실시
  - 민간연구기관이 자료수집 및 집계 담당
  - 15~79세 핀란드 언어 사용 인구 1000명 대상
  - 통계청에 대한 친밀성, 평판, 자료에 대한 신뢰도 조사
- 독일 통계청은 2000년부터 통계청에 대한 이미지 분석 실시
- 2008년 6월에 **표준조사표** 개발을 위한 Electronic Working Group 결성을 제안하여 2009년 6월부터 공식 활동 시작

## □ 주요 이슈

- 통계청에 대한 국민 인식, 통계자료의 중요성, 신뢰성, 객관성/진실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통계청 신뢰도 조사 표준 개발은 가능**
  - 국가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청 일반 이미지에 관한 국제적 조사 표준은 불가**
- Working Group에서 개발한 **표준 조사표**를 OECD 회원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채택 희망
  - 공식통계 신뢰도 조사 실시에 OECD 조사표를 사용하려는 회원국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사표 최종안 검토

## □ 검토의견

### < 종합 의견 >

- 공식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OECD에서 조사 표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새로이 신뢰도 측정을 시도하는 나라/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 우리나라의 현황 >

- 한국에서는 전 국가기관에 정책고객서비스(PCRM)\* 시스템 도입, 국민 권익위원회에 의한 청렴도 측정,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통계청 및 기타 통계작성기관 포함)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

※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50,000여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한국의 경우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통계청 등 360개 기관에서 860여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통계청은 2006년부터 매년 “통계청 이미지 및 홍보효과 조사”를 통해 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음
- 2007년 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작성기관의 모든 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통계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Working Group에서 제안한 표준조사표는 향후 각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하여 기관별로 해당 통계에 대한 정기적 신뢰도 측정 필요 시 활용 가능할 것임

### < 기타 의견 >

- 국가통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와 개별통계 만족도조사를 병행할 경우 중복으로 인해 응답자 부담과 혼동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 제시된 표준 조사표를 개별통계 만족도조사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식통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도출하는 것은 어떨지?

- 공식통계를 “(국가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상태에 관한 정부 생산 통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다 명확한 정의 및 예시 필요
- 공식통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 제시 필요
- 품질보증체계가 미비한 국가의 경우에도 공식통계 신뢰도 측정이 의미가 있을지?

### < 부록(조사표 안)에 대한 의견 >

- 표준 조사표 문안을 집중형 또는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도록 구성하여 활용성을 높인 점이 유효적절함
- [Module 1. 통계청 또는 공식통계에 대한 인지] b. 빈번한 이용자만 작성 관련
  - 혼란방지를 위해 3번 응답자 ‘Yes’를 ‘Yes, frequently’ 응답자로 수정필요 (Occasionally응답자는 응답 불필요)
- [Module 5. 주요 통계에 대한 신뢰] 관련
  - ‘정기적 이용자(Regular Users)’에게만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 이용자’가 ‘빈번한 이용자’와 동일한 것인지? 같다면 용어를 통일해야 하며, 다르다면 이에 대해 정의할 필요

---

## **Comments on REPORT OF THE ELECTRONIC WORKING GROUP ON MEASURING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

### **□ General Comments**

- It is crucial to maintain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and Statistics Korea is committed to this by sharing experiences with other countries.
- The model survey designed by the OECD will be greatly beneficial to countries hoping to measure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 **□ Efforts made by Statistics Korea and Following plans**

- In Korea, trust in Statistics Korea and other official statistics producing agencies generally remained at high level. Intensive efforts have been made through various systems such as the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PCRM), Assessing Integrity of Public Organizations by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 Commiss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 \* PCRM : a monitoring system to collect data and opinions from 50,000 policy customers
  - \* Korea has a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and about 860 kinds of official statistics are produced in 360 organizations.
- Statistics Korea has carried out "Image and PR effect on Statistics Korea" since 2006 to understand how citizens regard official statistics and Statistics Korea .
- In 2007, Statistics Korea adopted a quality assessment system to review all approved data. Along with this system, a user satisfaction survey is also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 A questionnaire proposed by the Working Group will be provided and used appropriately during regular measurements of trust concerning the respective statistics of various divisions.

## □ **Other comments & Questions**

- If measuring 'trust in overall official statistics' is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satisfaction survey for each statistics', is there a possibility of confusion due to the overlapping surveys or possible burden to respondents?
- Is it possible to limit the utilization of the proposed questionnaire in the 'satisfaction' survey for each statistics and to use the results as a means to measure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 More accurate definitions and specific examples of (official statistics) are recommended.
- Preconditions to measure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need to be circumscribed.
- Would measuring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be meaningful even for the countries who don't have an adequate quality assurance system in place?

## □ **Comments on Annex 1**

- An increase in efficiency could be achieved by clarifying distinctions in the questions for respondents using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statistics.
- From [Module 1. Awareness of <NSO> or Official Statistics]
  - 'Yes' should be changed to 'Yes, frequently' from the sentence "who responded "Yes" to question 3.." in item b. For "Frequent Users" Only
- From [Module 5. Trust in Selected Statistical Series]
  - Is the classification "Regular Users" identical to "Frequent Users"? Whether yes or no, clearer definition(s) need to be provided.

## 2) 자료보안 및 비밀유지

### “자료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원칙”

#### □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한 OECD 원칙

- 최근 OECD 내부와 국제 통계기구 간 데이터 심층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생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
- 동시에 국가의 경계 밖으로의 중요 자료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데이터제공자를 위한 OECD의 보안정책 안내를 위해 통계정책그룹은 데이터 보안과 기밀성에 관한 원칙을 대비함.
- 이 원칙은 마이크로데이터 연구 관련자들을 위한 적용규칙을 통한 기술적 보호대책을 포함함.

#### □ 비밀유지 규정

- OECD에 제공된 마이크로데이터 중 “기밀”분류에 해당되고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위한 법적 규정이 제공됨.
- 또한 OECD의 “스텝규정”은 고용 계약에 관해 기밀성 의무를 부여함.
-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는 사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설명, 인용됨
- 위의 사항들이 데이터공급자에게 충분히 적용확인 되어야 함.

※ 최근 OECD와 EUROSTAT간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동의 체결시 EUROSTAT 자체의 엄격한 보안규정과 국가고위자참여에도 불구하고 OECD는 자체 법적규정 확인함으로써 기밀성 보호를 이행함.



### 3 ) 2011-12 사업계획 · 예산안

#### “2011-12 OECD통계위 사업·예산 운영계획(안) ”

#### □ 2011-12 OECD통계위 사업 · 예산운영계획(안)\* 수립 관련 고려사항

\* Draft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of the Committee on Statistics

-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OECD는 OECD 각료이사회 결과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우선기금(Central Priority Fund)”의 증액을 위하여 OECD 각 국의 예산을 1% 삭감
- 감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11-12 OECD 전체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OECD통계위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

#### □ 2011-12 OECD통계위 9大 우선사업

##### ① BIICS국가 통계협력강화 및 G20 관련 지표 개발

- OECD는 2007년부터 비회원국인 BIICS국가(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와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OECD통계위는 이와 관련하여 BIICS국가 통계를 OECD통계에 편입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
- G20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G20 회원국 통계를 모두 취합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및 사우디아라비아 통계 편입 사업 추진 예정

##### ② 스티글리츠위원회 권고사항 후속조치 이행

- 전세계적 주목을 받은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는 프랑스정부, Eurostat, OECD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OECD의 관련 국(경제국, 고용노동사회국, 환경국, 교육국)등에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 착수
- 통계국 역시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지표 및 데이터 개발 필요성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작업 착수 필요

##### ③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s) 개발 착수

- “녹색성장(Green Growth)는 OECD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환경국 주관으로 “녹색성장전략(GGS : Green Growth Strategy)”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통계국은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지표”에 관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녹색성장전략 수립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녹색성장전략 1차 지표 세트는 2011년 각료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

④ 경제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지표의 분기별 수집

- 각국 정책입안자들이 최근의 경제 및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연간 발표되는 가계, 기업, 정부의 소득 및 자산 관련 통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Quarterly) 제공 방안 연구 착수

⑤ 마이크로데이터의 선진 활용 방안 연구

- 경제학자, 정책분석가 등의 요구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계, 기업, 정부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개발 필요

⑥ 의료서비스 구매력지수(PPP) 개발

- 값비싼 의료서비스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료 서비스 구매력지수”를 고용노동사회국과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

⑦ 통계 관련 IT 툴(Tools) 개발

- 근거기반 정책수립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질의 통계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IT 툴 개선 작업

⑧ 국제통계표준 개발을 위한 핵심주체(Key player) 역할 이행

- 각 국의 통계의 국제적 비교 및 활용을 위한 국제통계표준을 정립하는 것은 OECD통계국의 핵심역할이며, 국제통계표준의 개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⑨ 통계국의 새로운 홍보전략 개발

- 현재까지 월간, 연간 간행물 발행 등을 통하여 통계국의 사업 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OECD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Progress at a Glance” 책자를 발간할 예정

## 4) 스티글리츠-센위원회 후속조치

### “스티글리츠-센 위원회(SSF) 팔로우업: 가능연구활동 ”

#### □ 개 요

- 스티글리츠 권고사항의 적용 진행을 위해 OECD가 고려 중인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 제시
-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연구 활동을 경제적 자원, 삶의 질, 지속가능성의 세 클러스터(cluster)로 분류

\* SSF: Stiglitz-Sen-Fitoussi

#### □ 경제적 자원

- **SNA 연별 가구계정으로의 격차개념 포괄**
  - 수입, 소비, 부(wealth)를 동시에 고려하고 가계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개별 자료에 탁월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중요성 강조.
  - INSEE는 인구 내 관련 배포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는 가계 분야에 관한 연별 견본 계정을 개발.
  -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대표단 및 EUROSTAT도 적용 및 업무흐름 검토 입장 표명.
- **가구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견본개발**
  - 가구상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통계도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노동력 조사를 위한 특별 모듈 개발과 PIAAC 프로그램이 성인수준에 맞춰 작성한 가구요소상태분야 도달이 목적임.
  - 이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조사모듈의 장애요소 논의, 관련 개념들 및 차원 정의, 생산되어야 할 지수 정의, 연조사에는 제외되면서도 분기별 조사에는 다루어져야 할 개념문제 도출 등의 OECD 태스크포스가 이루어질 예정임.
- **가계 생산측정**
  - 국민계정시스템(SNA)은 비시장 상품과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가계

요소 중 육아 및 요리와 같은 서비스는 측정이 되지 않음을 인식.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방법은 인풋기준이며 노동과 가계생산에 사용된 자본인풋으로 구성됨.

#### ○ GDP에서 실제 처리가능한 가구수입까지- 분해 분석

- 스티글리츠 리포트는 경제활동의 성장률과 가구경제적 자원(실제 처리 가능한 가구수입)의 성장률 간 격차를 경험적으로 발견.
- GDP성장 부피는 가구 생계기준의 진화에 신뢰할만한 지표가 아니며 격차에 대한 자료를 정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GDP부피성장과 실제 가구수입성장 간의 불일치 요소를 정의하는 분해분석으로 구성됨.

### □ 삶의 질

#### ○ 주관적 복지 측정에 관한 지침

- 스티글리츠 커미션은 주관적 복지가 삶의 질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공함을 지적했으며 이 활동의 목적은 주관적 복지의 다양한 측면 측정 가이드라인 개발로 둠.

#### ○ 취약성(vulnerability) 측정

- 이 활동은 취약성 구성요소 측정을 위한 지수를 개발하여 취약성의 원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임.

#### ○ 삶의 질 차원의 합동 분류에 대한 PIAAC- 기본 분석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등에 대한 측정수단을 제공하는 조사 부족을 강조, 질문사항 평가 등 분석 작업 발전이 진행 중임.

### □ 지속가능성- 미측정수입 기준 인적자본 측정에 관한 팔로우업

#### ○ 지속가능성은 현재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OECD의 인적자본스톡에 관한 평가는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

- 평가범위 확대, 인적자원누적계정 개설, 교육 분야 결과 측정, 노동력 측정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등의 팔로우업이 제안됨.

## 5) 소득·소비 통계

### “소득·소비통계에 관한 캐나다 통계청 보고”

#### □ 배 경

- 프랑스 특별경제자문위원회인 “스티글리츠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발전 측정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 사회의 웰빙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웰빙을 고려할 수 있는 측정방안이 고안되어야 함을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소득분배 및 소득·소비·자산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가계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안 마련 필요 강조
- 캐나다 통계청은 최근 인구고령화 추세, G20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글로벌 경제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가계 재무건전성 측정”에 대한 관심 등과 함께 소득·소비통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

#### □ OECD의 역할

- OECD는 보다 총체적인 수준에서 소득·소비·자산의 상호작용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
- 소득과 자산의 측정 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잠재 소득”에 대한 개념을 자산의 개념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 필요
- OECD는 회원국에 소득·소비·자산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
- OECD는 회원국에 소득·소비·자산 통계 보급에 대한 기준 및 권고안 마련

#### □ 캐나다 통계청의 제안

- OECD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공조와 적극적인 개입 등을 통하여 소득·소비·자산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소득·소비·자산 통합계정 및 측정방안 연구 사업에 관심이 있는 각국 전문가 그룹과 OECD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OECD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고

## 소득·소비통계에 관한 의견

### □ 논의 배경

- 현재의 GDP로써는 삶의 질 평가에 한계 직면(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등)
  - ‘가계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 소비, 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조사 개발 필요

### □ 캐나다 통계청 제안 및 OECD 역할 강조

- 캐나다 통계청은 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조
- OECD는 회원국에 소득, 소비, 자산 통계 보급에 대한 기준 및 권고안 마련

### □ 주요 이슈

- 소득, 소비, 자산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연금’ 등을 포함한 잠재적 소득과 자산 개념 도입
- OECD는 통합 측정에 대한 권고안 마련 및 회원국의 긴밀한 협조 요망

### □ 우리청의 입장(의견)

-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예-세금)등을 표본조사로 파악
  - 동 조사로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산 내용 파악 불가
-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가계자산조사를 매년 실시
  - 통계청의 직접 수요기관들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자산, 소득 및 지출 항목 파악(100여개 항목)

⇒ 소득, 소비, 자산 등을 동시에 파악 가능한 가계자산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 국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계의 웰빙’ 측정 및 ‘가계 재무 건전성’ 측정가능  
◆ 향후 캐나다, OECD등 국제 기준의 측정 방법 및 내용을 통일하여 정확성,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겠음

---

## Comments on AN INTEGRATED FRAMEWORK ON INCOME, EXPENDITURES AND WEALTH

---

-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s produced by a sample survey on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and non-consumption expenditure(i.e, tax).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household wealth which can measure quality of life with this survey.
- To tackle this obstacle, Statistics Korea will conduct the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Wealth annually from 2010.
  - Statistics Korea will perform the survey by collaborating with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There are 100 survey items to establish a wealth, incom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
- By conducting this survey annually, we can comprehend income, expenditure and wealth simultaneously which make it possible to measure 'household well-being' and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 that are required internationally.
- By coordina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easuring methodologies and contents such as with Canada and OECD, we'll endeavor to improve our international comparability.

## 6) 녹색성장전략 지표

### “OECD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

#### □ 개 요

- 녹색성장 지표셋은 OECD 각부서의 업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질 것이며, GGS(녹색성장전략)과 병행하여 생산·소비의 환경적 성과물에 주안점을 줄 것임.
- 다섯분야 지표셋은 (i)생산환경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지표 (ii)소비환경의 콘텐츠를 반영하는 지표, (iii)천연자원보유량과 생물다양성을 기술하는 지표, (iv)삶의 질 환경을 모니터 하는 지표, (v)정부와 민간의 대응 모니터링 지표 등으로 구성되며, OECD 각부서(환경, 경제, 과학기술, 재무·기업) 합동으로 개발중
- 6월에 있을 CSTAT에서 GGS의 목표 및 진행상황, 통계적 의미와 녹색성장의 진행과정을 모니터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별결과를 제출할 예정.

#### □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지표셋(5가지)

##### ○ 생산환경의 효율성 모니터링 지표

- 자원의 생산성과 환경적 효율성에 관한 측정을 포함하며 비슷한 생산 공정을 가진 산업부문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 ○ 소비환경의 콘텐츠 모니터링 지표

- 경제성장은 소비자 선호와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이끌어져 왔으며 이제는 소비의 환경적 효율성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 과거 포커스는 생산물의 CO2 함량이었으나 최근에는 생산물에 내재된 천연자원과 잉여물까지 분석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 ○ 삶의 질 환경의 모니터링 지표

- 삶의 질 환경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지표는 첫째, 삶의 질 환경에 대한 사람의 인지를 반영해야 하고, 둘째 환경의 질이 주관적인 웰빙측정의 결정요인중 하나라는 것임.

##### ○ 천연자원보유량(stock)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지표

- 녹색경제 추구에 있어 유입(flow) 뿐만아니라 천연자원 보유량(stock)도 지



속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 천연자원의 stock-flow 정보도 모니터링할 필요

- 생물다양성 지표는 물리적·금전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음

#### ○ 정부와 민간의 대응 모니터링 지표

-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주체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녹색혁신과 기술'에 관한 지표와 '공공·민간의 소비와 이전'에 관한 지표로 구성
- '녹색혁신과 기술' 지표 : 기술전수와 활용, 녹색기술 특허권, 연구개발 비용 등 포함. 이 지표는 친환경적 혁신, 특허와 지속가능한 제조업을 기초로 함
- '공공과 민간의 소비와 이전' 지표 : 자본 지출, 세금, 수수료, 요금, 보조금을 포함.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수입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민간과 공공의 지출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축적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 논의사항(6월 CSTAT)

- OECD의 녹색성장전략(GGS)과 측정지표에 대한 견해
- 환경/경제 통계 작업이 2011-2012년 CSTAT업무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논의
- 스티글리츠위원회의 후속조치에 기여 여부

## 녹색성장전략 지표에 관한 의견

### □ 논의 배경

- OECD 녹색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측정할 수 있는 녹색성장 지표개발의 필요성 대두

\* OECD는 '09년 6월 각료이사회(MCM)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녹색성장 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을 채택하여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

#### 〈OECD 녹색성장 전략〉

◆ 경제회복과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각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25개 OECD 위원회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함께 개발중에 있으며 '10년 중간보고서 및 '11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 최근 국제적 동향

- G20, OECD, 유럽연합 등에서 경제성장에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측정 방법 모색
- OECD 통계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EPOC)와 협력하여 녹색성장 지표 개발을 수행할 예정

### □ 주요 이슈

- 다양한 측면의 녹색성장 전략 측정 및 지표화 문제
  - 생산과 소비의 흐름에 대한 자원효율성,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의 감소, 녹색세로의 전환, 녹색성장 수행에서의 각국의 노력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표 필요

### □ 우리청의 입장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배출통계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역할 강화 예정
  - 녹색생활·녹색성장지표\* 체계 및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책의 평가 등에 활용

\*녹색성장에 대한 통계적 개념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의 수준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

-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개선 및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동향〉

◆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 3대 전략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신성장동력 창출/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10대 정책방향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산업구조의 고도화/녹색경제 기반 조성/녹색국토·교통의 조성/녹색국토·교통의 조성/생활의 녹색혁명/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10년 상반기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한국의 녹색성장을 발전시키고 개도국 등에 녹색성장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보고서 논점 (a): 지표의 형태(types of indicators)

- 녹색성장 전략의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함.
- 하지만 현재 지속발전가능지표(SDI), 환경지표 등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녹색성장 지표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conceptual framework)를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녹색성장 지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없이 필요한 지표의 형태(부문) 및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타 지표와 개념적 혼돈을 야기시키기 쉬우며 지표 선정 작업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보고서 논점 (b): 필요 지표의 개발

- 현재 녹색성장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필요통계 개발에 대한 권고안 및 계획 등을 지표개발 보고서에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각 국의 관련 지표 개발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 Comments on Indicators for The OECD Green Growth Strategy

---

### **General Comments**

- Statistics Korea intends to strengthen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low-carbon green growth and the improvement of statistics concerning greenhouse gas emission.
- Utilization of newly established indicator system and DB for green life/green growth in policy assessments
  - \* One of the most important uses of developing indicators is to establish the statistical concept of green growth and to assess the 5-year plan of green growth.
- Performing research projects to develop or improve national statistics of greenhouse gas emission

### **Discussion Point (a): Types of Indicators**

- We agree with the needs for developing indicators to support green growth strategy by defining its practical meanings of it.
- Concerning the connections with other indicators such as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or environmental indicators as well as these distinctions, a conceptual framework for green growth indicator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 If indicators are defined or selected without a framework,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ceptual confusion with other indicators, making the work process more complicated.

### **Discussion Point (b) : Development of indicators in needs.**

- The amount of current statistics may not be sufficient enough to establish a new system for green growth indicators.
- Therefore, it would be beneficial for each division to add recommendations and plans the report on developing indicator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statistics.

## 7) 금융통계

- 경제·금융위기로 인해 금융통계에 대한 수요가 부각됨
  - 금융위기가 금융통계 또는 거시경제학의 부재에서 초래되지 않았더라도 금융통계의 시의성과 gap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
- OECD통계국의 주요 데이터 수집
  - 금융계정과 금융대차대조표(국민계정 관련)
  - 가계 자산과 부채(비교가능 국민계정셀 관련자료 포함)
  - 기관투자자의 자산
  - 은행 수익률(수익과 손실, 대차대조관련 데이터)
  - 중앙정부 부채(상장 및 비상장 채권)
- OECD 금융통계의 단점
  - 연간자료의 부재(분기자료만 작성)에 따라 발전에 대한 단기 모니터링이 어려움
  - 이용가능한 자료의 상세수준 차이와 구체적인 추계방법 미공개에 따라 자료의 유용성 부족
  - 시의적절한 통계에 대한 사용자 수요에 부응하여 금융통계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필요
  - 사무국은 자료수집시스템의 개선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 금융통계의제의 OECD통계위원회 제출
  - 본 의제는 OECD 통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을 위해 필요한 사업프로그램(PoW)간 우선순위를 논의 할 것임

## 금융통계에 관한 의견

### □ 논점 (a): 분기자료 송부가능 여부

- OECD가 요청한다면 송부 가능함

### □ 논점 (b): 자료의 상세 수준 관련

- 현재 충분히 상세한 자료를 송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만약 OECD가 보다 상세한 수준의 자료를 필요로 하고 구체적인 상세 수준에 대한 standard를 제시한다면 우리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

### □ 논점 (c): 구체적인 추계방법 공개 여부

- OECD가 구체적인 guideline을 마련해 준다면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음

### □ 논점 (D) : 금융통계의 우선설정 관련

- 금융위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각국의 경제사정이 달라 확일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한국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 급증이 대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계부채와 중앙정부 부채 통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 Comments on OECD Financial Statistics

---

### **Discussion Point (a): Provision of the quarterly data**

- Bank of Korea can provide the quarterly data of financial statistics if the OECD requests.

### **Discussion Point (b): The level of detail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 It is believe that the data which has been provided by Bank of Korea guarantees the necessary detail. In addition, Bank of Korea will comply with the OECD's request as long as the demanded data is available in Korea if the specific guideline is presented.

### **Discussion Point (c): Open methodological questions**

- Bank of Korea has positive view on to open detailed methodological questions to public if the specific guideline is provided by the OECD.

### **Discussion Point (d): Financial statistics' priority setting**

- Financial crisis is caused by many different reasons and it seems inappropriate that the single standard is applied for setting priority setting while considering each country's own economic circumstance.
- In the meanwhile, Bank of Korea has had a great interest on the statistics related to the household debt which can bring about many consecutive economic problems and the sovereign debt that has the substantial influence over the economic unrest in th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 8) 혁신전략과 측정

### “OECD 혁신전략과 측정에 관한 아젠다”

#### □ 배 경

- OECD는 포괄적이며 공동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도전과제(기후 변화, 보건, 식량안보, 빈곤 등)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착수('07)
- 또한, 현존하는 혁신 측정 지표들이 혁신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다양성과 연계성을 나타내지 못함을 인식하고 포괄적 범위의 혁신과, 혁신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낼 새로운 지표개발을 추진
- 이번 통계위원회에서 OECD는 혁신 측정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진전된 논의를 보고하고 새로운 지표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 진전된 논의 사항

- 과학기술혁신(STI)조사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혁신의 포괄적 개념\*에 적합한 조사 및 행정자료가 국민계정 등 경제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 \* R&D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인적자본, 신규 산업구조 등
- 혁신의 주체, 결정요인 및 혁신의 사회적 영향을 개인·기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및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
- 혁신은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는 개념을 보다 유연하고 즉각 반응하는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기존의 혁신측정 방식은 경제성장에서 혁신의 역할에 중점을 두나, 혁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함



## □ 토의 주제

- 무형자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혁신분야 중 조사 설계 또는 재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 사업자 등록의 수준(quality)을 높이고 혁신 활동 측정을 개선하는 방안
- 장기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인프라 구축 사례 및 데이터인프라 접근성 개선 방안
-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학제간 통합 접근법 개발 가능성
- 혁신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 (예, 고용자와 고용인 조사의 통합 활용 등)

## 혁신전략과 측정에 관한 의견

- **논점 1 : 무형자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혁신분야 중 조사 설계 또는 재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1) 연구개발활동조사(KISTEP 주관)와 2) 한국기술혁신조사(STEPI 주관,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분류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의 기술분류와 산업분류의 매칭, 한국기술혁신조사의 조사주기 단축(3년→2년), 비기술적 혁신 항목 등)
  - 최근에는 R&D 투자를 포함한 무형자산의 자본화와 국민계정상에서의 투자지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중에 있음. 국제적으로 SNA에서 무형자산의 투자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계정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국민계정의 투자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중에 있음. 특별히 Frascati Manual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R&D 투자를 국민계정상의 투자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조사가 재설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향후 부처간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혁신 조사, 전통적인 기술혁신과 대비되는 비기술적 혁신에 대한 조사 및 서비스 혁신에 대한 조사 재설계 등 새로운 혁신 형태에 대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논점 2 : 사업자 등록의 수준(quality)을 높이고 혁신 활동 측정을 개선하는 방안**

**<사업체 행정자료의 품질제고 활동>**

- 통계청에서는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여 통계조사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처음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10종을 입수하여 DB를 구축하여, 동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체조사 등 경제통계조사의 항목대체, 보정 등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6종을 입수하였으며, 현재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적자료에 대한 산업분류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음
  - \* 국세청의 업종분류(소분류, 880개),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1,145개)
- 향후 표준화(안)을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개정하는 경우, 통계청은 세적 자료에 대한 업종변경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세청에서도 매년 사업자의 업종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최신자료로 갱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 논점 3 :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학제간 통합 접근법 개발 가능성

### <인터넷 자원자 표본을 이용한 추정방법 연구>

- 통계청에서는 조사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인터넷 자원자 표본을 이용한 조사방법을 연구하였음. 인터넷 조사는 자원자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인터넷 조사방법이 기존의 조사방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이러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인터넷 및 전화조사의 표본 설계 방법을 검토하고, 비확률적 표본에 해당되는 인터넷 자원자 표본의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을 구축하여 이 모형을 다양한 평가변수에 적용, 과연 인터넷 자원자 표본의 편향이 제거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 인터넷 자원자 표본의 편향을 제거하는 방법이 즉시 공식적 통계에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한계는 모형 구축을 위한 기준변수 선정 및 패널모집 방법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냄
- 앞으로 면접원 가구방문 등 전통적 조사방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면, 이러한 인터넷 조사방법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논점4 : 고용자와 고용인 조사의 통합 활용 등 혁신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

- ‘혁신전략 측정 아젠다’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고용의 공급자인 가구의 피고용자(employee)와 수요자인 사업체의 고용주(employer)에 관한 동향 파악은 노동수요·공급 정책에 필요함
- 공급자(가구) 조사는 현재 일자리 및 희망직업 및 산업 등을 파악하고, 수요자(사업체) 조사는 빈일자리 및 추가 일자리 등을 조사하여,
  - 노동력 수요·공급 mismatch 분석 등 상호비교 분석을 통한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Discussion Point : Quality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sources in Establishments

-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in statistical production, Statistics Korea has been establishing a DB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economic survey by collecting the resources of taxation and administration since 2009. Statistics Korea i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o use the DB as substitution to selected parts or in calibration.
- Especially, the Division systematized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of taxation by amending the law. Now resources of taxation can be used for survey. Upon this new institutional basis, six types of resources including business registration, V.A.T and corporate tax register can be collected. The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classifications based on the tax books data(稅籍자료) is in progress and will improve the current usage of resources.
- \* Business categories of National Tax Office(880 types),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1,145 sub-classes)
- In the case of adjusting business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system afterwards, Statistics Korea will support the work required as a result of any changes in the taxation process. The National Tax Service is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updating their resources by checking the changes made in the type of business.

**□ Discussion Point: Research of estimation method using sample from Internet applicants**

- Statistics Korea has researched about a survey method that uses sample collected from Internet applicant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broaden the range of survey method, and this approach has a benefit of overcoming limits that existed in previous survey methods. In spite of this merit, however, it has not been used extensively.
- To broaden the use of this new method, additional research to revise previous Internet and telephone survey methods and establishment of statistical model to remove bias in sampling from Internet applicants were performed. Then, observations were made to confirm if bias in sampling could be removed by applying the new model into random estimation variables.
- Some limitations still remain and are viewed as barriers to be accepted in official statistics, but possible solutions in terms of solving these problems exist through further research on methods for selecting standard variables for building a model, and method of collecting panels.
- Considering the increasing amount of conflicts that traditional survey methods cause, crucial research is needed to find ways to raise the practicality of the Internet survey.

**□ Discussion Point: Possible usage of the resources created by mismatches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labor**

- We generally agree with the opinions described in the "Innovation Strategy Measurement Agend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for policy making concerning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 The survey of supply(households)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industrial aspects of labor as their current and expected occupations.
  - The Survey of demand(establishments) aims at tracking available positions.

Analysis on mismatches and comparison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 9) 이주통계

### “OECD 이주(Immigration)DB 발전방안”

#### □ OECD 이주DB (OECD Database on Immigrants) 구축 경과

- 2004년 OECD 고용노동사회국과 통계국은 OECD회원국의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OECD회원국의 이주현황 분석을 위한 DB 구축 작업 착수
- 동 데이터는 OECD회원국 내 이주자의 인구학적 특징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국내에서 적극 활용 중
- 최근 고급인력의 국제이주 급증에 따라 OECD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관련 DB 업데이트 및 OECD비회원국으로의 DB 구축 범위 확대를 위한 작업 착수

#### □ 데이터 수집

- 관련 데이터는 특히 출생지 및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OECD회원국 이주DB는 2005-2006년을 기준으로 업데이트 중이며, OECD비회원국 이주DB는 2000년을 기준으로 구축 중
  - 국가별 DIOC(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조사표

Table A	Table B	Table C	Table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li> <li>· 성별</li> <li>· 시민권(혹은 국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상태</li> <li>·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분류(중분류)</li> <li>· 성별</li> </ul>

- 2005/2006 DB 업데이트 현황
  - 30개 회원국중 인구센서스 8개국(호주, 캐나다 등), 인구등록자료 5개국(덴마크, 스웨덴 등), 노동력 조사 등을 활용하여 DB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 □ 향후 데이터 수집 추진계획

- 2010년 센서스를 기점으로 유엔통계처와 OECD통계국은 교육 및 인구학적 특징을 반영한 데이터 수집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

## 이주통계 DB에 관한 의견

### □ 2005/2006 이주DB관련 데이터 제공 관련

- ⇒ ○ 2005/2006 이주DB관련 데이터 요청시 2005 센서스 결과의 해당 항목을 제공하겠음 (연령, 성별, 국적, 거주기간, 교육수준 등)

### □ 2010 이주 DB관련 데이터 제공 계획

- ⇒ ○ 2010 총조사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별 국적, 거주기간, 연령, 성별 등 자료는 적극 제공하겠음
- 다만 센서스에서 조사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용상태, 직업분류 등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DI OC 조사표>

Table A	Table B	Table C	Table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령</li> <li>· 성 별</li> <li>· 시민권(혹은 국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상태</li> <li>· 성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분류(중분류)</li> <li>· 성별</li> </ul>
<b>제공가능</b>		<b>검토필요</b>	

\* 참고 : 2010 센서스 외국인 관련 항목 (안)

가구원 :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국적, 입국연월  
 가구 :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건물 및 거주층, 점유형태, 타지주택소유여부  
 주택 :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 Ⅶ 공식통계에 관한 고위급 포럼

### Ⅵ

#### 가. 회의 개요

##### □ 개 요

- (공식명칭) High Level Forum on Official Statistics
- (일 시) '10.2.22.(월) 15:00~18:00
- (장 소) Temporary North Lawn Building Conference Room 3
- (주 제) 공식통계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Are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Effective?)

##### □ 세션 구성

- 좌장(이인실 통계청장), 기조연설자(1명) 및 패널(4명) 등 총6명
- 연사 명단

역 할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좌 장 Moderator	이인실 청장님 Dr. Insill YI	한국 통계청장
기조연설자 Keynote Speaker	레베카 블랭크 Dr. Rebecca M. BLANK	미국 상무부 센서스 국장
패 널 Panelists	엔리꼬 지오반니니 Mr. Enrico GIOVANNINI	이탈리아 통계청장
	에두아르도 페레이라 님스 Mr. Eduardo Pereira NUNES	브라질 통계청장
	모하메드 타모티 Mr. Mohamed TAAMOUTI	모로코 기획부 통계국장
	팔리 레홀라 Mr. Pali LEHOHLA	남아공 통계청장

## 나. 기초발제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

### “Improving National Statistical System (Dr. Rebecca M. BLANK)”

#### □ 통계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통계정보제공 시스템의 문제

- 최근 금융위기가 통계정보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통계 정보를 더욱 잘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위기대응을 지원할 수 있음
- 5대부문에 대한 통계정보를 개선할 필요
  -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 신용정보(credit information), 가계자산(household wealth), 산업 정보(industry information), 종단적 정보(longitudinal information)

#### □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

- 미국 주택시장의 악성채무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 투자자의 지나친 낙관, 정부규제의 미흡, 민간부문의 안전장치 미흡 등
- 개선방안
  - 악성채무의 발견 및 규모파악을 쉽게 할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세분화
  - 순유입 뿐만아니라 부채의 신규발생 및 상환에 대한 정보의 개선 등

#### □ 신용정보(credit information)

-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은 신규대부를 꺼리고 이는 경기회복시에 심각한 신용경색을 초래할 가능성
- 신용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통계자료가 통합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신청자 타입에 따른 신용심사 및 승인
  - 공식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용자료 원천에 대한 대안을 모색

#### □ 가계자산(household wealth)

- 경제위기는 가계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 이는 은퇴지연 및 고령자 경제

- 활동 참가율 증가, 자녀교육비 지출 감소, 연금생활자 수입 감소로 연계
- 시의성 있는 가계자산 통계가 부족(미국의 경우 2007년이 가장 최근 자료)
- 개선방안
  - 가계자산에 대한 조사주기를 단축(현재는 3년 주기)
  - 가계자산의 배분정보 제공

#### □ 산업 정보(industry information)

- 산업별로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도에 대한 시의성 있는 자료 필요
- 개선방안
  - 산업별GDP 통계의 분기별 작성

#### □ 종단적 정보(longitudinal information)

- 기업체에 대한 종단적 정보는 경기순환에 따른 기업등록 및 폐업까지 정보파악 가능(기업성장, 기업계약 등)
- 가계에 대한 종단적 정보는 가족중 실업자가 되면 생기는 변화, 가족 행태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등 파악 가능

#### □ 결론

- 자료가 더 통합될 수록 지식의 갭이 발생하므로 세분화할 필요
  - 고빈도 통계, 기존통계의 카테고리를 세분화, 마이크로레벨 수준을 세밀화 등
- 데이터 갭은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금번 경제위기는 급격한 경제 변화에 있어 데이터 갭의 영향을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
- 국가통계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 이는 다음의 경기순환에 대비하기 위해 통계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다. 주요 토론내용

### □ 이탈리아 통계청장(Mr. Enrico GIOVANNINI)

- 많은 국가통계청은 책자발행부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DB에 저장된 자료량 등 물량적 측면에서 통계성과물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공식통계에 대한 무지하거나 불신이 존재
  - 유럽인 8%만이 자국의 GDP성장율을 알고있고 45%는 공식통계를 불신
  - 미국인 40%는 공식GDP자료 혹은 담당기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음
- 공식통계는 비시장성 서비스로서 그 성과물은 '지식(Knowledge)'에 해당하고 이는 물량이 아닌 '품질'로서 평가되어야 함
- 공식통계 성과물 평가 산식

$$VAS = \sum_{i=1}^n (QSA * MFi * RSi * TSi * NLi) - CS$$

- VAS = 공식통계 부가가치(value added of official statistics)
  - QSA = 공식통계정보의 산출(official statistical information produced)
  - MFi = 미디어의 역할(role played by media to disseminate QSA to the user)
  - RSi = 통계정보의 사용자 관련성(relevance of QSA to the user)
  - TSi = 공식통계의 신뢰도(trust in official statistics)
  - NLi = 사용자의 수리력(user's numeracy)
  - CS = 통계생산비용(cost of producing official statistics)
- 통계시스템의 중립성·독립성 담보 및 통계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과 과감한 혁신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 브라질 통계청장(Mr. Eduardo Pereira NUNES)

- 브라질통계시스템은 이용자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민주성 증진 및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microdata, metadata를 무료로 제공하며 2년마다 통계 이용자와의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09년 2천명 참석)
  -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홈페이지 방문 '02년 4백만명→'09년 22백만명)

- 브라질통계청은 인구센서스, 가계조사 산업분류 등 주요통계를 생산하지만 재정자료 및 금융자료(fiscal and banking data)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
- 공식통계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 UN통계위원회, 중남미경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역량개발이 매우 필요하며
  - 통계의 품질관리 및 시의성 제고를 통해 사용자 측면에서의 '통계 격차(gap of statistics)'를 해소할 것을 권고함

#### □ 모로코 기획부 통계국장(Mr. Mohamed TAAMOUTI)

- 효과적인 통계시스템은 현안 이슈를 조명하고 필요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함.
- 효과성의 전제조건 : 법적 근거, 독립성, 통계활동조정 등
  - (법적 근거) 대부분 개도국은 통계법이 있으나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소득세·사업자등록 등 행정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
    - ※ 세계은행 법치척도 : 개도국(49.9점/100점), OECD평균(90.2점/100점)
  - (독립성) 독립성은 통계시스템 신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개도국의 경우 국내자료와 국제기구 자료간의 불일치는 통계시스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침
  - (비밀보호) 개도국은 마이크로 데이터 배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 바, 자료접근 제한은 숨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음
- 효과성에 대한 양적 척도(quantitative indicator)는 어느정도 개선이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개도국은 전반적인 평가가 어려움.
- 좀더 종합적이고 단일화된 효과성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통계의 신뢰도 증진 및 통계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 남아공 통계청장(Mr. Pali LEHOHLA)

- 통계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현재 상황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Signal은 줄 수 있음
- 미국통계시스템은 지난 미국에서 유발된 경제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risk 관리, 미래예측 도구 개발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를 위해 개도국 및 선진국 공히 행정자료 활용도 증대될 필요

## □ 한국 통계청장(Dr. Insill YI)

- 유용한 통계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시스템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 다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항상 trade-off가 존재함



## VIII

# 유엔통계위원회 논의요약 자료

## VI

### 가. UN통계처장의 프로그램 이슈에 관한 보고

#### □ 세계통계의 날

- '세계통계의 날' 지정(10월 20일) 승인에 대해 감사하며 유엔통계처는 동 행사 기념활동과 자료를 웹사이트에 등재하였으며, 각국과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

#### □ 세계지리정보관리

- 지리정보는 정책결정과 분석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지리정보와 통계정보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를 활용하는 추세.
- UN은 인구센서스 글로벌 프로그램에서 지리정보를 센서스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UN지리정보워킹그룹(UNWGIG)에서 지도, 자료교환, 기준 등에 대해 관련전문가간의 논의를 하고 있음.
- 유엔통계처는 지리정보관리에 관한 국제회의 창설을 추진중이며 이를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 기후변화 및 공식통계

- 작년 회의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통계청의 관련통계(온실가스, 에너지, 환경 등) 작성 필요성에 공감하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후속 작업이 지연되었음
- 조만간 다양한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으며 노르웨이 제안한 기후변화통계에 관한 T/F구성에 동의함

#### □ 국가통계 품질측정 프레임워크

- 공식통계의 작성과정과 결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캐나다통계청이 제안한 품질측정 프레임워크를 지지함.
- 유엔통계처는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여 본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차기 통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임

## □ 자료 배포

- 자료배포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세미나(2.19일 부대행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존의 통계생산 중심에 벗어나 증대되는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여 자료배포에 관한 선진기법을 개발할 필요성 증대
- 유엔통계처는 각 국의 통계자료 배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통계DB 구축 및 이를 UNdata에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
- 또한 UNdata를 유엔관련 통계DB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국가별 DB도 추가하여 통계자료 배포에 관한 국제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

## □ 2010-11 유엔통계처 활동계획 및 2012-13 핵심전략

- UN의 예산시스템은 2년주기로 2010-11년 예산 및 활동계획은 작년말 총회에서 승인되었음.
- 2012-13년 사업계획은 내년 제42차 통계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임



**Statement on Programme Issues by Mr. Paul Cheung,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to the 41st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Agenda item 5: Programme Questions**  
**New York, 25 February 2010**

Mr. Chairperson,  
Distinguished Delegates and Colleagues,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present to the Commission the work programme of the UN Statistics Division. Before doing so, I would like to make a few remarks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41st session of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Programme aspects related to the Statistical Commission**

I am happy to report that a total of about 130 countries represented by their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40 international agencies participated in the 41st session of the Commission and its many side events. I would like to put on record my appreciation to all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that have helped in the preparation of the various events. Special thanks go to the organizers, chairpersons and speakers at the Seminar on Emerging Trends in Data Communication and Dissemination, the High-Level Forum on Official Statistics, and the many other special seminars during these 10 days. Special thanks should also go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have provided publicity material for the exhibition, which was an overwhelming success. I am also thankful for the facilitation provided by France, Sweden, United Kingdom, Paris21, ECOWAS Secretariat, the World Bank and UNFPA to some countries for their participation.

This Commission has considered 31 substantive papers, of which 13 were for discussion and 18 for information. The papers were posted on the web on time in all languages. The feedback I received was that the Commission is satisfied with the current methods of work, the documentation of the papers, and the split between discussion and information papers. This is the third year that we have considered all information papers as a block. This arrangement has worked well. The secretariat will work with the Bureau to further review the methods of work and make appropriate changes if necessary, especially in the direction of an even greater focus on the emerging issues.

As many of you know, the side meetings of the Commission began almost one week before the Commission session and continued throughout the two-week period. In this span, there have been many meetings; some are substantive in nature, others deal with programmatic planning or coordination. There are also m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consultation meetings. These two weeks in New York will continue to grow in their importance as the apex event of the global statistical system. We will continue to play the facilitating role to ensure smooth conduct of these meetings. To ensure proper planning, we would appeal to the organizers of the side events to consult with the coordinator of the Commission ahead of time.

### **Programme aspects related to the work of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Let me now turn more specifically to the work programme of the UN Statistics Division (UNSD).

#### World Statistics Day

I am very glad the Commission has now strongly endorsed the proposal and gave the permission to proceed. I firmly believe that the observance of the World Statistics Day, with the emphasis on the core values of service to the nation and the world, professionalism and integrity will help promote the importance of official statistics. A dedicated space on our website has been prepared. All activities related to this special day will be prominently displayed. A logo has been designed. I strongly urge all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to prepare posters and publicity materials and to hold observance events for this special day.

####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In 2008, I have stressed in my programme statement that detailed geographic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relevant for development analysis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is is now commonly known as a “Place-based” or “Location-based” information system. We believe that there are enormous benefits to be derived from a further systematic integration of geographical and statistical information, and putting in place appropriate infrastructure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In many countries, this trend of integrating geographi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is already gaining momentum. In our Global Programme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extensive work has been done to push for the geo-coding of census data. At the United Nations, the UN Working Geospatial Information Group (UNWGIG) brings together UN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field of cartography and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on common geospatial issues, such as maps, boundaries, data exchange, standards and naming conventions.

UNSD, supported by the Regional Cartographic Conferences and the Conference on Geographic Names, hopes to organize a world conference on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in due course. A committee of experts has been established to

As many of you know, the side meetings of the Commission began almost one week before the Commission session and continued throughout the two-week period. In this span, there have been many meetings; some are substantive in nature, others deal with programmatic planning or coordination. There are also m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consultation meetings. These two weeks in New York will continue to grow in their importance as the apex event of the global statistical system. We will continue to play the facilitating role to ensure smooth conduct of these meetings. To ensure proper planning, we would appeal to the organizers of the side events to consult with the coordinator of the Commission ahead of time.

### **Programme aspects related to the work of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Let me now turn more specifically to the work programme of the UN Statistics Division (UNSD).

#### World Statistics Day

I am very glad the Commission has now strongly endorsed the proposal and gave the permission to proceed. I firmly believe that the observance of the World Statistics Day, with the emphasis on the core values of service to the nation and the world, professionalism and integrity will help promote the importance of official statistics. A dedicated space on our website has been prepared. All activities related to this special day will be prominently displayed. A logo has been designed. I strongly urge all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to prepare posters and publicity materials and to hold observance events for this special day.

####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In 2008, I have stressed in my programme statement that detailed geographic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relevant for development analysis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is is now commonly known as a “Place-based” or “Location-based” information system. We believe that there are enormous benefits to be derived from a further systematic integration of geographical and statistical information, and putting in place appropriate infrastructure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In many countries, this trend of integrating geographic and statistical information is already gaining momentum. In our Global Programme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extensive work has been done to push for the geo-coding of census data. At the United Nations, the UN Working Geospatial Information Group (UNWGIG) brings together UN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field of cartography and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on common geospatial issues, such as maps, boundaries, data exchange, standards and naming conventions.

UNSD, supported by the Regional Cartographic Conferences and the Conference on Geographic Names, hopes to organize a world conference on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in due course. A committee of experts has been established to

spearhead this process. This world conference will explore issues related to geographic information and the integration of statistic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 Climate Change and Official Statistics

The Commission agreed in the 40<sup>th</sup> session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data needs arising from the climate change agenda and see how official statistics can contribute. Our work in this area was delayed by the Conference of Parties negotiation processes as well as urgent work related to the financial crisis. We will now consult with member states on how to proceed on the substantive work and to engage the various stakeholders so as to assess the contributions to official statistics, especially in the so-called MRV - monitor, report and verify processes. Norway has suggested the formation of an Ad Hoc Group on Climate Change Statistics. This is a good idea and worth exploring.

### National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Quality assurance is an essential part of our work and is the basis for the credibility of our institutions. This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by some recent political debates where the issue of the reliability of official statistics featured prominently. The discussion here at the Commission, based on the excellent programme review prepared by Statistics Canada, has shown that there is scope to develop a quality framework to ensure the quality of statistical procedures and outputs. The development of a common generic National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will facilitate bi-lateral quality related work, such as peer reviews, and will help those countries that are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ing their quality procedures. The work on such a generic Framework template will of course build on the extensive work already done in this fiel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UNSD will organize and support the group of experts in its work to develop such a framework to be presented at the next Commission session.

### Data dissemination

The very successful seminar on Friday on Data Communication and Dissemination, with its exciting presentations and lively debate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helping countries to make their statistical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o the broad spectrum of users. In light of ever increasing demand and fast developing technological tools, this is imperat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 far primarily focused on the data production sid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so exchange experiences on data dissemination and to develop tools that can be used by many countries. UNSD will be starting a programme to assist countries in all aspects of data disseminati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MDGs. We will help countries to evolve a data dissemination policy, to build a national indicators database, and to link this data base to the data hub at UNdata. We will work

with all stakeholders on this effort, especially the UN Regional Commissions and other sub-regional entities.

At the global level, we will continue to improve UNdata as the gateway to access statistic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UN system databases. We will ensure, with our UN system partners, that the content is up-to-date and that data coverage is extended. We will improve metadata and functionalities, such as visualization tools, in line with user feedback received. With country databases to be added to UNdata, the data portal will serve as the core of the global data dissemination system.

### **UNSD Work Programme 2010-2011 and Strategic framework 2012-2013**

As you may know, the UN functions in a two-year budgetary cycle. The budget and work programme for the years 2010 and 2011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last year and the Commission took note of the Division's current work programme in its 40th Session. We have also prepared a proposed strategic framework for the biennium 2012-2013. It is available as a background document for the Commission's review and comments. The detailed biennial programme plan for the 2012-2013 cycle, modified as appropriate, will be presented to the Commission at its 42nd session in 2011.

Thank you.

**나.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제41차 유엔통계위에 관한 보고**  
**(Report on the forty-first session) \* 별첨**




# IX 기 타

## 1.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부대회의(Side Event)

	오 전	오찬	오후
2.19[금]	10:00 - 1:00 자료보급 및 커뮤니케이션에 서의 신경향관련 세미나 (Conference Room 2 TNLB)		2:00 - 5:30 자료보급 및 커뮤니케이션 에서의 신경향관련 세미나 (Conference Room 2 TNLB)
2.20[토]	10:00 - 1:00 통계개발전략계획 관련 PARIS21 회의 (Conference Room: DC2-230) (Closed meeting)	1:00 - 3:00 pm 아프리카 그룹회의 (DC2-1949)	2:00 - 4:00 pm PARIS21 이사회미팅 (DC2-1949) (Conference Room 2 TNLB)
2.21[일]	09:30 - 2:00 ICP 집행위원회 회의 (Conference Room: 밀레니엄 UN plaza호텔) (Closed meeting)		4:00 - 7:00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관련 세미나 (Conference Venue: Permanent Mission of France) (Closed meeting)
2.22[월]	9:00am - 11:00am IAOS회의 관련미팅(DC2-2111)  9:30 - 12:00 제15차 CCSA 회의 (Conference Room: TBD) (closed meeting)  10:00 - 11:45 SDMX의 국가사례 (Conference Room 3 TNLB)  09:30 - 11:30 CensusInfo (Conference Room 5 TNLB)  11:45 - 1:00 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 (Conference Room 5 TNLB)  11:45 - 1:00 ECLA 집행위원회 회의 (Tudor Hotel) (closed meeting)	12:30 - 1:30 DECDG(세계은행 데이터그룹) 및 ESCWA지역 미팅 (Conf. Room B TNLB)  1:50 - 3:00 IAOS집행위원회 미팅 (DC2-1949)	<b>3:00 - 6:00</b> <b>고위급 포럼 :</b> <b>국가통계시스템의 실효성 제고</b> (Conference Room 3 TNLB)

	오 전	오찬	오후
2.23 화	10:30 제41차 UN통계위원회 개최식 (General Assembly Hall)	1:50 - 3:00 부동산가격측정 오찬세미나 (Conference Room 3 TNLB)  1:50 - 3:00 농업통계국제회의(ICAS-V) 관련 미팅(비공개) (Conference Room C TNLB)	6:00 리셉션 (Ex-press Bar)
2.24 수	8:00 - 10:00 국제무역통계관련 기관간 회의 (Conference Room C TNLB)	1:50 - 3:00 오찬세미나 통계생산과정의 현대화 (스웨덴) (Conference Room 3 TNLB)	
2.25 목	8:45 - 9:45 경제·금융통계에 관한 기관간 회의 브리핑 (Conference Room 3 TNLB)  9:00 - 09:45 여성폭력관련 통계지표에 대한 요약보고 : 후속조치 (Conference Room C TNLB)	1:50 - 3:00 오찬세미나 분쟁이후 국가에서의 인구센서스 (Conference Room 3 TNLB)	3:00 - 5:00 유엔시스템회의 (Conference Room B TNLB)  <b>2:30 - 6:00</b> <b>OECD Committee Bureau 회의</b> (Con. Room DC2-1949)  3:00 - 5:00 국제무역통계 (Conference Room A TNLB)  3:00 - 5:00 이슬람권 통계기관 및 경제사회연구/교육센터 회의 (Conference Room C TNLB) (closed meeting)
2.26 금	9:00 - 9:50 세계 경보체계관련 회의 (Conference Room 3 TNLB)		

## 2. 고위급 포럼 Flier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Forty-First Session  
23 - 26 February 2010

# High Level Forum on Official Statistics

## “Are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Effective?”

**About the Forum**  
The annual High Level Forum on Official Statistics considers critical issues in official statistics and provides guidance in the advancement of the global statistical system.

**Moderator:**  
**Insill Yi**  
*Commissioner, Statistics Korea*

**Keynote Speaker:**  
**Rebecca M. Blank**  
*Unde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US Department of Commerce*


**Panelists:**  
**Enrico Giovannini**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taly*

**Eduardo Pereira Nunes**  
*President, IBGE, Brazil*

**Mohamed Taâmouti**  
*Directeur, Direction de la Statistique, Morocco*

**Pali Lehohla**  
*Statistician-General, Statistics South Africa*

**Monday, 22 February 2010**  
**Conference Room 3**  
**Temporary North Lawn Building**  
**3:00 - 6:00 pm**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tatistics@un.org](mailto:statistics@un.org)

### 3.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사진

고위급포럼 좌장 I	고위급포럼 좌장 II	전체 회의장 I
		
전체 회의장 II	UNFPA(유엔인구기금) 면담	UNDP 면담
		
룩셈부르크 소득연구(IS) 리셉션	ICT통계 국제 회의 소개	SIAP소장 실무협의
		
UN통계처 사무실	참가자 등록장소	주유엔 한국대표부
		



ᠨᠠᠯᠠᠭ ᠰᠠᠨᠠᠭ ᠰᠠᠨᠠ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BADAMTSETSEG**  
Batjargal

Director  
Macro Economic Statistics  
Department

Government building III,  
Ulaanbaatar, Mongolia  
Tel: (976-51) 262767  
Fax: (976-11) 323118  
E-mail: badamtsetseg@nso.mn  
Web: http://www.nso.m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GANCHIMEG Mijiddorj**

Head of Foreign Relations and  
Cooperation Department

Government Building III  
Baga toiruu-44  
Ulaanbaatar -20A  
Mongolia

Tel: 976-51-267547  
Mobile: 976-99035115  
E-mail: ganchimeg@nso.mn  
ganaschka@yahoo.de



**Susan TELTSCHER, PhD**  
Head  
Market Information  
and Statistics Division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BD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Place des Nation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 22 730 5937  
Mobile: +41 79 599 1409  
Fax: +41 22 730 6449  
E-mail: susan.teltscher@itu.int  
www.itu.int



**Youlia Antonova**  
Statistician  
Trade Statistics Branch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2 United Nations Plaza  
Room DC2-1534  
New York, NY 10017, USA

Tel.: 1-917-367-3376  
Fax: 1-917-367-5106  
E-mail: antonova@un.org

**Rogelio Fernández-Castilla**  
Executive Coordinator, Census  
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castilla@unfpa.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20 East 42n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7  
Telephone: +1 (212) 297-5212  
Fax: +1 (212) 297-4915  
Web site: www.unfpa.org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rbjörn Fredriksson**  
Officer-in-Charge  
ICT Analysis Section  
Science, Technology and ICT Branch  
Division on Technology and Logistics

UNCTAD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10  
Switzerland

Tel: +41(0)22 917 21 43  
Fax: +41(0)22 917 00 52  
E-mail: torbjorn.fredriksson@unctad.org

**Kae Ishikawa**  
Resource Mobilization Specialist  
Resource Mobilization Branch  
IERD  
ishikawa@unfpa.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20 East 42n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7  
Telephone: +1 (212) 297-4950  
Fax: +1 (212) 297-4918  
Web site: www.unfpa.org

**Mabingue Ngom**  
Director  
Programme Division  
ngom@unfpa.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20 East 42nd Street  
New York, New York 10017  
Telephone: +1 (212) 297-4979  
Fax: +1 (212) 297-4982  
Web site: www.unfpa.org

## X 회의의제 자료(영문)

### 1. 유엔통계위원회 (별첨)

## 2. OECD의장단 회의 (별첨)



### 3. 각국 참가자 명단 (별첨)